



© (Suryaunhang) Lee Jheeyung

《30+1 : 떠오르도록》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2 특별 기획전, 청계피복노동조합아카이브❶]

2022 특별 기획전



[30 + 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 + 1 : To Rise Up]

2022.12.20 ~ 2023.05.07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❸
Cheonggye Pibok Labor Union Archive ❸

● 2022 특별 기획전 [30 + 1 : 떠오르도록]

● The Exhibition to [30 + 1 : To Rise Up]

주최 | 서울특별시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시 총괄 | 오동진

자문 및 자료 제공 (가나다순) | 경향신문 권순갑 권영국 김진규 김하경 김학찬 나성자 단병호 매일노동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순희 박용수 박홍배 신광용
신순애 신정임 양승화 우다야 라이 유지현 유현아 이동우 이수호 이숙희 이순자 이승철 이총각 임종린 임현재 원풍동지회 전순옥
전태일재단 정명자 정인숙 조도영 최순영 최연봉 최종인 최현미 하명희 한국일보

공간 디자인 및 서풍 | 램페이지[한주예술]

그래픽 디자인 | 램페이지[이채린]

영상 촬영 및 편집 | 만경[허철녕] 수상사[이무언, 임승택]

사진 촬영 | 수류산방[이지웅]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Chun Taeil Memorial]

[0319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전화] 02.318.0903 ~ 4 [www.taeil.org]

● 이 책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5월 7일까지 진행된 특별 기획전 『30 + 1 : 떠오르도록』의 전시 도록이다.

이 도록의 모든 글은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 원칙을 준용했다.

인명 · 회사명 · 단체명 등의 이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더라도, 그 주체가 자신을 지칭한 방식이나, 오늘날 널리 통용되는 표기를 그대로 채택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 원칙에 따라 적었다.

전태일기념관이 소장하지 않은 유물 및 자료에 한하여 소장처(제공처)를 명시했다.

본 도록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도록 [30 + 1 : 떠오르도록]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❸

● The Exhibition to
Cheonggye Pibok Labor Union Archive ❸

● 초판[01쇄] 2022년 12월 30일 | ISBN 979-11-980-3302-4 93910 | Printed in Korea, 2022
Produced, Edited, Photographed, & Designed by SuRyu SanBang

● 수류산방 樹流山房 SuRyu SanBang
등록 2004년 11월 5일(제300-2004-173호)
[03054]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47-1 [신문로 2가] | T. 82.(0)2.735.1085 | F. 2.(0)2.735.1089
인쇄 코리아프린테크 (T. 82.(0)31 932 3551 ~ 2 담당 : 임종휘)

2022 특별 기획전

●
[30 + 1 : 떠오르도록]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❸

2022 특별 기획전 ● [30 + 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 + 1 : To Rise Up]
[A]

● 2022 특별 기획전 도록 [30+1 : 떠오르도록] 2022.12.20~2023.05.07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❶

●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Cheonggye Pibok Labor Union Archive ❸

[A] 들어가기 전에 잠깐	008
[T-1] 사랑과 연대, 그리고 행동 [오동진]	013
[T-2] 30+1개의 잇는 마음이 떠오르도록 [강재영]	017
[T-3] 실패를 잘 하기 위한 싸움을 기다리며 [유현아]	021
[B]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3층 꿈터 (기획 전시실)]	031
[1] 연대를 잇는 연대	035
[1-1] 연대를 잇는 연대를 위하여	040
[1-2] 30+1개의 이야기	056
[T-4] 수상자 인터뷰	
노동상 2회 [이수호] + 문학상 22회 소설 [하명희]	064
노동상 3회 [단병호] + 문학상 28회 생활글 [조도영]	074
노동상 23회 [김진규], 26회 [우다야 라이] + 문학상 21회 르포 [신정임]	080

노동상 25회 [유지현] + 문학상 17회 소설 [김학찬]	088
노동상 29회 [박홍배] + 문학상 23회 시 [이동우]	098
노동상 30회 [권영국, 임종린] + 문학상 21회 르포 [신정임]	104
문학상 3회 [김하경] — 문학상 15회 시 [유현아]	112
[2] 어느 골목길	126
[3] 마음 잇기 사랑과 평화로	132
[C]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	
[T-5] 전태일과 최명아 [김해자]	141
[T-6] 시 [권민경, 김현, 박소란, 손미, 신철규, 양안다, 육호수, 최지인]	155
[D] <떠오르도록> (수류산방 + 이지웅) [3층 꿈터 (기획 전시실)]	177
[E] [T-7] 다시 떠오르도록, 다시 분노할 수 있도록 [조병준]	185



© (Suryuanbang) Lee Jeeyoung

종로1가/보신각

파고다공원

종묘/세운상가

종로5가

전태일다리(버들다리)

홍인지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서울 중구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평화시장 — '전태일 분신 장소' 표석(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48) — 평화시장

011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A]

01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 노조 사무실 풍경.

[T-1]

사랑과 연대, 그리고 행동

전태일기념관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연대, 그리고 행동입니다. 전태일 정신을 온전히 이어온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연대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여러 노동조합 간부들과 학습도 같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투쟁했습니다. | 전태일 기념사업회는 1988년부터 전태일 정신을 잇기 위하여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두 상은 어느덧 서른 번째가 되었고 기획 전시를 통하여 투쟁과 문학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970년 청계피복노조가 연대 투쟁한 기록과 이후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이야기들을 담아 〈30+1: 떠오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 전시는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를 잇는 연대'에서는 2022년 전태일노동구술기록 4회차에 참여한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YH노조, 동일방직노조 등 당시 함께 싸웠던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과,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 역대 수상자가 만나 전태일 정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공간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는 1970년대-80년대 노동조합 사무실의 환경을 모티브로, 퀴즈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된 노동환경과 연대의 마음 잇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전태일 정신은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노동 현장과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전시와 함께 발행한 도록이 많은 분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오동진** 관장



2022 특별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연대를 잇는 연대' 부분. 어두운 전시장 가운데 <떠오르도록> 작품이 홀로 조명을 받고 있다.

[T-2]

30+1개의 잇는 마음이 떠오르도록

[T-2-1] 마음의 첫 발 [T-2-2] 보이고 이어지고 [T-2-3]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의 마음

[강재영]

017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A] [T-2] 30+1개의 잇는 마음이 떠오르도록 [강재영]

016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리플릿, [디자인 : 램페이지]

[T-2-1]

마음의 첫 발

있는 마음은 시간을 타고 물결이 되어, 지금 여기 청계천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쌓아 온 것들이 하나 둘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있는 마음들은 의연하게 팔과 어깨를 걸고 당연하다는 듯 앞으로 나섭니다. 1970년대, 나와 가족을 살리기 위한 노동이 갖은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던 때, 노동자는 뭉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만든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YH노조, 동일방직노조 등 당시 민주노조들은 회사 이름과 상관없이 노동자라는 정체성 아래 하나 되어 싸웠습니다. 인간대우 제대로 받기 위해, 배고프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잘 지기 위해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T-2-2]

보이고 이어지고

있는 마음은 기념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1988년 전태일기념사업회는 사랑과 연대, 그리고 행동으로 대표되는 전태일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노동 단체에 수상하는 ‘전태일노동상’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불의에 맞서 이를 극복하려는 문학적 시도를 응원하는 ‘전태일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두 상은 어느덧 서른 번째가 되어 한국 노동 운동과 문학계에서 중요한 상이 되었습니다. 수상 단체와 작가들은 1970년대 민주노조가 그랬듯,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도 인간 존중과 인간 해방의 마음 잇기를 묵묵하고 진득하게 노동 현장의 안과 밖에서 실천해 온 이들이었습니다.

1970년 청계피복에서 시작하여 원풍모방, YH노조, 동일방직을 지나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에 담긴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오래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일한 만큼 대우받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30개의 이야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의 자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대로 만드는 사랑과 평화가 멈추지 않고 떠오르도록, 특별전시 〈30+1: 떠오르도록〉의 막을 엽니다.

[T-2-3]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의 마음

전시는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연대를 잇는 연대’에서는 2022 전태일노동구술기록④ ‘전태일 정신의 확장과 연대’에 참여한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YH노조, 동일방직노조 등 함께 어깨 걸며 싸웠던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과,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의 역대 수상자가 2022년에 만나 전태일 정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쟁과 연대의 마음이 어우러진 성명서 등 문서, 노동 가요 노래 책, 조각과 그림을 증언들과 함께 보며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의 연대를 그려보는 공간입니다. 전시장 한쪽, 동대문 평화시장 방향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작업이 있습니다.

수류산방과 이지웅 작가가 함께 한 사진 작업〈떠오르도록〉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떠오르도록 만든 30년의 장소에서 일출을 담고, 하나의 프레임에 겹쳐내어, 전태일 정신이 다시 떠오르길 소망하는 사진입니다.

1970, 80년대를 떠올리게하는 어느 골목길을 지나면 1970년대~1980년대 노동 조합 사무실의 환경을 모티브로 한 두 번째 공간에 다다릅니다. 두 번째 공간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는 1970년대~1980년대 노동 조합 사무실의 환경을 모티브로, 퀴즈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된 노동 환경과 연대의 마음 잇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대를 잇는 연대’에서 얻은 정보가 힌트가 되기도 하고, 잇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지요. 기억하지 않으면, 애써 이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이곳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투쟁과 연대의 시공을 지나, 사랑과 평화의 내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T-3]

실패를 잘하기 위한 싸움을 기다리며

30 + 1 : 떠오르도록

[T-3-1] 흔들리는 이야기들 [T-3-2] 전태일부터 지금까지, 연대하는 시간 [T-3-3] 계속해보겠습니다

[유현아]

[T-3-1]

흔들리는 이야기들

2022년 전태일기념관의 주요 키워드는 ‘연대’였습니다. 전태일, 이소선을 중심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3번의 노동구술기록에 더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이 함께 연대했던 주요 사업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세 사업장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 총 17명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는 사이 그들의 청춘이 보였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그들은 각자의 공장과 자기 일에 대해 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합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슬픔을 이야기하기보다 함께했던 수많은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조직의 강령이 아닌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했던 1970년대 서울 곳곳에 공장이 지어지고 노동자가 몰려들던 그곳에 청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란 희망을, 미래를 품었습니다. 철야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고, 커피값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먼지처럼 일해도 그것이 잘 살기 위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열네 살, 열일곱 살, 스무 살. 시키는 대로 일했고 잠깐의 사이사이 그들의 이야기는 흔들렸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한 무리의 노동자가 공장 문에서 우르르 나오니

다. 도시락통 속의 숟가락과 젓가락들이 뒤엉켜 췌소리를 냅니다. 까르르 웃으며 나오는 여성 노동자의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불 꺼진 어두컴컴한 골목길 가로등에 한 청년이 멋있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노동자와 한 노동자는 서로에 기대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구술 기록을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섭외였습니다. 청춘의 중심에서 함께 했던 노동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렸어요. ‘노동’과 ‘운동’이라는 단어가 비밀이었고 노조 간부였던 자신을 숨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노동 운동’을 한 자신을 몰라보기를 희망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고, 후회해서도 아니었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청춘의 일부로 흘러보내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잘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만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노동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야근하지 않고 죽어라 노동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근로기준법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글도 썼습니다. 무엇인가 알수록 해고될까 두려웠고 한 명씩 그 만두는 동료들이 부럽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덜컥 노조 간부가 되었고 떠밀리듯 싸움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노조 노동자들이 도와 달라 하면 무작정 따라가서 함께 싸웠습니다.

[T-3-2]

전태일부터 지금까지, 연대하는 시간

2022년 특별 기획전 《30+1: 떠오르도록》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동자 곁에서 알게 모르게 스스로 연대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970년대 열일곱 명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로 시작해 함께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대의 방법은 모두 제각각이고 바라는 바도 달랐으며 속도와 방법도 달랐습니다. ‘연대를 잇는 연대’ ‘어느 골목길’ ‘마음 잇기’라는 총 세 개의 주제로 인터뷰 영상, 사료, 작품과 함께 1970~80년대를 재현한 공간에서 저곳과 이곳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2022년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이 30회를 맞았습니다. ‘노동’과 ‘문학’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전태일노동상 수상자 및 전태일문학상 수상자가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인터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라는 부제가 붙은 『청계, 내 靑春』, 『목소리』, 『30+1: 떠오르도록』은 이렇게 세 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류산방과 공동 기획이 없었다면 막대한 자료와 이야기를 이렇게 한데 묶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하고 답답하고 고민이 많았을 박상일 방장님, 심세중 실장님, 김나영 피디님, 이지웅 피디님께 두 손 모아 감

사드립니다.

도록에는 전시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과 사료, 수류산방+이지웅 작가의 〈떠오르도록〉 연작 사진 작품, ‘연대’란 무엇인지를 언어로 보여준 8명 시인의 시, 전태일문학상 수상 작가의 글, 전체를 아우르는 에세이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빛나던 순간이었다고 행복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청계피복노동조합, 동일방직, 원풍모방, YH 무역 노동조합 17분의 조합원, 여전히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고 있는 13분의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 수상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떠오를 수 있도록 작품으로 보여준 이지웅 사진가, 시공간을 넘어선 전시 공간 연출을 해 준 램레이드, 인터뷰 촬영과 편집을 맡아준 수상사 그리고 관심 가지고 함께 기억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태일기념관이 여전히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T-3-3]

계속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중 “우리는 실패를 잘하기 위한 싸움을 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고 지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한 여성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의 말보다 힘껏 몸이 중심에 자리 잡은 말이었습

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은 구차하고 외롭고 망한 실패의 싸움이겠지만 그들의 몸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가려진 술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두기로 한다. 애도는 절망보다 희망과 나란히 있으려는 관성을 따른다. 일하는 사람이 더는 죽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 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배운다.”〔《2146,529》(온다프레스,2022) 양정언의 해설 중에서.〕

지나간 이야기가 공감되고 낯설지 않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거나 아직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꿨던 1970년 전태일이 외침이 20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은 ‘노동’하는 삶의 중심에서 ‘연대’라는 희망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리케이드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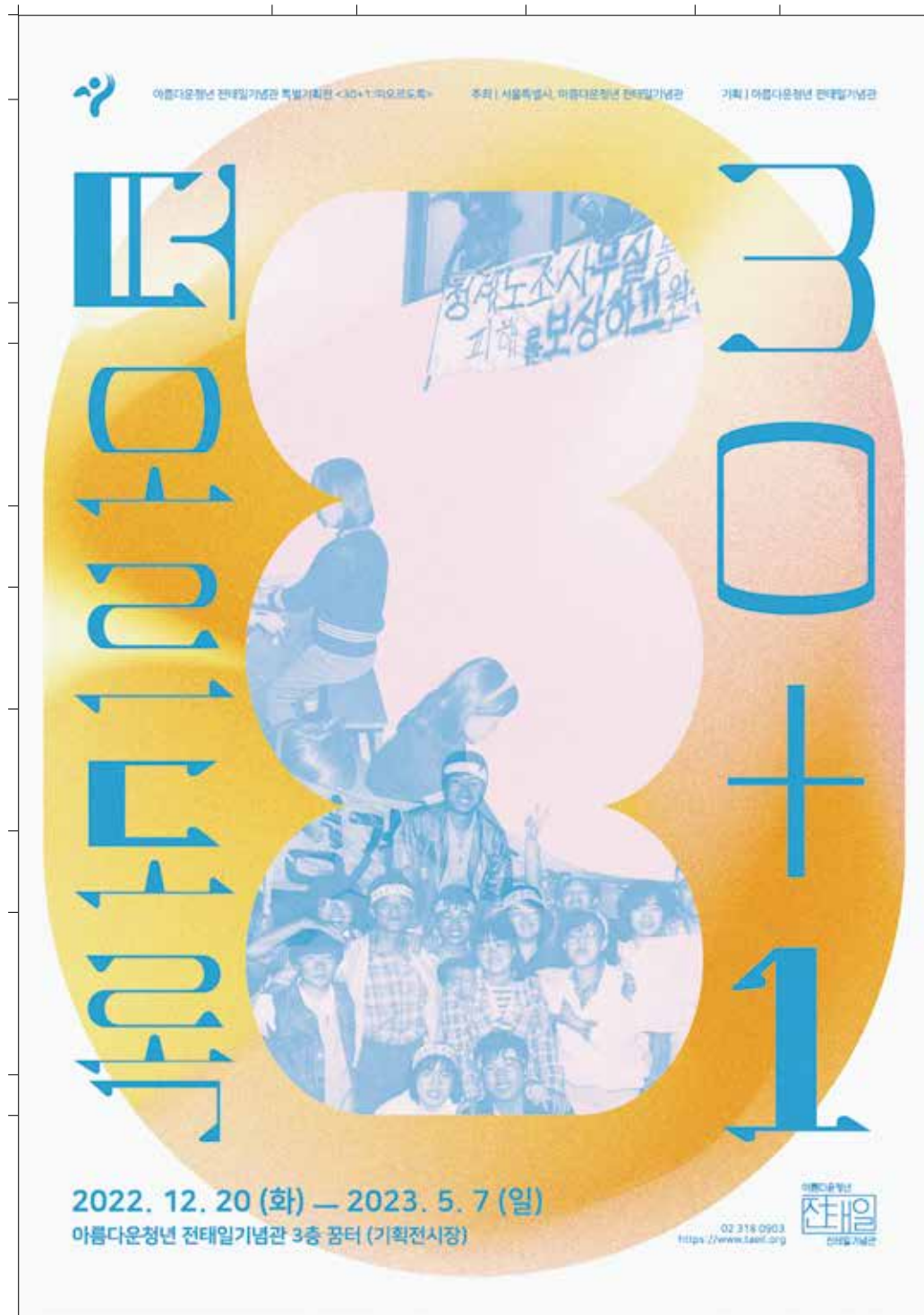
전태일기념관은 계속해보겠습니다.



〈떠오르도록〉 설치 과정 © (Suryanbang) Lee Chaeyoung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장 초입.



2022 특별 기획전 [30 + 1 : 떠오르도록] 포스터, [디자인 : 램페이지]

특별기획전

[30 + 1 : 떠오르도록]

[B]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연대를 잇는 연대' 부분, 입구.

[1] 연대를 잇는 연대

제4차노동 구술 기록 사업 사료전 +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30주년

첫 번째 공간 '연대를 잇는 연대'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노동 환경을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꿈꾸며 실천했던 이들의 기억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처럼 차분하게 정리된 이 공간에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이 어우러져 있는 성명서 같은 문서, 노동 가요 노래책, 조각과 그림을 증언들과 함께 보며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그저 과거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연대를 실천하고 꿈꾸는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수상자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의 연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 전시장 한쪽, 동대문 평화시장 방향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이 있습니다. 수류산방과 이지웅 작가가 함께 한 사진 작업 <떠오르도록>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떠오르도록 만든 30년의 장소에서 일출을 담고, 하나의 프레임에 겹쳐내어, 전태일 정신이 다시 떠오르길 소망하는 사진입니다. 1970년대 사업주의 착취와 정부의 억압에 맞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외치고 싸웠던 네 개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함께 싸웠는지를 증언하는 제조업 공장 노동조합의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인터뷰의 현장감을 더해 줄 사진, 사료 등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 역대 수상자가 2022년에 만나 전태일 정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터뷰와 사진 사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Suryuanbang) Lee Jhee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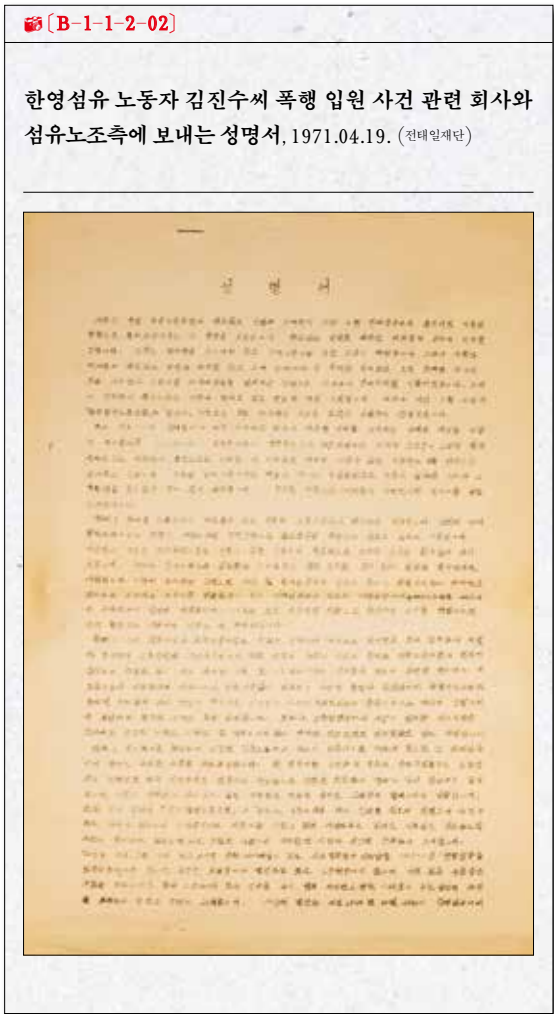


© (Suryuanbang) Lee Jheeyung

04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연대를 잇는 연대' 부분, 노동 구술 기록 관련 사진과 사료.



[B-1-1-1]

청계피복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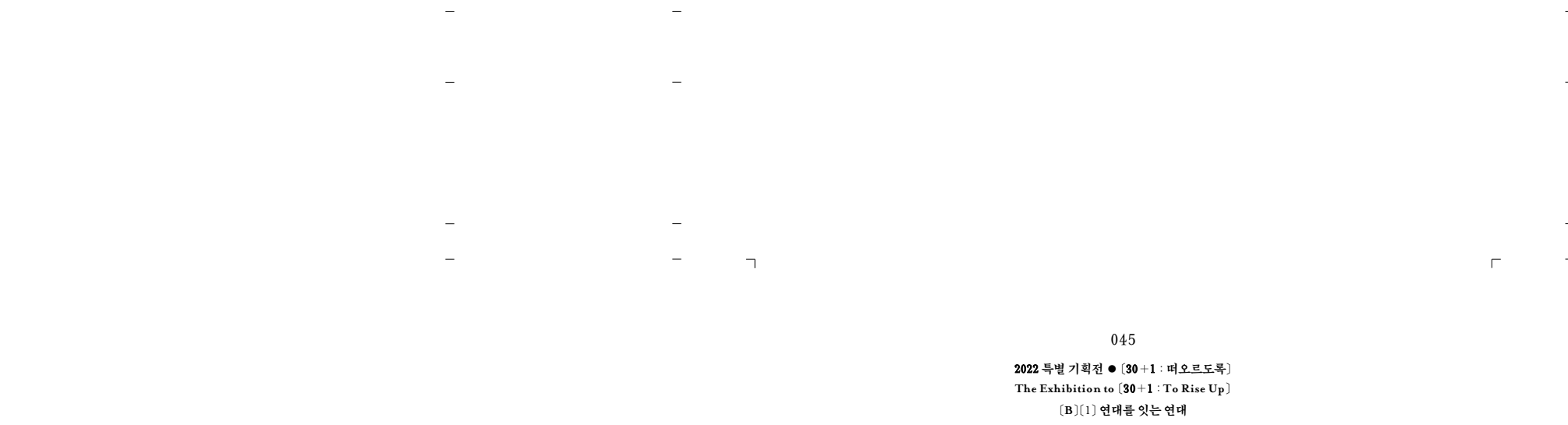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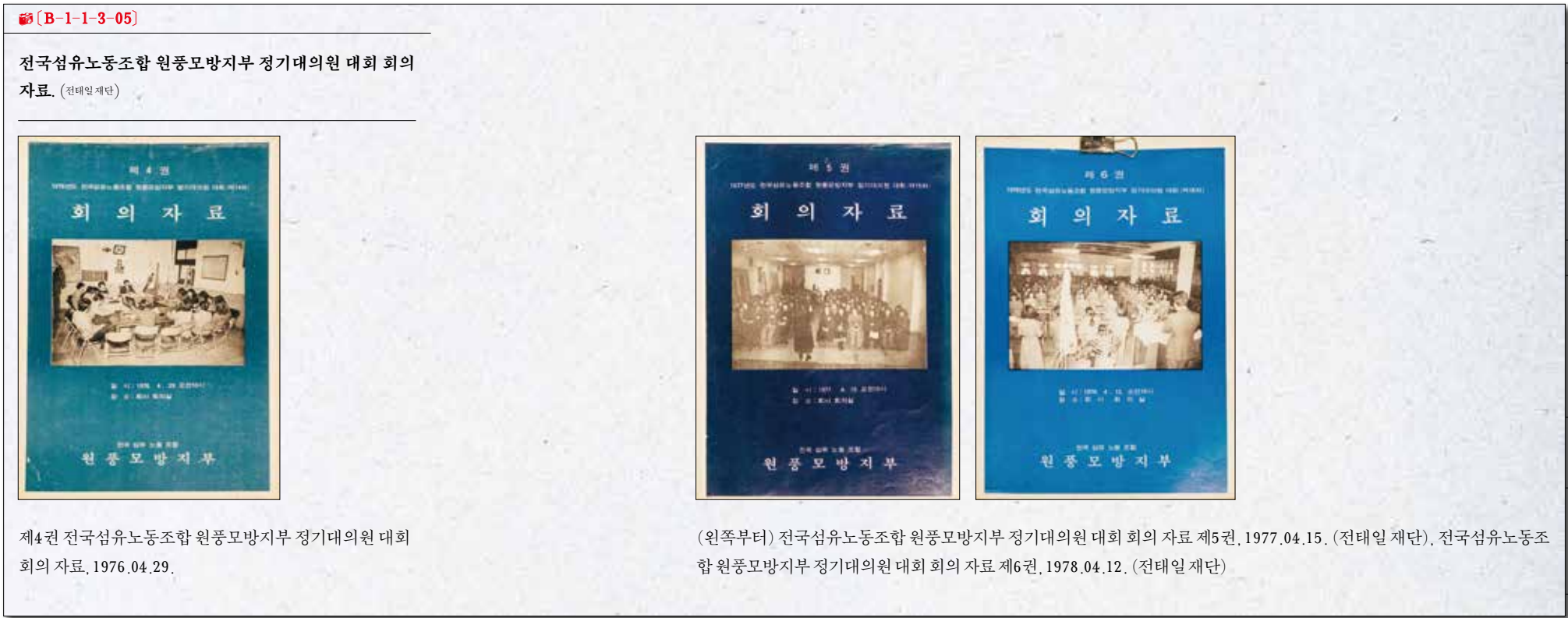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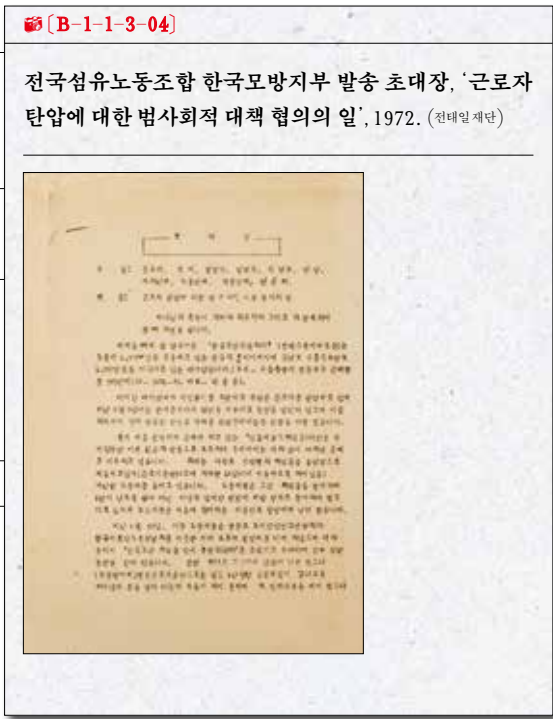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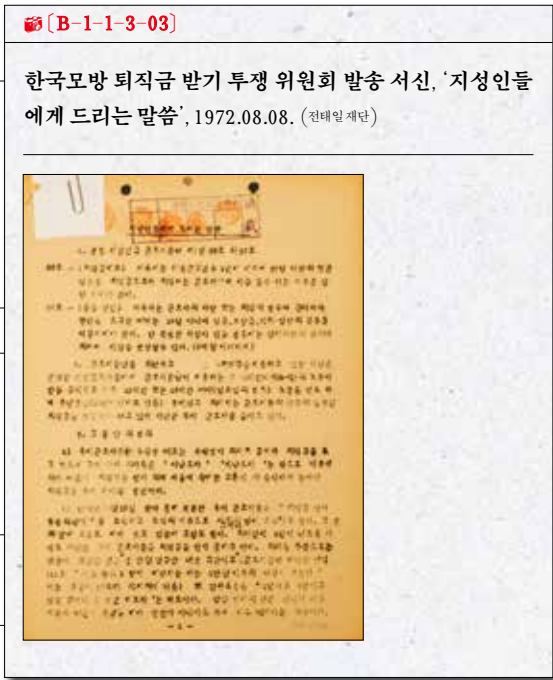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천여 개의 피복제조공장 종사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항거 직후, 유가족 이소선 어머니와 전태일과 함께 노동 운동을 해왔던 삼동친목회의 '노동 조건 개선 8개항'을 노동청에 요구하며 장례 투쟁을 한 끝에, 2주 만인 1970년 11월 27일 전국연합노조(지금의 한국노총) 청계피복지부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전태일의 유지를 받든다는 설립문 내용처럼 기존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와 사측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한 부속 기구였던 것에서 벗어나,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민주 노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은 섬유업종 뿐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 제조업계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참조점이자 정신적인 기둥이었다. 1981년 신군부의 노조 해산 조치로 강제 해산당한 청계피복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청계노조 합법성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 민주화 운동의 강한 중심축이 되었고, 1988년 신고필증을 다시 부여받으며 1998년 서울 의류노조, 그리고 2018년 봉제인지회 설립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연행되었고, 다음날 체포된 55명의 조합원 가운데 8명은 구류, 5명은 구속 나머지는 훈방되었다.



[B-1-1-2]

한영섬유 김진수 살인 사건

영등포에 있던 한영섬유는 섬유 원단 제조 업체로, 김진수는 1968년 한영섬유에 입사했다. 1970년 11월 전태일 분신 항거 소식이 한영섬유에도 전해졌고, 12월에는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분회가 설립되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노조원 200여 명을 강제 퇴사 처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장장은 비조합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적극 가담하던 김진수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노동청과 섬유노조, 회사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자, 한영섬유 종업원 150여 명이 사건의 진상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을 벌였다. 여기에 청계피복노동조합, 조선호텔노동조합 등에서 내건 '김진수는 제2의 전태일이다'라는 구호 아래 산업선교회, 기독교단체 등이 가담하여 진상 규명 시위를 벌였다.



**(B-1-1-3-06)**

원풍노동조합의 현수막 ‘노동 악법 개정하여 노동 삼권 보장하라’, 1984.10.21.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마련한 관악산 노동 문화제, 《제1회 노동문화잔치》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B-1-1-3-08)**

원풍모방에서 열린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1982. (원풍동지회)




**(B-1-1-3-07)**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기념 촬영 중인 원풍노동조합원들, 1981. (원풍동지회)







(아래 사진) 김향자 대의원(왼쪽)과 양승화 부조합장(오른쪽), 1981.

**(B-1-1-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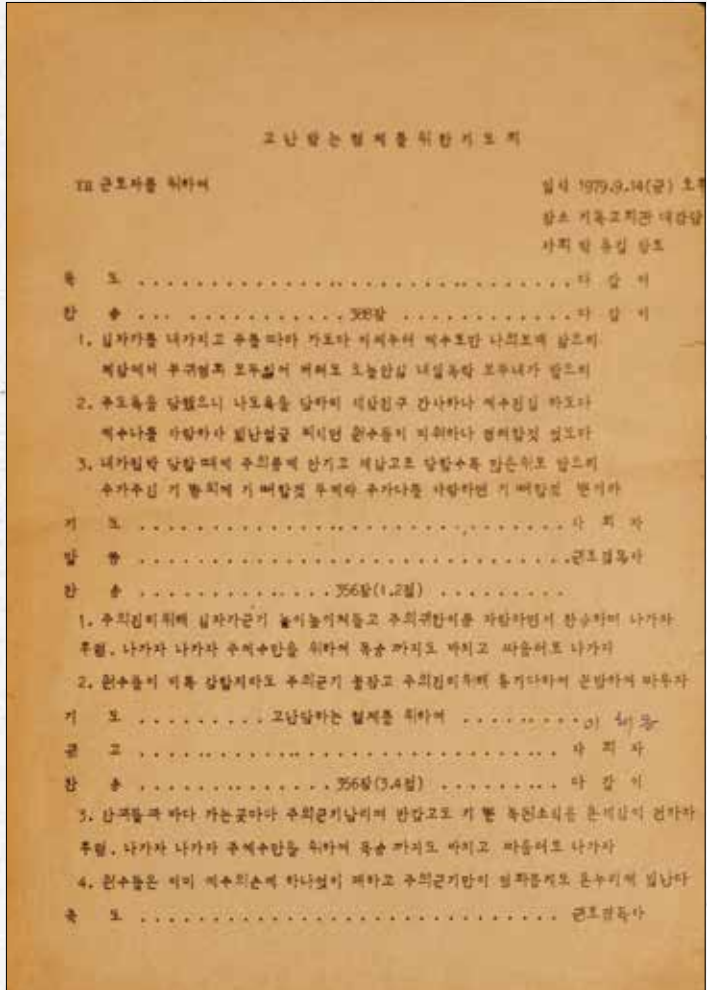
원풍모방 사태와 관련 노조 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탄원서, 1982.06.22. (전태일재단)




(B-1-1-3)
원풍모방노동조합

한국모방(이후 원풍모방)은 1953년 설립된 섬유 직물류 제조 업체로, 1960년대에는 전국 4대 섬유 공장으로서 규모를 불려 나갔다. 그러나 사업주의 부실 경영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임금은 타 공장 대비 30% 적었고, 비로소 1972년 진정한 의미의 민주 노조가 탄생하여 퇴직금 받기 운동 등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 노동조합은 운영과 활동에서 수많은 모범을 만들어냈다. 1973년에는 한국모방이 부도 위기를 맞자 노사가 함께 대책 위원회를 꾸려 잠시지만 공동 경영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금 인상 투쟁은 물론 신용 협동 조합, 공동 구매 조합, 노조 사무실 내 도서관 설치, 다양한 소모임 활동 등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1974년 12월 28일 한국모방의 경영권이 원풍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원풍모방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고, 원풍모방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권과 회사측의 감시도 심해진다. 1980년 노동계 정화 조치에 의해 원풍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이 연행, 구속되는가 하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간부들도 생겼다. 1982년 회사 측은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구사대와 폭력배들을 동원한다. 9월 27일, 정선순 조합장 감금 사건으로 촉발된 ‘9·27 사태’ 이후 노동조합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법외 노조로 활동하며 꾸준히 노동 운동의 길을 걸었다. 원풍모방 조합원들의 활동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명예 회복 싸움을 하면서 2001년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고, 156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이 되었다. 또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노동조합 강제 해산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규명했다.

고난 받는 형제를 위한 기도회— YH 근로자를 위하여,
1979.09.14. (전태일 재단)



[B-1-1-4]

도시산업선교회

195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와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개신교 단체. 개신교의 산업 선교 단체를 총칭하여 도시산업선교회라고 부른다. 산업선교회는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과 직장인, 노동자들의 선교와 교양 교육,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0년대 노동자들의 소모임 구성, 노동 조건 개선과 민주 노조 건설을 지원하는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동일방직노조의 활동이나, YH노조 신민당사점거 사건 등에서 도시산업선교회는 중심 혹은 주변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자 주도 투쟁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가 '도시산업선교회가 회사에 침투하면 도산한다'는 말을 퍼트리며 활동을 방해했지만, 실제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사업주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자금 악화 사례가 전부였다.

📷(B-1-1-5-11)

오물 투척으로 더러워진 통일방직주식회사 사무실,
1978.02.21. (이종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B-1-1-5-12)

동지회보 창간호(1978년 12월호), 1978.12. (전태일 재단)



📷(B-1-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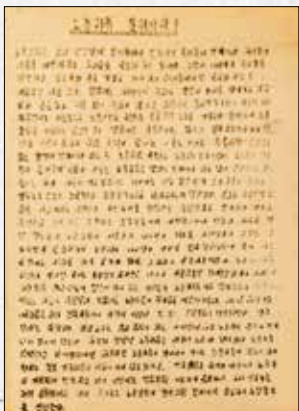
동일방직 사건 경위서, 1978. (전태일 재단)



1978년 2월 21일 동일방직 오물 투척 사건의 진상을 세세히 밝히고 정부와 기업주 뿐만 아니라 섬유노조의 임원들 역시 공모자임을 고발하는 글입니다.

📷(B-1-1-5-14)

노동귀족 물러가라!, 1970년대. (전태일 재단)



동일방직 사건과 관련해 섬유노조 본조와 그 위원장 김영태의 노조 파괴 행위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B-1-1-5]

동일방직노동조합

동일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5대 방직 업체 중 하나였던 동양방직 인천 공장을 적산 불하받아 1955년 인천 동구 만석동에 세워진 방직 공장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자 민주 노조 운동에 영향을 받아 노동조합 민주화를 시도한다. 1972년 5월 10일 있었던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 주길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급기야 1975년에는 차기 여성 지부장 이연순을 감금하고 회사측 남성 지부장으로 강제 임명하는 시도를 자행한다. 이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하다 경찰과 구사대에게 궁지에 몰리자 옷을 벗어 저항하는 일명 '나체 투쟁'까지 벌이게 된다. 1978년에는 여성 집행부에 반대하는 남성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투표를 위해 찾아온 여성 조합원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반발한 동일방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원풍모방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TV 방송 중단, 생방송 개입 등 다양한 방식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꼬투리 삼아 노조 집행부를 해체시키고 조합원 126명을 해고하고 쫓아내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8년 국가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다.

[B-1-1-6-15]

YH무역노동조합의 신민당사 농성 현장, 1979.08. (한국일보)



경찰은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신민당 마포당사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국회의원, 당원, 기자를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성희롱으로 여성 노동자 1백여명, 당원 30여 명과 기자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연행된 여성 노동자들은 강제 귀향 조치되었고,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정권의 폭력을 비판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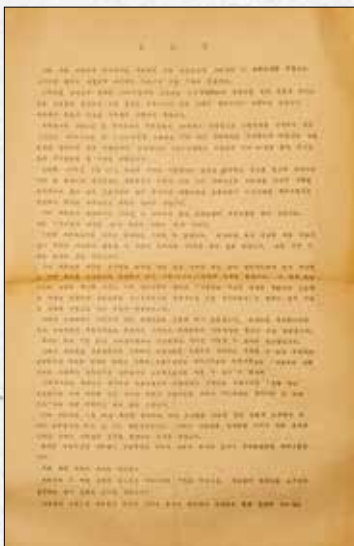
[B-1-1-6-16]

YH무역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의 중인 지부장 최순영, 1979.05.01. (최순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B-1-1-6-17]

전국섬유노동조합 YH무역지부 호소문, 1979. (전태일 재단)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업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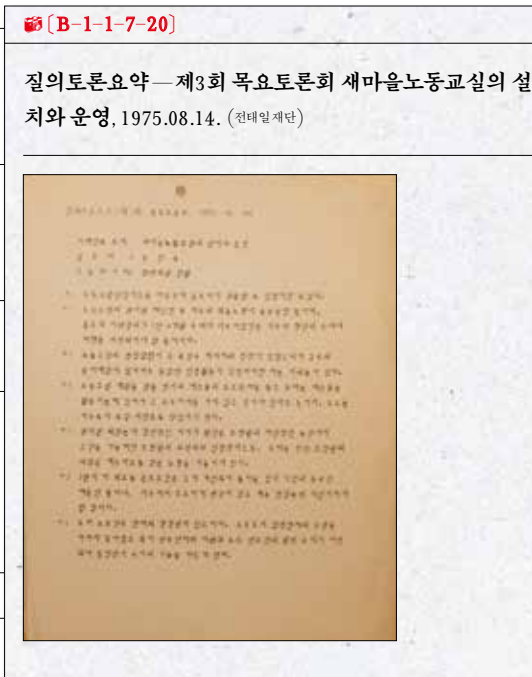
[B-1-1-6]

YH노동조합

자금 100만원, 종업원 10명, 작은 가발 공장으로 1966년에 설립된 YH는 당시 밀어 닥치는 가발 수출의 호경기와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어 기적과 같은 성장을 보인 기업이다. 불과 4년 만에 수출 실적 100만 불, 종업원 4,000명으로 국내 최대의 가발 업체가 되었으며 당시 수출 순위 15위로서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사장 장용호의 영문이름 첫 글자를 따서 YH라 이름지은 YH는 1970년, 회사순이익 12억 7천 3백 89만 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YH의 경영 상황은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악화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197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YH무역은 계속해서 부실 경영을 이어갔고 노동조합은 회사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했다. 결국 1979년 3월 30일 폐업 공고를 낸 YH무역은 조합원들이 뭉쳐 폐업 철회 요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YH노조는 신민당사 점거 투쟁을 결행하였는데, 이때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YH노조는 강제 해산되었고,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경찰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이 일로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자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YH노조 신민당사 점거 사건은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결국 유신정권을 몰락시킨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053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B](1) 연대를 잇는 연대



[B-1-1-7]

크리스찬 아카데미

크리스찬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는 1959년부터 2000년까지 존재했던 교육 단체다. 195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강원용 목사(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의해 1965년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 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1970년대부터는 교회, 청년 학생, 여성, 산업, 농촌 등 5개 분야에 걸쳐 중간 집단 육성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쪽이 함께 사는 길을 만들기 위해선 중간 집단이 화해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노동 교육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초급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각 노조의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계피복,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노조 등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연 노동 조합 중견 간부 교육과 노동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소선 어머니 창동 집에 모여 투쟁 방식을 함께 계획하는 등 연대 투쟁의 발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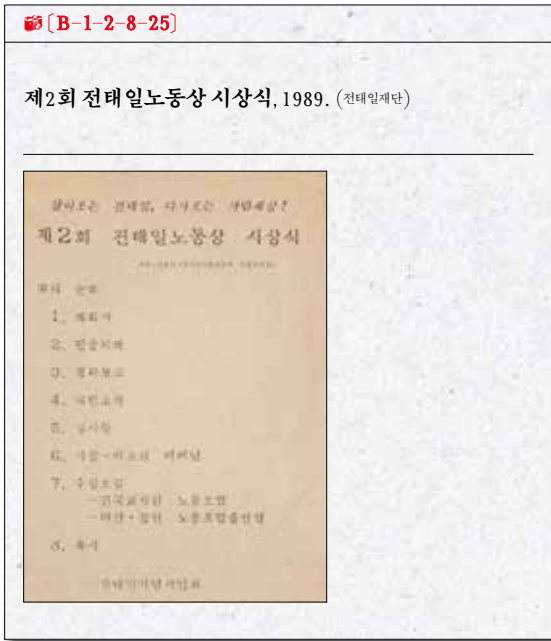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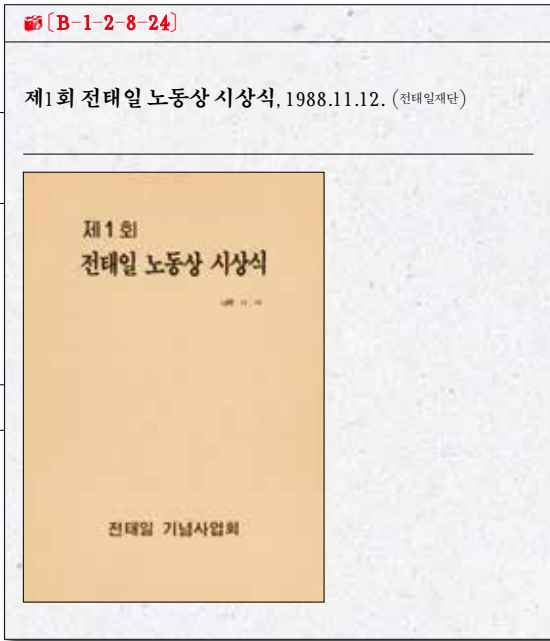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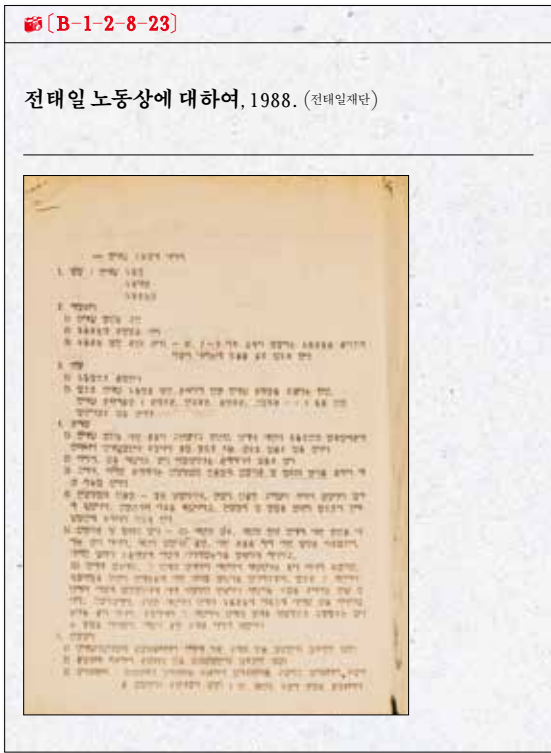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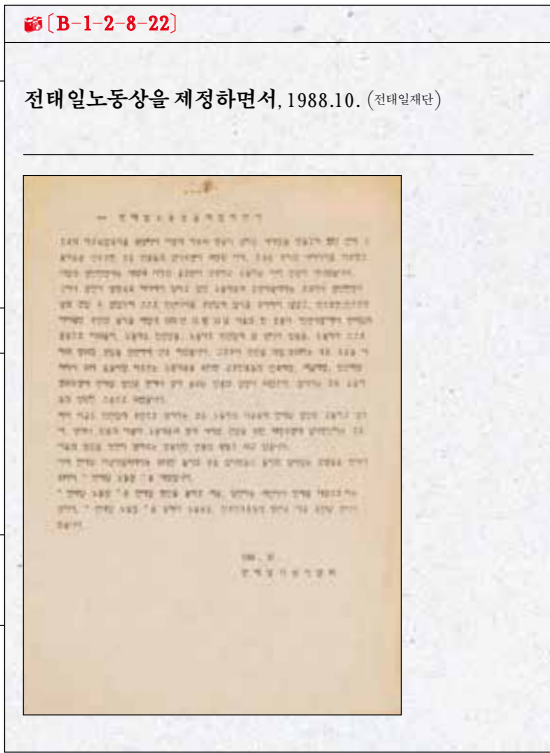


© (Suryuanbang) Lee Jheeyung

056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연대를 잇는 연대' 부분,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관련 사진과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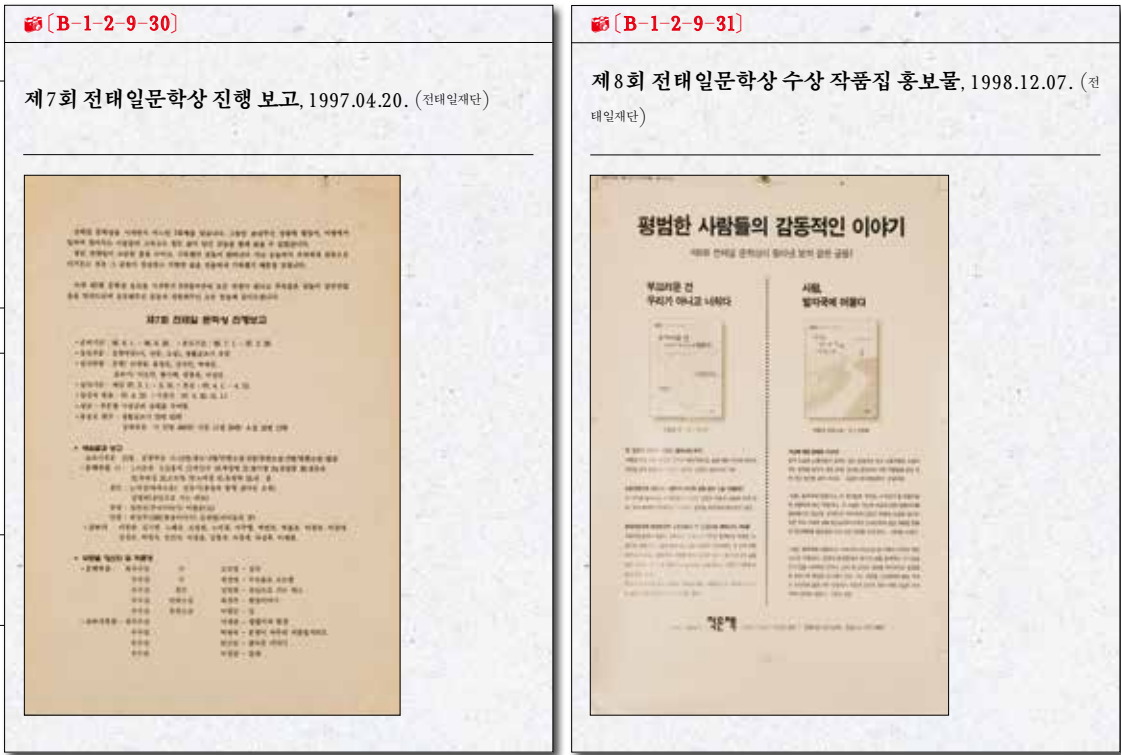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온몸으로 전태일 동지가 산화한지도 18년이 지났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한 모퉁이 ‘인간시장’에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그리하여 스스로 그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불꽃으로 피워 올리며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결코 져줄 수 없다는 동지의 외침이 아직도 쟁쟁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과 권력 측의 횡포와 탄압은 우리 노동자의 자주적인 삶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숨한 어려움으로 막아서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지금도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모든 노동자의 가슴속에 고동치는 전태일 정신은 더욱 그 계승과 구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이에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는 위대한 동지의 뜻을 깊이 받들고, 살아있는 노동 운동의 모범을 널리 빛냄으로써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동 운동이 전태일 정신에 따라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하기 위하여 1988년 전태일 동지 18주기를 맞아 ‘전태일노동상’을 제정한다.” (1988년 10월, 전태일기념사업회)

조직성 전태일 동지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조직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21살 때 ‘바보회’, 22살 때 ‘삼동천목회’를 조직하여 실천했던 것이 그 본보기이다. 열사의 이러한 조직성은 오늘날 모든 노동자 조직으로 살아 이어지고 있다.

투쟁성 1970년 22세 되던 그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청 진정, 시위 등을 했으나 권력과 자본의 탄압으로 좌절되자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투쟁하였다. 열사의 투쟁성은 올 노동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으로 나타난다.

헌신성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나를 모르는 모든 나”와 같은 일기속의 구절을 보면 그는 자기와 전체에 대해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열사는 점심을 굶고 있는 어린 시대를 위해 자기의 버스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는 자기집까지 3시간을 걸어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노동자를 억누르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자신의 하나뿐인 몸뚱아리마저 바쳤던 것이다.

노동 운동과 전체 민중에게 끼친 기여도 전태일 정신은 모든 고통받고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굴리려 하네... 도울 수만 있다면, 이를 수만 있다면” 열사는 우리에게 자신이 못다 굴린 덩이를 계속 이어서 굴려가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열사의 뜻을 이어 전체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하는 투쟁이어야 하고, 전체 민중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운동사·투쟁 보고서 노동(조합)운동사는 물론이고 임금 인상 투쟁, 소몰이 싸움, 수제 납부 거부 운동, 철거 반대 투쟁, 학생 운동, 5월 항쟁 계승 투쟁, 조국통일 운동 등 어떠한 내용의 운동이어도 좋다.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모든 운동과 투쟁의 기록을 모은다. (‘전태일 문학상을 제정하면서’(일부 발췌 및 정리)) [1989, 전태일 재단]



🎧-[B-1-2-10]

전태일노동상 2회 전교조 [이수호]

1989년 제2회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당시 사무처장. ●

🎧-[B-1-2-10]

전태일문학상 22회 [하명희]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책세상 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단편 소설 「꽃 땀」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다. 2014년 장편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로 제22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다. 2019년 단편 소설집 『불편한 온도』로 제22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신인상, 제12회 백신애문학상 수상. 장편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작품집으로 『불편한 온도』, 『고요는 어디 있나요』가 있다. ●

🎧-[B-1-2-10]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하는 때 [하명희]

전태일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앞으로 글을 쓰면서 상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당시 내게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주는 상은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소설은 장편소설이었고, 1991년 5월 투쟁에 함께 했던 기억이자 기록이었으므로 나는 심사위원들이 이 글을 읽어준 것만으로 뭔가를 얻어낸 듯 흥가분했던 기억이 난다. 오랜만에 당시의 수상 소감을 꺼내어 다시 읽어본다. | “진실만이 위로된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24년 전 거리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이었던 우리들은 지금은 4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이 바꾸려 했던 현실의 문제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도 여전히 배회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거리로 나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고, 지금의 우리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왜 우리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패륜아’로 낙인 찍혀야 했으며, 왜 우리들은 길고 오랜 침묵을 지켜야만 했는지를. 당시 해직되었던 전교조 선생님들도 복권이 되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쫓겨났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왜 아무도 그들의 삶을 물어주지 않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우리들을 호명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나고 위로하는 것이 제 소설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내가 당선된 때는 2014년이였다. 그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바닷속에 수장된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광장을 떠돌던 때였다.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거리 한복판에서 158명이 비명을 지를 새도없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글을 보내고 그곳으로 가보려고 한다. 지금 가장 아픈 곳이 그곳임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하는 때라고 나를 다독이며. ●

🎧-[T-4-1]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들의 만남 ① 전태일노동상 2회 [이수호] + 전태일문학상 22회 소설 [하명희] | 2022년 12월 12일 | 전태일기념관

선생님에서 노동자가 되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여정



2022년 12월 12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난 하명희(왼쪽)과 이수호(오른쪽).

1989년 제2회 전태일노동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선정되었다. “노동 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 운동의 주체와 지지자를 확장시켰다”는 것이었다. 내 기억으로도 1989년 5월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결성한 후 집단 해직을 당한 것, 방학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었던 경험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참교육이 도대체 뭐지? 그동안 우리가 받은 건 참교육이 아닌가? 교육의 주체가 왜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지? 왜 선생님들이 노동자일까?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그때는 낯선 질문들이었다. 이후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운동체를 만들었고, 이런 질문들은 전교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되었다. 선생님들이 몸을 던져 외쳤던 교육 운동이 커다란 반향이 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서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배·보상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의 진실 규명이었다. 진실의 시효는 없다지만 “진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이 날은 안타까운 날이기도 했다. 진화위의 결정이 있던 그 시간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 울산 교육감 노옥희 선생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쓸쓸한 마음으로 12월 12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당시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교육 운동에 앞장섰던 이수호 선생님을 만나 전교조의 활동 등을 짚어봤다.

📷(B-1-2-10-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투쟁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조원의 모습, 1989.05.28.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B-1-2-10-3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3주년 기념 전국 교사 대회, 1992.05.31. (전태일 재단)



1992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전국 교사 대회.

📷(B-1-2-10-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명 운동, 1989.07.29.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와 학부모들이 7월 29일 오후 4시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와 함께 명동성당 앞에서 범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전민련,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 등 200개가 넘는 재야 사회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열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왼쪽 당시 반포고등학교 교사 조호원, 오른쪽 당시 전교조 문화국장 맡은 휘문고등학교 교사 이영국.

🎧-(T-4-1)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수상자들의 만남 ① 전태일노동상 2회(이수호) + 전태일문학상 22회 소설(하명희) | 2022년 12월 12일 | 전태일기념관

하명희 :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2014년 장편 소설로 제22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하명희입니다. 제가 상을 받은 소설이 1991년 5월 투쟁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을 기록한 소설이어서 더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먼저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수호 : 저는 교사로 시작해 교육 노동자로 전교조 결성에 참여하였고요, 당시 사무처장,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 뒤에 노동 운동으로 가서 민주총총 위원장 역할도 하고 이어서 진보 정치 운동에도 좀 관여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전태일재단에서 이사장을 하며 전태일기념관 초대 관장도 지냈습니다. 지금은 전태일재단 장학 사업을 특화 시켜서 이소선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책임을 맡고 있고요. 또 노동 운동을 좀 새롭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풀빵'이라는 노동 공제 연합 이사장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노동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명희 : 평생 교육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하셨는데요. 진화 위 결정이 있던 12월 8일, 안타깝게도 제6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인 울산 교육감 노옥희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진화위의 결정은 33년 만에 국가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행한 폭력과 인권 탄압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선생님 의견을 주십시오.

이수호 : 1989년에 노동 조합 형태의 조직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운동을 시작했는데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저희들은 그게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헌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받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특히 어떤 조직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 조합으로 출범했어요. 그게 당시로서는 실정법 위반이다, 불법이다, 하면서 그해 여름 1,500명 이상의 교사가 일시에 교단에서 쫓겨나는 집단 해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 거의 2천 명 이상의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

나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2000년에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 후 33년 만에 진화위에서 그것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하라,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권고를 한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념 논쟁이라든지, 심지어 빨갱이라는 공격부터 학교를 망치는 선생들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이런 것들이 닳았지만 바로잡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교조 결성 초기부터 함께했던 우리 노옥희 선생님은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 운동과 노동 운동 그리고 진보 정치 운동을 넘나 들면서 활동하신 분이예요. 당시 해고를 당하시고도 교육감으로 출마해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 선거에서 다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수적인 울산에서 재선을 했어요. 그만큼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전교조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결정이 난 그 날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안타까움을 넘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오늘이 영결식인데 마음이 무척 아파요.

하명희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미행, 사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이건 또 거꾸로 보면 전교조의 활동이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혁명적인 물결이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제2회 전태일노동상이 전교조에 돌아갔을 때 시상식이 있던 11월 11일, 전교조 결성으로 구성된 선생님께서는 출소 후 바로 시상식장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감옥에서도 전교조 사무처장직을 유지하셨고, 나오자마자 전태일노동상 시상으로 업무에 복귀하신 셈인데요. 당시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이수호 : 우리는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해 해직을 불사하면서 다 같이 나와 싸웠고, 그 여름에 1500명 이상이 집단 해

고를 당합니다. 그해에는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다시피 한 거죠. 당시 교육의 주체,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주관하는가 들여다보면 당연히 정부였어요. 관료, 교장, 이런 분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한 거죠. 교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하수인에 불과했고, 학생들은 대상화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학교 가서 안 맞으면 다행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똑같은 교실인데 한 반에 칠십 명씩 콩나물 시루처럼 가워 놓고 0교시라고 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업을 시켰으니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건 그 자체로 이미 폭력이고 인권 유린이었죠. 말이 안 되는 교육 환경이었어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전교조가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다’, 라고 하면서 그 해가 들썩였죠. 87년 6월 민주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신장돼 가던 그런 때였고, 89년은 묘하게도 문익환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전교조 결성으로 바로 끌려갔어요. 윤영규 위원장님과 사무처장이었던 저, 중앙에서는 두 명이 대표로 감옥에 간 거죠. 저희들은 이른바 양심수 확산범이잖아요. 심문하면 뭐, 내가 다 했다, 그러는데도 질질 끌어서 6개월을 감옥살이를 했죠. 11월 11로 기억하는데 그날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행유예로 나왔고 윤영규 위원장님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못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날 감옥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수의나 마찬가지로 얼른 벗어버리고 싶죠.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걸 그냥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감옥에서도 사무처장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직무 대행을 이동진 선생님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도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이제 얼른 원래대로 일을 하셔야, 그러더라고요. 마침 전태일노동상을 시상하는 날이었어요. 전교조 사무실이 영등포 당산동에 있었는데 성문밖교회〔성문밖교회는 1977년 3월 13일 영등포산업전교회의 기관교회 ‘영등포노동교회’로 시작한 노

동자들을 위한 교회로 여러 노동 운동을 지원, 전개했다. 1983년 “성문밖교회”로 이름을 바꾼다.〕

인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성문밖교회로 갔죠. 그때는 그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서 나와 한 첫 일이 전태일노동상을 받은 게 된 셈이네요. **하명희** :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주적 교원 단체로 갈지 교직원 노동 조합으로 갈지 전교협 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노동 조합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린 대의원들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들의 반응도 들려주십시오.

이수호 :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건 교사 교육자의… 이른바 양심, 이런 거였죠. 이걸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법 아래에서 이런 교육 체제나 이런 학교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오히려 비인간화 교육이다. 할수록 아이들이 더 실책하죠. 이걸 교사가 해야 되느냐라는 각성, 이걸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당시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난한 민주화 투쟁의 큰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교육 운동도 1986년에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바로 그해 가을에 우리도 자주적인 단체를 만들어 단결해서 싸우자 해서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수단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교사의 정체성, 교사는 과연 누군가,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 대한 고민으로 논쟁도 심했고 토론도 엄청나게 했어요. 당시 전교협의 수준을 가늠해 보자면, 각 학교마다 전체 교사의 2분의 1을 훨씬 넘어서 가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88년 교육법 개정 투쟁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권위주의나 독재가 강했으니까. 저런 데 붙어 싸우려면 우리도 노동자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내부 토론을 거치면서 노동 조합으로 가기로 합의, 결정했던 거죠.

하명희 :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물결을 거스르는 거잖아

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결집과 각오가 필요한데, 그래도 설마 1500명이나 해직을 시킬까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 어땠나요? **이수호** : 아무리 각오했다 하더라도 1500명을 해직한 건 진짜 상식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동 조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지도부도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여러 힘을 모아야 되니까 변호사나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88년은 젊고 좋은 국회의원들이 막 진출할 때예요. 젊은 변호사, 그 당시 이철, 박승무, 또 교육에는 삼총사도 있고 그랬는데… 노무현 당시 의원도 있었어요. 한 번은 노무현 의원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법의 취지나 정책으로 보면 교사가 노동자인 게 당연하고 노동자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권리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어쨌든 분단 국가 등을 핑계로 우리나라가 그걸 불법화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깐, 잘못된 걸 그냥 어겨서 아닌 건 아니다, 하면서 고쳐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은근히 노동조합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나 피해 같은 것들이 사실 가늠이 안 된다고, 누구도 안 가 본 길이니깐.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운 표정을 짓고 지금 정부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불법 해고(교사로 해직, 노동 조합으로 해고)를 몇 명쯤 각오하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걸 우리가 언제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각자 머릿속으로 느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상징적으로 각 시도의 대표 한 10여 명, 중앙은 더 잡는다 하더라도 한 50명, 그 전 교육민주화 선언할 때도 각오를 했으니 그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했더니, 노동조합으로 가면 노동에 대

한 저항이 너무 강하고, 아직 국민들에게는 노동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고 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명쯤 각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조합원 전체, 1500명일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드기 작전’〔‘진드기 공작철’은 전교조 창립 직후인 1989년부터 1년여 간 국군 보안사령부가 전교조 교사를 대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재된 문서철이다. 당시 전교조 탄압을 위해 11개 국가 기관이 동원됐다.〕부터 시작해서, 진화위에서 조사한 문건과 진술을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시골에 있는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그 부모들이 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왜 빨갱이냐 하소연하기도 하고, 부모들 협박해서 교장이 탈퇴 각서 내밀면서 사인을 해라,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면 이거 봐라, 전교조에서 탈퇴한 선생이라고 바로 발표를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나중엔 이분들이 모여서 탈퇴 무효 선언, 줄여서 ‘탈무선’을 하기도 했어요. 정부의 온갖 탄압 속에서 출근 투쟁도 하고, 해직은 피한 많은 선생님들이 감정적으로 지지하면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해직당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후원금도 모아주고, 그냥 가기도 뭐 하니깐 선전 활동도 하고, 참교육 물품 같은 거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제가 88년에 『일어서는 교실』이라는 책을 푸른나무에서 출판했었는데 당시 참교육 관련 책자가 없으니까 이 책이 전국적으로 돌려보는 책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초기에는 별일이다 있었어요.

하명희 : 전교조는 결성부터 지금까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참교육의 함성으로〉가 당시 유행이었죠? 선생님 돌려달라고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직을 만들어 싸웠던 게 기억납니다. 당시에 내걸었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할 텐데요, 교육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호** : 말씀하신 것처럼 〈참교육의 함성으로〉는 그 당시

에도, 지금도 부르고 있는 전교조 노래죠. “굴종의 삶을 떨쳐”, 이렇게 가다가 “반교육의 벽 부수고”. ‘반교육’은 교육이 다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건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선언이었고, 그 반교육의 벽을 부수고 진짜 교육을 하자는 의미로 ‘참교육’이 된 거예요. 참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교육이라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참교육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전의 교육은 반교육이었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거죠. 그걸 원래 의미 그대로 회복을 하자, 그런 의미였고, 참교육 연구소라는 연구 기관을 만들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다, 규정한 거죠. 교육은 상당히 높은 시대적 요구, 시대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회 전체가 폭압 속에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음은 국가와 민족에서 민족을 제대로 받아들이야 한다. 당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이념 등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민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표 체제였으니까, 어떻게든지 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이 인간화 교육인데 자유와 평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다움을 포함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뭉뚱그리면 참교육이지만, 세분화하면 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저희의 지향이었고 선전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게 빨갱이 교육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처음 알았는데, 레닌의 부인이 내세운 교육 개념에 그런 주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빨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실제로 참교육의 의미는 반교육의 상대적 교육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우리 교육을 보면 우리를 반교육으로 끌고 가는 여러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에 대응하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면서 필요할 때는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 내용이어야겠지요.

하명희 : 저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아

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저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낮은 고민부터 직접 뛰어든 저항까지 포함해서 몸으로 선생님과 함께 겪어낸 그 시대가 저희한테 수혈한 여러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2000년에 합법화됐지만, 이후에 법외 노조가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또 2017년에 결성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어서면서 전교조는 꽤 오랫동안 ‘위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실 수 있는 대안이랄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호 : 전교조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운동 제대로 하는 교사 단체 하면 전교조가 보통 명사식으로 쓰일 정도로, 다른 게 없었으니까. 복수 노조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는 새로운 단체가 생겼고, 이미 전교조 조합원 수보다 더 많아져 버렸단 말이예요. 저는 교육 운동 전체로 봤을 때 전교조라는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교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크게 보면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조직 형태가 다르죠. 전교조는 단일 노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부가 있고 과목마다 학습 분과가 있는 단일 노조인데, 교사노조는 연맹체예요. 독립된 조직들을 모아서 연맹이라고,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죠. 많은 조직들을 느슨하게 묶은 연맹체 이진 국제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전교조에 대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합법화 되기 전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직원까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다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 그게 맞거든요.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봐서도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합법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행정 지원 공자는 이미 자기들끼리 노동 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 거기에 해라, 공무원이다, 뭐다 해서… 교사를 위한 교사노동 조합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전교조는 교사 중심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혼란도 있고, 대학 교수도 같이 못하고, 하면서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은 굉장히 강해서 조합이나 조직 형태가 달라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은 노동자로서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연맹체는 그런 점에서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비정규직 교사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자, 예를 들어 급식 조리 노동자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명희 : 선생님 책을 보니까 짧은 시절에 교회 야학에서 만난 학생들이랑 ‘한빛산업’이라는 봉제 하청 공장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도 한 자락 들려주시고, 더불어 앞서 소개하실 때 현재 노동 공제 연합 풀빵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풀빵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이루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지도 같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수호 : 제가, 제대를 하고 올진 재동중학교라고 아주 작은 신설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죠.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2년 반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마침 신일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시골보다 훨씬 더 비교육적인 요소도 많고, 특히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촌지를 받는 등 교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서울에 왔을 때 한참 극성기였어요. 첫 해는 적응하느라고 그냥 보내긴 했는데, 점점 더 배워야겠다 하고 대학원에 진학, 등록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하니 자연스럽게 야학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학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해보겠다고 온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들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일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게 보이잖아요. 사용자들

이, 기업가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가고, 늘 허덕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미싱사, 또 태일이가 했던 재단사도 있고, 시다도 있고 그랬는데, 밤에 교회에서 야학을 마치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다 자기들이 공장을 하면 어떻게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이제 막 30대 초반이라 솔깃하기도 하고,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신림동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중고 미싱 사다가 하청 공장을 했죠. 개들이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 가서 돈 빌리고 하는 게 내 몫이고, 일감 같은 걸 가져와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1년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 제가 노동 운동을 쭉 했는데 결국 전태일한테로 2015년에 오게 됐습니다. 이쪽은 노동 운동하고 또 결이 다르잖아요. 뒤에서 연대하고 돕고 뭔가 따뜻한 정으로 서로 보듬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격려도 하고, 전태일재단에서 운동을 쭉 해오면서 노동의 형태도 자주 바뀌고 정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특히 봉제나 이런 노동이 큰 공장들은 해외로 다 이전했잖아요. 전태일재단이 있는 창신동에는 주인하고 종업원 한두 명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노동자고 누가 사업주인지 이런 것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조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제 조합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풀빵이에요. 공제라는 게 상호 부조잖아요. 옛날에 우리 계하면서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한 사람 힘들 때 도와주고 그랬어요. 태일이도 봉어빵 사다가 시다를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 겨운 빵을 나눠 먹자는 조합이지요.

하명희 :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전태일기념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전태일과 같은 나이시죠? 시간이 지나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중 “이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수호 : 2015년에 제가 전태일재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재단은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았어요.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그때 마침 박원순 시장이 있었어

요. 내가 전태일 운동과 전태일재단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시점에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는데 박원순 시장도 찾아 찾아뵈곤 거죠. 전태일재단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했고, 염원이다시피 한 게 기념관을 만들자,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 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구체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태일기념관이 아직 없냐고 묻더라고요.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고 그 자리에서 혁신 담당 국장을 불러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게 박원순 시장은 그전에도 전태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관계, 운동에 참여한 거,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태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태일기념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에요.

|
하명희 : 내 인생에서 ‘전태일’이란 이름이 강렬하게 다가왔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수호 : 처음 만났을 때죠. 내가 젊은 교사 시절 방황할 때 『전태일 평전』을 만나서 밤새도록, 정말 훌쩍거리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던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하명희 : 『전태일 평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이수호 : 역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평화시장 시다들에게로 나는 돌아가리라, 결심하는 부분이에요. 내 삶에도 이 좌표가 새겨진 게 아닌가 싶어요. 좌절하고 추스르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

하명희 : 전태일노동상을 받은 뒤 우리 조직 혹은 내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수호 : 그 당시의 시대가 너무 극박하고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교조는 단체로 노동상을 받은 거지만 노

행보를 걸으며 개인으로 전태일노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전교조 조합원이면서 더 나아가 지역의 노동 운동가로, 교육감으로 살아오신 노옥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생겨난 것,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명희 : 2022년 현재 전태일 정신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되어야 할까요?

이수호 : 전태일이라면 불꽃,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시대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밥을 나눠 주면서 함께하려고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라든지, 태일이 가 모범업체 만들어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 정신, 마음의 연대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명희 : 노동 운동을 하길 잘했다고 느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이수호 : 글썄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후배들이 그나마 좀 편찮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념에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데 불려 나와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금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하명희 : 노동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은 언제인가요?

이수호 : 저는 어릴 때부터 울보였고, 말을 잘 못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살다보니 울음도 참아야 하고 말도 많이 해야 하는 삶을 살았네요. 울었던 날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하명희 : 선생님 아드님도 역사 교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인 거잖아요. 노동 운동의 길에 들어설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수호 : 저는 제 삶을, 제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이 있고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사는 삶을 사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
하명희 : 내 인생의 물건(오브제)을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사연이 담긴 물건입니까?

이수호 : 오래된 순서로 하자면 1993년 전교조가 복직 투쟁을 할 때, 퇴직당하고 5년 만에 투쟁을 시작했어요. 저는 감옥에 있다가 그해 3월 9일인가 출소하면서 ‘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복직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해직 교사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그때 입었던 옷입니다. |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제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교조 위원장을 했는데, 퇴직된 선생님들이 복직을 하니까 노조에는 상근하는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교조 안에 따로 노동 조합을 만들었어요. 전교조가 정부로 보면 노동자지만, 이 상근자들한테는 사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자 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 ‘전교조 상근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만든 투쟁 조기에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내에 상근 직원 노동조합이 생기는 시대를 거쳐 온 거죠. | 이걸 제가 2004년 2005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할 때 제가 머리에 댔던 빨간 머리띠예요. 이걸 매고 단결 투쟁 외치고 결의도 다지고, 이 안쪽에는 당시의 핵심 요구나 구호가 있는데 비정규 철폐네요. 우리가 어디 갈 때는 항상 이걸 매고 그랬죠. 금속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출신이 교육 노동자, 교사니까. 잘 맞을까 어떨까 우려도 했는데, 해보니깐 아주 재밌더라고요. 혹시 있는가 뒤져보라 그랬더니 마침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걸 갖고 왔고 기념관에 기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하명희 : 앞으로 노동 운동계가 꼭 해주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

지도 들려주세요.

이수호 : 모든 게 그렇고 특히 운동이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말고 반발씩 딱 그만큼이라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B-1-2-11]

전태일노동상 3회 전노협 [단병호]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초대 위원장. ●

🎧-[B-1-2-11]

전태일문학상 28회 [조도영]

2000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다. 2020년 제28회 전태일문학상 생활글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현재 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다. ●

🎧-[B-1-2-1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조도영]

나는 제28회 전태일 문학상 생활글 부문을 수상했었다. 그런데, 시상식이 열릴 당시에는 군사훈련소에서 머리를 밀린 채 훈련을 받고 있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책에 실린 수상 소감 또한 그야말로 ‘일필휘지’로 쓴 것인데, 훈련소에 있을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쓴 교관이 종이와 펜을 주며 “30분 안에 써라.”라고 했고, 나는 부랴부랴 한 페이지에 약간못 미치는 수상 소감을 썼던 것이다. 수상자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도 부대에 와서야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 지금 나는 학교에 복학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전태일 재단을 방문했었다. 시상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이 죄송스러워, 얼굴이라도 비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과 달

🎧-[B-1-2-11]

리 전태일 재단은 동대문 쪽에 위치해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동대문 역에서 내려, 약간의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그 일대가 시장을 이루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편의시설들이 많다는 점이다. 환전소를 시작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마트들이 줄지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 그렇게 복잡복잡한 거리를 지나 전태일 재단을 방문한 후, 나는 주위 동네 탐방을 떠났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촌놈’인 나로서는, 서울의 모든 모습에 궁금했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던 나의 발걸음은 어느새 산성 앞에 도착해있었다. 그러자 나는 이곳이 ‘동대문역’ 근처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웬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여 산성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을 반쯤 오르자, 산성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조그마한 굴을 발견했다. 아마 옛날에는 출입문으로 쓰였던 모양이었다. 입구를 따라 산성을 통과하니, 높은 빌딩과 학교, 병원들로 가득 찬 서울의 중심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 아, 나는 지금 한성에 들어온 것이구나. |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입구 너머에 있었던 동대문의 풍경은 굴 안의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곳에도 사람들이 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소리치고, 이리저리 엉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나는 전태일 재단이 그 이름에 걸맞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성 밖의 사람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태일이의 얼굴. |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라고 읊조렸다. 하지만 나는 그날 동대문이라는 고궁을 나오며 느꼈다. “우리는 얼마나 거대한가,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가, 우리는 얼마나 희망찬가.” |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태일이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 힘이, 나를 포함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

🎧-[T-4-2]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들의 만남 ②전태일노동상 3회 [단병호] + 전태일문학상 28회 생활글 [조도영] | 2022년 12월 6일 | 전태일기념관

담대한 저항과 연대로 노동 운동을 이어가야



2022년 12월 6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난 조도영(왼쪽)과 단병호(오른쪽).

서울의 겨울은 춥다. 경상도에서 막 올라온 시골 청년에게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은 추위다. 그럼에도 나는 밖으로 나가 전태일 기념관으로 향했다. ‘기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묘하다고? 그렇다. 전태일기념관을 들어서자마자, 빵모자를 쓴 장신의 어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초대 위원장을 지낸 단병호 위원장이었다.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노동상/문학상 30주년을 기념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990년 전노협으로 제3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한 단병호 위원장과 2020년 생활글 부문으로 제28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필자의 인터뷰.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다. |
이러할 부담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단병호 위원장의 인생 경력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기 때문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전노협 초대 위원장으로 4년 간 재임하였고, 그 후 금속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쳤다.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금은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노동자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틈틈이 ‘백기완(白基琬, 1932~2021) 아카이브’ 건립을 위해 노동자들을 독려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운동을 위해 태어난 사람 보이는 단병호 위원장의 입에서 “학생 단병호는 빵점이었다. 매일 친구들이랑 놀거나 했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느덧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조도영 : 고등학교 중퇴 후 축산과 농업을 하시다가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기로 노동 운동에 투신하게 되셨나요?

단병호 : 82년에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동아 건설에 취직

**(B-1-2-11-3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을 선언하는 단병호 위원장,
1990.01.22.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90년 1월 22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수성관에서 열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창립 대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전노협 출범을 공식 선언한 단병호 위원장은 그 전 해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전노협 창립 대회 후, 정확히 5개월 뒤인 1990년 6월 22일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는다.

**(B-1-2-11-3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깃발, 1990년대. (전태일 재단)



**(B-1-2-11-38)**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992.03.27. (전태일 재단)



ILO 기준 조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 대책 위원회 공동 의장 단병호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회장 이원건 등은 1992년 3월 27일 과천 서울호프호텔 4층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T-4-2)**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수상자들의 만남 ②전태일노동상3회(단병호) + 전태일문학상28회 생활글(조도영) | 2022년 12월 6일 | 전태일기념관

하여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죠. 그 체험 과정 속에서 ‘한 인간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이 자신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이요. 더욱이, 당시 전두환 정부는 마치 군대 병영과 같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겁하게 살 수 없었고, 나의 권리를 내가 찾겠다는 마음으로 노동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살 수 없었다.”라는 단병호 위원장의 말은 비단 그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80년대 중후반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각성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단병호 위원장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조도영 : 최근 젊은 세대들은〈1987〉〈2017〉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80년대 중후반을 민주화 운동의 시대로 기억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87년은 어떤 해셨나요?

단병호 : 80년대의 이후도 말할 수 없이 참혹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는 특히나 참혹한 시기였어요. 우리 사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상당히 엄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노동 현장의 경우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개선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내면적 분노가 점점 쌓이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6.29 선언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도입이었지 노동 환경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 민주화에 안주하며 사회, 노동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노동과 산업에서의 민주화가 없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화도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1987년 7, 8, 9월에 진행된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3개월 동안 전국에서 3,500여 개의 투쟁이 있었고, 노동 조합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투쟁이었으며,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 부분에서 단호했다. 즉, 노동자 대투쟁이란 단순히 개인 사업장에서의 이익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로의 형식적인 변화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대투쟁이 사회적이며 산업적인 부분까지 민주화를 밀고 나가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구성원, 특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무엇을 위해 노동 운동에 뛰어 들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조도영 : 위원장님께서 전노협을 대표하여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한 문제의식에 관해 전노협이 어떤 부분에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병호 : 전노협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 조합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87년 이전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노동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에는 몇 차례의 노동 운동이 있었지만, 모두 탄압에 가로막히거나 중단되기 일쑤였어요. 70년대에 들어와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고, 그 이후 극소수의 노동 조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노협은 단순한 노동 조합의 집합이 아니라, 한국 노동 운동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전노협이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 조합들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서 확

인할 수 있어요. 노동 조합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염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전노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노동 운동의 이러한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전노협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노협이 만들어졌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노협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국가 폭력을 동원, 탄압하였다. “탄압받는 민주 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전노협의 최대 목표였다는 그의 말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절실한 문제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로 전노협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KBS 노조에 관해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을 때, 이들이 전노협 조직이 아니었음에도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직 없이는 노동 운동도 없다.”라는 전노협의 문제 의식 덕분이었다. 단병호 위원장은 바로 이 지점이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전노협의 가장 큰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조도영 : 그러나, 최근 SPC 사건〔2022년 SPC 그룹 계열의 한 제빵 공장에 서 근무하던 직원이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으로 노동 안전에 대한 사측의 무관심을 보여주며 공분을 샀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에는 난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대투쟁을 겪은 선배로서, 혹시 후배 노동 운동가들을 위해 조언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병호 : 경쟁에서 개인이 승리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사회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고 생각해요.

조도영 : 이번 제30회 전태일 노동상은 노조나 개인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노동자의 분화, 조직의 분화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노동 운동이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나 방향성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단병호 : 전태일 정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그 핵심은 ‘담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전태일 열사만큼 당시의 사회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없었어요.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서려면 그러한 사회가 용해되어 없어져야 한다는 전태일의 생각은, 그가 원했던 것이 단순한 근로기준법 개정 같은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태일 정신의 핵심이 담대한 저항 정신에 있다고 봐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이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 환경, 생활 조건에서의 차이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앞서서 이러한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특히 87세력이 아직까지 주요 세력으로 남아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정신의 핵심이 ‘담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한 단병호 위원장의 말은 ‘연대’에 대한 그의 발언에서도 강조되었다. “연대는 단순히 노동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대가 된다.”라는 발언이 그러하다. 자다가도 타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같이 몸으로 싸웠던 전노협의 연대 정신이 현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이와 같은 새로운 연대 정신을 보여주며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단병호 위원장의 평가는 현 시대의 노동 운동가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조도영 : 전태일노동상/문학상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병호 : 현대 한국 노동 운동의 시발점을 추적해 본다면, 전태일 열사의 희생으로부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태일노동상/문학상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고생을 치하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의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태일 노동상/문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도영 :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인생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순간은 언제였던가요?

단병호 : 저는 『전태일 평전』을 총 3번 읽었어요. 처음 노동 조합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로 기준법」 책을 구하기 위해 서점에 갔었어요. 그런데 책방 주인이 책을 한 권 더 없어 주었는데, 『전태일 평전』이었어요. 그때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그 책을 봐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던 도중 우연히 그 책을 펼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느꼈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두 번째로 『전태일 평전』을 접한 건 감옥에 있을 때였고, 마지막은 노동 운동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어요.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이 필

요할 때, 항상 『전태일 평전』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도영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단병호 : 전태일이 숨을 거두기 직전, “어머니, 배고파요.”라고 말한 장면이 깊게 다가왔죠. 그리고 전태일이 마지막 결심을 하고 청계천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구절인데, 저는 이때 전태일은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다는 결단을 마쳤다고 생각해요. 그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조도영 :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하신다면 무엇을 소개하시겠어요?

단병호 : 뭐가 없더라고요. (웃음) 매일 쫓겨 다니고 가택 수색을 당하다보니,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발견한 것이 전노협 때 발행했던 ‘전노협 신문’과 ‘전노협 백서’였고, ‘전노협 가요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 뽑아 본다면, ‘전노협 반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노협이 해산할 때 상근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물건인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두 사람뿐이에요. 원래는 심상정 의원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더라고요. (웃음) 아무튼 이 반지는 제가 40년 동안 쪽 끼고 다녔던 것 같네요.

1995년에 해산한 전노협 반지를 2022년에 마주하자, 감회가 남달랐다. 나보다 오래 산 반지라니. “평생 끼고 있을 것 같다.”라는 단병호 위원장의 말에서 전노협이 그의 삶에 가지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뷰의 마지막에서도 “담대한 저항과 연대”를 강조하는 그의 말에서 한 시대를 거쳐 온 어른의 껍이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B-1-2-12]

전태일노동상 23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 지부 [김진규]

2015년,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현 딜라이브지부), 당시 지부장. ●

🎧-[B-1-2-12]

전태일문학상 26회 [우다야 라이]

2018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B-1-2-12]

전태일문학상 21회 르포 [신정임]

1977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라디오방송 작가를 꿈꾸며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지만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느라 꿈을 잊었다.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지부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월간『노동세상』 창간 때부터 기자로 일했다. 잡지 폐간 뒤 「아줌마 백화점에 가다」로 2013년 제21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뒤 르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같이 쓴 작품으로 『달빛 노동 찾기』, 『숨은 노동 찾기』, 『사람의 얼굴』, 『나는 시민 기자다』 등이 있다.

🎧-[B-1-2-12]

다채로운 이야기를 꺼내 전하는 사람 [신정임]

전태일 문학상을 탄 2013년은 방황하던 시기였다. 창간 때부터 몸담았던 잡지 월간『노동세상』의 발행인이 2011년 1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선장을 잃은『노동세상』도 6개월 뒤 문을 닫았다. 실업자로 세상에 내몰린 나는 막막하기만 했다. | 그때『노동세상』마지막호 편집 후기에 썼던 “삶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그분들에게서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란 글월이 떠올랐다. 세상의 빛을 바라보지만 말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백화점과 생활용품점에서 일했고, 그 기억 중 일부를 꺼내 남긴 글이 전태일문학상까지 타게 돼 감사했다. 쓰고 싶은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상 소감 중 일부를 다시 꺼낸다. | “신정임, 내 이름이 나의 존스러움을 대변하는 것 같아 싫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일하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도 ~자, ~숙, ~순 등 전형적인 옛날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요즘 느끼기 힘든 정을 양껏 누렸다. 내 이름에 들어가는 정(情)자다. | 그들은 말은 바 임무를 120% 해냈다. 역시 내 이름의 임(任)자다. 정을 나누고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이름이 좋아졌다. 그들이 나에게 일깨워준 소중한 진실을 글로 담고 싶었다. 바로 세상은 우리 같은 존스러움의 전형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다.” | ‘르포 작가’라는 직업을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 사람인지 말하기 힘들었는데 야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달빛 노동 찾기』를 쓰며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 됐다. 1만 명이 넘게 일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삼시 세끼를 책임지는 식당 노동자들과 수다 같은 인터뷰를 마치고 그들의 일터인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다. 흰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조리대 앞에 서니 방금 전 휴게실에서 느꼈던 다채로움이 사라졌다. 그때 깨달았다. 르포 작가는 똑같은 작업복 안에 감춰진 저마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꺼내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을 삭막하지만은 않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여전히 나는 참 부족한 이야기꾼이지만 앞으로도 내가 만난 이들의 알록달록함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다. ●

🎧-[T-4-3]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들의 만남 ③전태일노동상 23회 [김진규], 26회 [우다야 라이] + 전태일문학상 21회 르포 [신정임] | 2022년 12월 7일 | 딜라이브지부 회의실

지역과 국경의 벽을 넘어 함께 사는 길을 찾아



2022년 12월 7일 딜라이브지부 회의실에서 만난 신정임(왼쪽)과 우다야 라이(가운데), 김진규(오른쪽).

전태일노동상 제23회 수상자인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 현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씨앤앰 지부와 제26회 수상자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함께 인터뷰한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난감했다. 두 노동조합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말했듯이 희망연대노조나 이주노조를 비롯해 모든 노동 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노동 조합은 꽤 인연이 깊었다. 우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두 노동 조합이 함께 동지를 틀고 있었다. 또, 희망연대노조가 사회연대 사업 중 국제 연대 활동으로 네팔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바로 네팔 출신이다. 무엇보다도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가 전태일노동상을 탄 2015

년은 이주노조에게도 잊지 못할 해이다. 이주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로 노조 인정을 받아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받은 해이기 때문이다. 파면 팔수록 연결된 끈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2015년 당시 씨앤앰지부를 이끌었던 김진규 전 씨앤앰지부장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주노조를 이끌고 있는 우다야 라이 위원장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장소는 씨앤앰지부에서 이제 딜라이브지부로 바뀐 노동조합 회의실이었다.

신정임 : 보통 조직화할 주력 산업으로 노동 조합 이름을 짓는데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이름부터가 독특합니다. 2010년 처음 노조 이름을 지을 때의 문제 의식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김진규 : 사실 제가 고민한 건 아닌데요. 희망연대노조 1호 사업장이 씨앤앰지부고 저는 씨앤앰지부 조합원으로 같이

한 경우여서...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생소하긴 했지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조합 설립 신고할 때 담당하는 근로 감독관이 노조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봤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희보다는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죠.

신정임 : 씨애프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천으로 옮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규 : 정규직지부가 먼저 설립됐는데요. (노조 설립 후 2010년 11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씨애프지부는 협력 업체 노동자 조직화를 도와 2013년 2월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건설에 힘을 보탰다.) 비정규직도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함께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부분 같이 일했던 분들이 외주화된 경우여서 특히 그랬습니다. 받았던 교육이 그런 내용이기도 했고요.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하고 같이 누리자.”

신정임 : 우다야라이 위원장님은 1998년에 산업 연수생으로 처음 한국에 오셨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언제 노동 조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나요?

우다야 라이 : 한국이 사업장에서나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를 이 정도로 차별하는지 몰랐어요. 임금도 적게 주면서, 한국 노동자가 퇴근해도 우리는 일해야 했어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 일도 우리한테 시키고요.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숙소도 없어서 공장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노동자인데, 한국에 오자마자 지나치게 차별한다고 느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정임 : 폭언이나 폭행도 많이 겪으셨나요?

우다야 라이 : 이주 노동자한테 폭언, 폭행은 기본입니다. 하도 욕을 들으니까 나중엔 아무리 심한 욕으로 불러도 팬 참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길거리 같은 데 가면 처음에는 존댓말을 해요. 그러다가 말투가 외국인이니까 바로 반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매일 나한테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은 식당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 네팔 말로 통화했어요. 그때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존댓말 한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있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신정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창립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 내는 노동자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내내 울분을 토했다.

신정임 : 2014년에 희망연대노조의 정규직인 씨애프지부와 계약직인 케이블비정규직지부가 함께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연대가 가능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진규 : 그때도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동지들이었다, 같이 투쟁한다는 것 빼고는 다른 생각이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것도 자본이 만들었지, 우리는 그렇게 나눈 적이 없다, 같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보는 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싸웠던 것 같아요.

신정임 : 투쟁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시 지부장으로 싸움을 이끌면서 느낀 어려움도 컸을 텐데요.

김진규 : 장시간 투쟁을 하다 보니 다들 힘이 빠지죠. 일부는 생계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동지들이 많이 안 보일 때가 힘들었고, 특히 타결 직전이 가

장 어려웠습니다. | 개인으로서는 결혼 초기였는데 투쟁하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걸 아내가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다른 동지들이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뽕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서로 열굴 보면서 힘을 얻곤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신정임 : 투쟁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에게서 왜 우리가 비정규직과 같이 싸워야 하느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진규 : 그런 우려를 돌려서 듣기는 했는데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모인 노동조합 같았어요. 그런 말을 할 법한 시기가 됐는데도 누구 하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까만 생각했지요. 극한 투쟁을 하긴 했지만 그런 논의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정임 : 지금도 김진규 전 지부장의 부인은 “둘째 낳을 때 남편 머리채를 못 잡은 게 아쉽다.”는 말을 종종 한다고 한다. 당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했다. 김진규 전 지부장은 둘째가 태어난 날도 전광판 밑에서 아침 집회를 하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지만 이미 둘째는 세상에 나온 뒤였다. | 가족의 희생이 따르긴 했지만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7개월여 동안 똘똘 뭉쳐 싸운 덕분에 2014년 12월 31일, 투쟁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었다. 노사는 2015년 동안 3년에 걸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모두 정규직이 된 후 “다 정규직이니 노동조합도 당연히 하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2020년경 딜라이브지부로 통합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를 만들 때 노조 준비 모임 이름이 ‘함께 살자’였는데 진정 함께 사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셈이다.

신정임 : 2015년 6월 25일,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그날 기억하십니까?
우다야 라이 : 네, 기억합니다. 대법원에 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 동안 등록되지 않은 불법노조로 있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못하게 하는 거였죠. 우리도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왜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고, 차별하느냐고 오래 투쟁했고, 소송 끝에 그날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등록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게 돼 자신감도 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신정임 : 그런데 대법원 판결 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바로 내주지 않았다고요.

우다야 라이 : 우리도 설립 필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주 노동자는 제도를 비판(현행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하면 안 된다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7일 동안 농성을 하고 기자회견도 해서 결국 설립 필증을 받았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신정임 : 노동조합 활동이 다 어렵지만 이주노조는 유독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노조 활동보다 더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다야 라이 :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있어서 언어가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인 활동가들과 친해지기 힘들기도 하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은 길어야 한국에 4년 10개월 밖에 있을 수 없고, 그 기간이 끝나면 조합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야 하죠. 지역을 오가며 사업장 변경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습니다. 이주노조 간부라고 단속, 추방되고, 쉽게 탄압할 수도 있어요. 조합비로는 상근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 개별 후원과 후원 주점 등으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임 : 어려움 속에서도 우다야라이 지부장은 20년 이상 끈질기게 이주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신정임 : 희망연대노조는 ‘지역사회운동노동조합’을 지향

📖 (B-1-2-12-39)

희망연대노동조합 대구지역모임 사회공헌 나눔연대, 2022.06.01. (희망연대본부)



📖 (B-1-2-12-40)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엔엠지부가 지역장애인센터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받은 감사장, 2015.12.22. (희망연대노조 씨엔엠지부)



📖 (B-1-2-12-41)

제26회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우다야 라이), 2018.11.13. (이주노동희망센터)



📖 (T-4-3)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수상자들의 만남 ③ 전태일노동상 23회 (김진규), 26회 (우다야 라이) + 전태일문학상 21회 트로 (신정임) | 2022년 12월 7일 | 딜라이브지부 회의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역 사회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온 구상입니까?

김진규 : 희망연대노조는 위치나 형태가 특이했는데요. 산별로 들어가지 않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직가업노조로 시작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장이 어느 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서울 전역에 구별로, 수도권도 지역마다 흩어져 있어서 지역과 더 밀접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회연대 기금 등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딜라이브지부뿐 아니라 희망연대노조에 속한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같은 노동조합에서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들 역시 전국 사업장이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희망연대노조가 공공운수노조 산별로 들어가 희망연대본부가 되면서, 그 장점을 배우고 확산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신정임 : 사회연대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진규 : 임단협(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사회연대 기금을 출연하게끔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삶을 영위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니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해야 한다”, “회사도 하고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선도해서 지역 사업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면서 임단협 투쟁의 1순위로 사회연대 기금 따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분 등 우리 요구를 하겠다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사회연대 기금 집행은 노조가 하지 않고 사단법인인 희망씨와 지역 단체들이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임 : 노동조합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까지 만든 것도 예상치 않은데요.

김진규 : 임단협 때 극한대립이 있으면 조합원이나 간부들이 약간 괴물스러워진다고 할까?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사회 공헌 활동이나 연대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회연대 사업을 임단협 투쟁에 영향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분리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희망씨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는 잘 분리했다, 사회연대 활동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연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상을 보여준 것도 전태일노동상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전태일노동상 선정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씨엔엠지부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기 위해 생활 문화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동조합 운동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노동’과 ‘지역’이 만나 자본에 종속된 삶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과 생활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생활 소비 문화 공간인 지역에서 ‘낮은 데로 임하는 지향성’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함께 살자!’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여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였기에 전태일노동상을 수여한다.”

신정임 : 이주노조는 합법화되고 3년 후인 2018년에 전태일노동상을 탔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우다야 라이 : 우리 활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상담하고 교육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지요. 합법화 이후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제조업 분야도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지역 순회 집회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주노조는 2018년에 ‘투투버스(투쟁투어버스)’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찾아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용센터를 찾아다니며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 4월 29일 이주노동자 메이테이에 투투버스 선포식을 연 뒤, 한 달간의 의정부·

여주·성남·화성·충주·논산·대전·세종 지역을 돌았다. 첫 방문지인 여주에서는 한 버섯 농장을 찾아 “노동자는 물건이 아니다. 노동 시간 속이지 마라!”고 외쳤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 하우스와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을 숙소로 쓰면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투쟁으로 임금이 수개월 체불됐는데도 사업장 변경을 못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주노조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 끝에 컨테이너나 비닐 하우스 같은 불법 가설물은 이주 노동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지침도 발표했다.

신정임 : 현재 한국의 이주 노동 정책을 담고 있는 고용허가제 중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다야라이 :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임에도 일해야 하고, 폭언, 폭행도 참아야 해요. 사업장 사유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모든 이주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임 : 희망연대노조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가 되면서 산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김진규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에서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급속노조에서도 연락이 와 같이 의논하고 있고, 기아차 지부 소하리공장파도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노동조합들도 아이들,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들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희망연대노조와 희망씨가 해왔던 사례들이 있어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함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임 : 김진규 지부장님은 씨앤엠지부장에 이어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희망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하다가 희망씨 이사장까지 하게 되셨나요?

김진규 : 노동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사회 연대 활동이었습니다. 노조 활동 초창기에 지금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인 당시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과 강동 지역에서 집수리하는 단체에서 처음으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사회 연대 활동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보람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2012년부터 노동조합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년째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해 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정임 : 희망씨 이사장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진규 : 희망씨의 주요 사업 방향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사업인데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팔에 학교를 짓고, 그곳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곳에는 학교를 짓고, 한 곳에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안 줘서, 학교 대신 채식장에 돌을 깨러 가는 부모들을 따라 다녔던 아이들이 우리가 저금통으로 모금한 돈으로 점심을 주자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더라고요. 후원자들이 네팔에 가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갔다 온 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신정임 : 이제부터는 공통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강하게 다가온 때가 있습니까?

김진규 : 노조 활동을 하면서 근로 기준법을 자주 보는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사측은 사측대로, 우리는 노동자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노동자 편에서 해석한다고 느낄 때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구호가 떠오릅니다.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 서는 어려운 여공들을 도와주고 집까지 걸어갔다는 전태

일 동지의 퇴근길 뒷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쓸쓸하고 힘들었을 그 뒷모습이요.

신정임 :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우다야라이 : 이주노조가 그동안 했던 활동을 인정해주고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활동하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다, 계속 열심히 하자.”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정임 : 두 분 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해왔는데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김진규 :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주시는 것도 보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자식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잘 살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큼니다. 조합원들이 “아빠가 이렇게 잘 살았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다, 인생에서 노조 활동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하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우다야라이 : 우리가 노조를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때,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 함께해야 한다고 이주 노동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걸 볼 때 활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임 : 마지막으로 뒤를 이어 노동 운동에 들어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우다야라이 : 노동조합 활동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무관심하면 지금 있는 것도 후퇴하고 사업주, 정부는 계속 탄압하려고 하니까요.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 지금보다 더 잘하라는 말이 힘들 수도 있어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비

정규직 동지들이 어디든 있을 텐데, 노조하기 힘든 구조에 있는 분들이 노조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분들만큼의 용기가 필요할 텐데 힘을 조금 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진규 : 노동조합에서 일상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조에서도 연대 활동 관련해서 문의가 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힘들 거라고 지레짐작하거든요. 하고 나면 좋지만 계속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요. 희망연대노조의 가치는 그걸 계속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정임 : ‘꾸준히’ 하면 우다야라이 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때 노조 활동을 시작해 벌써 20년 넘게 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바람 이외에 다른 바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한국 노동 운동에 대한 기대를 들려주었다.

우다야라이 :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단결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공감할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힘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얻고 힘을 키우는 것 역시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걸 두 노동조합이 함께 보여주고 있다. ●

🎧-[B-1-2-13]

전태일노동상 25회 [유지현]

2017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당시 위원장(현 지도위원). ●

🎧-[B-1-2-13]

전태일문학상 17회 소설 [김학찬]

1983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경대학교 등에 강사로 근무했다. 2008년 『화목야학』으로 제17회 전태일문학상 소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제6회 창비장편소설상 『풀빵이 어때서로?』로 등단했다. 장편 소설 『상큼하진 않지만, 『굿 이브닝 펙킨』, 소설집 『사소한 취향』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에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B-1-2-13]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 답하자면, 등단작 『풀빵이 어때서?』와 전태일의 ‘풀빵정신’은 의식하지 않은 우연이다. 우연이었지만, 원제는 『풀full빵』이었고, 표지는 봉어빵 투성이었고, 출간될 때 제목을 낮선 ‘풀빵’ 대신 친숙한 ‘봉어빵’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뭔가 홀……린 듯이 반드시 풀빵이어야 한다고 우겼다. | 가끔, 『봉어빵이 어때서?』였다면, 찬바람 불 때마다 1쇄씩 팔리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다. 아, 『풀빵이 어때서?』는 “봉어빵 명인의 아들이 타꼬야끼 장수로 자립하는 이야기”로, “젊은 세대가 당면한 고민을 따뜻하게 성찰하는 진중하고 균형잡힌 문제의식 또한 갖”춘 소설이다. 그러니까, 기실 『풀빵이 어때서?』와 ‘풀빵정신’은 무관하지 않은 것. 소설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럼, 『풀빵이 어때서?』를 읽어보라. ‘풀빵정신’을 재미있게 소설화한 것이니까. | 그런데 어찌다 나는 풀빵에게 홀린 걸까. | 이게 다 전태일 때문이다. | 2008년 가을, 전태일문학상 시상식은 짧았다. 나는 누군가와 인사도 나누지 않고 황급히 떠나왔다. 당선은 아니었고, 우수작이었고, 상을 받는 사람도 여럿이고, (지금보다는) 어렸고, 낯설었고, 낯도 가렸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학찬 씨의 『화목야학』의 주인공은 대학생이고 작가 또한 그 연배가 아닐까 싶다. […]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니, 받아주시기를.” 예심위원일까, 본심위원 중 한 명이었을까,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 그날 수상집을 들고 돌아가는 내 마음에 박힌 것은 “진심 어린 격려”였다. 근본적으로 소심하고, 웅졸하며,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그릇이 크다는 말은 충격이었다. 부모님도 그런 말은 해준 적이 없었다. | 어쩔 수 없군, 그릇이 큰 소설가가 되는 수밖에. 격려를 받아달라는 말도 마음에 들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란 이런 것이군. 아, 누군가에게 암시를 할 때는 이런 말을 건네야 하는구나. 상(賞)의 자기실현적 예언을 믿는 수밖에. 풀빵정신은 사라진 게 아니다. 다른 모습으로, 팔의 검붉은 알알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 흐르고 있을 뿐. 그러니까, 『풀빵이 어때서?』처럼. ●

🎧-[T-4-4]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들의 만남 ④전태일노동상25회 [유지현] + 전태일문학상17회소설 [김학찬] | 2022년 12월 7일 | 전태일기념관

의료 현장에서 노동 운동을 외치다



2022년 12월 7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난 김학찬(왼쪽)과 유지현(오른쪽).

2022년 12월 7일 오후 3시, 유지현 지도위원을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났다. 1990년 고대의료원 구로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후,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장(1996)을 거쳐 3·4대 서울지역본부장, 그리고 국내 최초의 산별노조에서 두 번이나 보건의료노조위원을 지냈다는 분. 무상 의료 운동,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 운동 등 치열한 사안마다 자리를 함께했던 활동가, 그리고 또……. 인터뷰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그의 ‘내력’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다.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인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하지? |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유지현 지도위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야기에 약한 것은 직업병이라고 해두자.) 촬영 감독님이 테이프를 갈아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끝이 나지 않았을

영원한 이야기, 유지현 지도위원의 내력, 아니 ‘내공’을 한번 따라가 보자.

|
김학찬 : 선생님께서 호칭하면 될까요? 어떤 호칭이 좋을 까요.

유지현 : 글썄요, 유지현 위원장이 너무 익숙해서요. 전(前) 위원장, 유지현 전 위원장. 지금 공식 직함은 지도위원인데요, 그럼 지도위원으로 할까요.”

김학찬 : 지도위원님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유지현 : 이름은 유지현이고요. 94년도부터 노동조합 전임을 우연히 시작하게 되어서 고대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지역본부장, 사무처장, 보건의료 6, 7대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2022년 6월 30일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백수입니다(웃음).

김학찬 : 퇴직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퇴직하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유지현 : 퇴직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몇 달은 놀아야지 했는데,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해요(웃음).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김학찬 : 위원장을 역임했던 2017년 보건의료노조가 전태일노동상을 탔습니다. 수상 연락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나, 노동상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유지현 : 제가 아파서 왔나(웃음). 사실 이 상을 탔던 11월 13일은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내고 장루 복원 수술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상하러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외출증 끊고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열심히 해왔던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계속 더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연임의 마지막 해였는데, 건강에 이상을 느껴서 미루던 검진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상을 한 거라서 더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런 조직적인 결정과 집행과 투쟁까지 같이 해준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 중간 허리인 지역본부, 중앙에서 함께 했던 우리 간부님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 역시 한편으로는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채찍으로 좀 달게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했고, 아편면서 받은 상이라서 더 새롭고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김학찬 : 말씀하신 것처럼 상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산별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별노조 전환의 의의라거나, 또 최초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었던 일들, 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유지현 : 노동자의 힘은 단결력, 교섭력, 투쟁력에서 나오잖아요. 산별노조는 이런 점에서 기업별 노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커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고

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랑, 재정이 집중되잖아요. 그 힘으로 노조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 모범적인 단체 협약을 만들고 각 현장에서 그 단체 협약을 상향시키는 일, 조직력과 재정이 취약한 작은 노동조합들 이런 데를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풀 수 없는 법 제도적인 문제들을 산별노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 예전에는 병원 노조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노조 탈퇴 공작도 심했어요. 2002년 경희의원지부가 직권 중재라는 악법에 맞서서 불법으로 190일 파업을 하고 승리했던 것, 이게 전태일노동상을 탔죠. 그다음에 2006년 부천세종병원이 전태일노동상을 탔는데, 그때는 노조 탄압이 정말 극심해서 50명도 안 되는 조합원만 남았어요. 용역 깡패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힘으로 같이 지켰어요. 저희가 기업별 노조였다면 이런 연대와 집중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온갖 구실을 붙여서 이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는 일도 비밀비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동조합을 없애려면 그 집단만 보는 게 아니라 병원의 노조 전체를 보라, 보건의료노조하고 싸울 각오가 되면 손을 대라! 지금은 안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 또 하나, 산별노조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꾸준히 정비했고요, 산별 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도 했어요. 2017년 전태일노동상을 탔던 해에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의도 만들어냈거든요. 기업별 노조는 하기 힘들거나 부족한 것들을 산별노조라서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어요. | 또, 제도적인 차원의 일에서는, 의료 제도에 대한 개입도 산별노조라서 할 수 있었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보건 의료 제도를 바꾸는 문제, 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병원비를 낮추는 문

제,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의 추진을 막는 문제 등등. 산별노조니까 가능한 것들이 많았죠. 국민들이 5대 중증 질환을 앓았을 때 병원비의 5%만 내고 보험 적용을 받는다거나, “암부터 무상 의료”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거나. 지금은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운동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냈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김학찬 :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실제로 ‘타협’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서로 양보를 해야 하니까요. ‘중타협’ 또는 ‘대타협’이라고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타협을 이룬 방법이 어려움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지현 : 꾸준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제기했어요. 임금 문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비정규직을 쓰면서 자꾸 사람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인식이었어요. 같은 동료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르고, 같이 일하다가 비정규직이니까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비정규직법 만들어질 때 저희가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했죠. | 결국 비정규직법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제 기업별 교섭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7년 임금 교섭 때 아예 일정 부분을,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어요. 각자 계산을 해봤죠. 재원은 얼마인지, 몇 명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지. 그런데 다른 반발은 없었어요. 뉴스에서 아름다운 양보라고 했죠.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자랑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대 정신, 보건의료가 갖는 병원이란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결과였죠. | 2017년에는 노사정 TF에서 대타협을 했는데, 저희 내부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다른 데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노사정 TF라고 하니깐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전개되었어요. 특별히 무슨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다 동의했어요. 일하는 사람의 노동 강도를 줄여야 당연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김학찬 : 혹시 대타협의 비법, 비결이 있었을까요?

유지현 : 저희는 산별노조니까요. 일 년에 하루 조합원 교육을 해요(단체 협약에 넣었어요). 중앙에서 내용을 잡고,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거죠. 올해 핵심 이슈, 정세, 교섭 방향을 모두 공유합니다. 이게 1, 2년 쌓이기 시작하면, 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는데 20년 이상 해 온 일 이죠. 조합원들은 기본 노동자 정신, 연대 정신, 산별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김학찬 : 장기간 교육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의료노조가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사업이나, 철학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유지현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9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조직률은 10%대, 팔만명 조금 넘어요. 조직률이 아직 낮은 문제, 더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이끄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죠. 그리고 저희들은 ‘지하부터 옥상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 안에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직종 간 업무 분장의 문제도 숙제고요. 또, 병원들의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예요. 대병원과 중소병원의 임금 차이, 근무 조건 차이 이런 것들은 아직 있어요.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것, 가령 표준 임금 문제 같은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 그리고 산별 교섭이 잘 진행되다 중단이 된 이래로는, 지금까지 완전한 교섭을 못하고 있어요. 대병원 일부가 아직 못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산별 교섭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학찬 : 어찌다 보니 자꾸 숙제만 여쭙본 것 같아서(웃음),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또는 인상깊은 역사적 순간은 무엇일까요.

유지현 : 자랑할 거 너무 많죠. 매년 하는 것 중에 조합원 실태 조사가 있어요. 저희 조합원 8만 명이면 한 50~60% 정도가 답을 하거든요. 매년 동일한 집단에서 쌓은 자료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나 전문가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교섭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 높은 비정규직 비율 문제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되는 거죠. | 또, 단결력이나 중앙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엄청 높아요. 보건 의료노조 중앙과 지역본부와 지부에서 결정된 것은 조합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거든요. 결정 과정에서도 현장과 밀접하기 위해 애를 쓰고요.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저희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파업할 때도 그 이유를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투쟁하고 있죠. 환자 안전, 병원비 문제, 의료 제도 문제, 인력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길거리 투쟁도 했는데, 적어도 의료는 민영화되면 안 된다,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학찬 : 의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특히 살려야 되는 전태일의 정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지현 : 저는 전태일 정신을 따뜻한 인간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치열하게 실천했던 나눔과 연대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최상의 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일은 없

어야 합니다. 저희는 공공 의료를 늘리면서 보건 의료 체계를 똑바로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병원비를 줄이는 문제, 암부터 무상 의료, 각자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는 운동, 병원비보다 몇십 배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건 비정규직의 문제죠.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시기에 비정규직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코로나 시기가 더 힘들기도 했고요. 마스크를 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제화하는 것도 최근에 했던 일입니다. 의사협회나 정부에다 대고 사회적 교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찬 : 이야기를 들으니 전태일 정신과 의료 이야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의 병원 내 문제는 충격적으로 들리고요. 전태일 노동상 수상 이후, 보건 의료노조에서 전태일 정신을 기르는 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지현 : 큰 병원들은 조직이 많이 돼 있어요. 중소병원이거나 의원급들은 아직 열악한 노동 조건이 많아요.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지부 결성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용 승계 투쟁이 되죠. | 저희가 11월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태일 평전』 읽기, 독후감 제출하기, 시상식 하기. 꾸준히 11월 13일 전에, 『전태일 평전』 읽기 운동을 하죠. 2022년도에는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전태일 평전』을 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번역했어요. 국제 연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어렵게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한다거나.

김학찬 : 노동조합에도 한류가 부네요(웃음).

유지현 : 전태일 거리 동판 사업도 다시 정비했어요. 조합원 500명 미만은 1개, 500명 이상은 두 개. 또, 적극적으로

전태일 재단 후원회에 가입하기 운동도 있어요. 참,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했었잖아요. 영화 제작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 또, 사회 연대 기금도 있어요. 생명 존중, 노동 존중, 평화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 연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곳에 조합비의 사회 연대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전태일 재단에도 기금을 썼어요. 기후불복종 기금, 전태일 병원 발전 기금 등 11곳에 연대 기금을 전달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산별노조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김학찬 : 이제 유지현 지도위원님께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전태일노동상을 받은 이후에 혹시 달라지신 부분, 또는 좀 더 강렬하게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뜻깊은 노동상 수상이었으니까요.

유지현 : 아프고 나서 받아서 좀 더 뜻깊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대학 일학년 때 『전태일 평전』을 처음 접했는데, 87년을 거치고, 아이 키울 때쯤 되니까 금서였던 전태일 평전 이 위인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기도 하고. | 지금도 조합원 교육을 할 때 『전태일 평전』과 전태일의 역사는 빠질 수 없어요.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 전태일 묘역 앞에서, 올해 한 해도 전태일 정신을 기리면서 잊지 않고 잘 활동하겠노라 이런 각오를 해왔잖아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후라고 달라지고 이런 건 특별히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있기도 했죠. 어쨌든 소중하고 감사하고, 어디선가를 우리 노동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태일 정신이 곳곳에서 이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이 있었죠.

김학찬 : 지금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있거나, 이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유지현 : “해볼 만하다.”

김학찬 : 해볼 만하다?

유지현 :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병원에서 위험한 기회에 노동자 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노동조합이 사실 발을 딱 들여놓으면서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노동 운동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인생에서 나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보람이 있거든요.

사실, 막연하게 예상했던 대답은 용기를 잃지 마라, 힘을 내라, 이런 것들이었다. 유지현 지도위원은 해볼 만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태연히 하고 따뜻하게 웃었다. 보람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닐까.

김학찬 : 보람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노동 운동에 투신한 것이 자랑스러웠던 때, 최고의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유지현 : 세 장면이 있어요. 아쉬운 것도 있고 뿌듯한 것도 있죠. 하나는 제가 고대 의료 노동자 위원장을 했는데, 보수적인 병원 집단에서 29세의 여성이 위원장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리해고법이 통과돼서 민주노총에서 첫 정치 파업을 할 때입니다. 조합원들이 종로나 명동에 나가서 최루탄을 맞고 사과탄에 다쳐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구사대가 와서 로비 대회를 뜯어내고, 교수들이 와서 “환자 버리고 뭐 하는 거야!” 해도 싸웠어요. 저희 말로 로비 대침이라고 하는데, 그날 정말 많이 울었지만 버티고 또 남아있었던 우리 조합원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 그리고 2004년 5월 5일 산별 파업했을 때, 14일 동안 1만 명이 고려대 노천극장에

서 모여서 파업을 했어요. 저는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산하에 있는 우리 병원 지부들을 조직하면서 다녔고,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실무 교섭을 했어요. 실무 교섭 위원으로 사용자랑 2주 동안 교섭을 하는데, 파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수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만 명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새벽부터 교섭이 되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200명이 오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50명이 오기도 했죠. 1만 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지켜낸 거예요. 중간중간 교섭 보고하러 올라가면 우리 조합원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어요. 법에는 주 40시간만 되어 있었던 것을, 주 5일제 주 40시간으로 했던 2004년 3월 총파업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억에 남기도 하죠. | 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연임을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진주의료원 폐업은 마음에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공공 의료의 착한 적자를 공론화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시켜 버린 거예요. 경남도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물 한 모금 안 먹는 아사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 폐업이 돼버렸죠.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임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미완의 숙제로 다음 집행부에 넘겼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개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아직은 안 열리고 있어요.

김학찬 : 지금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2022년 현재 전태일 정신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어야 할까요? 비전이나 바람, 현재성의 관점 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유지현 : 여전히 보건의료노조의 차원에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는 게 현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은 있고, 또 그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니까요. 아직 의료 현장에서 전태일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직 모든 문제

들이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는 문제도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도 정부에서 수시로 들쭉들쭉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투쟁을 각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암부터 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는데, 아직도 63%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나 90%까지는 올려야 해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의료 현장에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원 조직화 문제, 아직 남아있는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등, 다 현재 진행형 같아요. 얼마 전에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건의료노조에 전임 간부들이 400명이 2박 3일 동안 정책 대의원 대회를 했어요.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많더군요.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고, 전태일의 정신을 진짜 현장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위원장을 하던 시기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통과도 됐어요. 직종별 인력 기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적용되는 게 연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의 현실화도 속제로 남아있습니다.

김학찬 :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할 때, 공통 질문이 있어요. 위원장님의 ‘내 인생의 물건’은 무엇인가요?

유지현 : 고민하다가 이 조끼를 갖고 왔어요. 저희는 중간부터 현장까지 간부들이 다이 조끼를 입어요. 어디 가서 저 조끼 입었다, 그러면 아 보건의료노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돈보다 생명”을 이 캐치프레이즈고요.

김학찬 : 문구를 정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돈보다 생명”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유지현 : ‘돈보다 생명’ 만큼 우리를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돈보다 생명에 '을'을 붙이냐 마냐, 이런 것도 엄청 토론했었어요. 사실 이걸 저마다 서로 정했다고 하고 있긴 해요. 가령, 내가 '을'자를 붙이자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모두의 사랑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끼를 딱 입으면 마음이잡이 달라져요. 투쟁이든 기사 회견이든 어디 가서든 조끼만 딱 입으면 저희 정장이 되니까요. 많은 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입었던 조끼가 내 인생의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학찬 : 자료로 여러 판넬을 가져오셨어요.
유지현 :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노조 정책 대대를 대회
 를 2박3일 동안 하면서, 24년 역사의 주요 장면 스물네 가
 지를 뽑아봤어요. 먼저 비정규직 없는 병원.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공동 파업 총력전 선포 기자회견 했던 사진입니다.
 환자 안전과 국민 생명을 위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
 자는 것은 산별노조 건설부터 지금까지의 숙제예요. 그래
 서 2007년도에 정규직 임금 인상률의 1.2~1.5%를 비정규
 직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했
 던 것이죠. | 보건의료노조에서 폐업되고 아직 열지 못한
 병원 두 개(성남시, 진주)가 있어요. 성남시 의료원은 열긴
 열었는데, 또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공공
 병원은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공공
 병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었죠. 저희들이 돈
 보다 생명을 외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 사진
 은 일자리와 함께, 같이 하는 것인데요, 보호자 없는 병원
 으로 출발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문제
 입니다. 국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안인 것 같아
 요. 간병인 책임이 가족에게 가버리면, 간병비를 사비로 써
 야 하잖아요.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들고요. 2009년
 도부터 제기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로 확대가 되었어요. 아직은 미완성이긴 하지만, 사실 외국
 에서든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있으면 같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아직 일부 병동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

로 되어 있는데, 경합이 있는 분들도 계시л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간병인도 없고, 병원에서 있는 모든 인력이 다 의료 간호 서비스 제공을 하죠. 모든 병동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목표인데,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작년 9월 2일 노사정 합의 안에 있었어요. 구체적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김학찬 :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깊이 동의할 만한 의제일 것 같은데요.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도 하고, 저도 누군가를 간호해 보니까, 단 며칠 간호하는데도 병원에서 제가 먼저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더 중요하고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유지현 : 지금은 각 병원에 일정 정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어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입원이 가능하고, 한 명의 간호사가 6~7명의 환자를 보는 등의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 수가도 다르고요. 환자들한테는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간호 간병 없이 충분한 인력으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운동 중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처럼 꼭 해왔는데 평가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간호사 인력도, 재정도 늘려야 합니다.

김학찬 : 또 보여주시고 싶은 사진이 있을까요?

유지현 : 저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진료
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 등 정해진 증상 질환의
경우 이제 5%만 내요. 예전에는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리
면 집안이 어려웠죠.

김학찬 : 집안이 끝난다는 서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지현 : 지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저희 목표는 건강보
험 보장성을 90%까지 올리자, 거의 무상 의료로 가자는 건
데요, 무상 의료로 얘기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
다는 게 정부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암부터 시작하자는 운동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그래서
암, 뇌종양 등 5대 중증질환에 대한 게 생겼어요. 물론 비급

여가 자꾸 생겨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내는 병원비는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은 만 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 면제하자는 것,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5%만 하자는 것,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찬 : 모두 그럴듯한 제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사진을 골라주실까요.

유지현 : 이 사진의 교섭 장면은 정말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산별노조 상견례 사진인데요, 맞은편 병원장들은 다 양복을 입었고요, 이쪽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은 다 조끼를 입었습니다. 2004년도 파업 덕분에 2005년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단되었어요. 저희는 이 교섭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도, 병원 경영의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별 교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문제 같이, 노사가 같이 중요한 의제를 놓고 교섭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학찬 : 간호사 유지현과 활동가 유지현 사이에서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또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유지현 : 닳은 점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본다는 것. 왜냐하면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를 먼저 봐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건 다반사죠.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놓치면 환자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닳은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가였던 유지현도 나 자신보다는 현장의 요구, 간부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되는 것, 이걸 먼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랐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이게 간호사 유지현과 활동가 유지현의 닳은 점 같고요. | 다른 점? 다른 점은 간호사였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3교대를 하잖아요. 병원 집만 왔다갔다 하고 집에 가서 뻘어요. 간호사 유지현은 오로지 주어진 환자를 잘 보는 일에 집중했다면, 활동가 유지현이 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간호 진단이 보건노조 활동하고 똑같아요. 환자를 보면 환자 상태가 어떤지 미리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실천한 다음에, 이 환자한테 그게 나아졌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활동도 똑같아요. 아,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다시 반영하잖아요. 간호 진단하고 되게 비슷한 과정이라서 일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봤던 그 시스템 그대로 현장을 바라보고 분석했던 것, 이상하게 다른 점이지만 닳은 점이었어요.

김학찬 :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지현 : 간호사들은 다 노동자 활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병원 현장에서 있었던 그걸 그대로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

김학찬 : 얼마 전 32년의 병원 생활과 또 노동조합 30년 활동에 대한 퇴임식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퇴직 후 또 꿈꾸시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의 매기 센터와 같은 암 환자 공동체를 꾸리고 싶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유지현 : 2017년 6월 2일,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보니까 더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간호사인데, 다니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또 바쁜 우리 간호사나 누구를 붙잡고 묻기도 어려웠어요. 저도 이런데 다른 암 환우들은, 우리 환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고 힘든 부분을 들어주고 정서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든 교수든 뭐 우리 간호사 인력이든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 그러던 찰나에 이런 걸 영국의 매기 여사가 저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매기 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가까운 매기 센터가 동경에 있어서 직접 견학도 갔죠. 암 환우 가족, 친구들이 와서 궁금한 것도 묻고, 다른 환우들의 경험도 들으면서 자기 치유도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약 매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야겠다 싶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명상 지도라든가 미리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치유에 도움도 될 겸 하고 있고요. 꿈꾸면 이루어지잖아요.

|

김학찬 : 꿈꾸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상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슬로건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지현 : 슬로건……. 슬로건은 ‘암 환우는 암 환우가 돕는다’. 치병을 해보니까, 자족모임의 중요성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병원 치료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병원에서 못 해주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자족모임을 통해 서로의 치유의 기운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정서적인 치유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치병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병원이 육체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를 맡는다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치유는 암 환우들의 자족모임이나 매기 센터 같은 데서 이루어지면 치료에 가속도가 붙고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학찬 : 암 환우는 암 환우가 돕고 치료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진료와 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환자는 환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거대한 장편 소설을 읽는 느낌, 장편 이상의 대하소설을 마주한 느낌이 들었는데, 인터뷰를 읽은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지현 : 30년 이상 병원 생활을 하고, 노동자 활동을 하고, 사실 임기 마지막 해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게 왔지 실망하기도 했어요. 암 진단을 받고, 건강하게 된 지 5년 지났거든요.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선배님들, 동지들, 우리 조합원들이 건강을 기원해줬어요. 기도, 기원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만큼, 이제 치유의 기운을 다시 또 나눠줘야 할 것 같아요. 전태일 열사가 전태일 정신을 저희에게 남겨줬듯이, 제가 암이라는 걸 겪으면서 해야 할 일을 또 찾았듯이, 모든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각자의 달란트만큼, 또 각자의 기운만큼 주고받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함께 나누고 뭔가를 같이 하고, 이러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시면서 저희에게 남겼던 메시지 같아요.

|

녹취를 우선 풀어보니 원래 계획의 다섯 배가 넘는 분량이 나왔다. 난감했다. 대답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이라 어느 한 부분을 줄일 수 없었다.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다가 전태일재단에 연락을 했다. 랜캄다는 대답을 듣고 상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아마 인터뷰를 읽는 사람들도 유지현을 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택할 것 같아서.

|

마지막 문장을 쓰는 지금도 유지현 지도위원, 아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해볼 만한 일이 있고,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했다. 밝고 건강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힘 있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기를 기도한다. ●

전태일노동상 29회 [박홍배]

2021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전태일문학상 23회 시 [이동우]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하고 2015년 시 「막다른 길들」로 제2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다.

전태일문학상 수상 소회 [이동우]

칠 년 전 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시, 「막다른 길들」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다. 당시 글을 쓰면서 오갔던 대한문 앞 농성장 천막에 맺힌 물방울들이 아직도 선연하다. 안팎으로 부는 바람에 물방울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공권력에 의해 천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끝나버릴 것 같았던 투쟁은 그 후에도 즐기치게 이어졌다. 투쟁의 매순간은 가보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고,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 길바닥에 세워진 농성장을 찾을 때면 문득 내가 투쟁의 현장을 그저 감정의 영역에서 대상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다. ‘재현의 윤리’라는 문제에 침잠하던 어느 저녁, 농성장 앞 가로등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노동자를 보았다. 그 모습이 마치 ‘ㅅ | ’라는 글자처럼 보였다. 빛 곁에서 때론 빛 없는 길에서 뚜벅뚜벅 걷는 그가 상상되었다. ‘ㅅ | ’라는 글자가 천막 지붕과 굴뚝으로도 보였다. 한 지붕 아래 노동자들이 모여 결별을 찍고 밥을 지어 먹으며 새 길을 모색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 그간 생업을 핑계로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나의 초심은 흐려졌고 사회의 여러 모순을 글로 쓰는 일 또한 멀리했다. 현실에서 살짝 비켜 서 있던 내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님과 인터뷰는 지난 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태일노동상 수상 소감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남겨진 이들의 헌신으로 탄생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해서 만든 성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만들어낸 이들을 떠올려본다. | 번이를 거둬하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바이러스가 풍토병화 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성찰의 기회였다. 이 시련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기를 바란다.[*이해미 산문, 「흰 페이지를 열고 무대 위로 나아가」 일부를 인용함.] ●

불굴의 의지로 열사 정신 이어야



2022년 12월 2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난 이동우(왼쪽)와 박홍배(오른쪽).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속에서도 자본은 언택트(Untact) 기술을 내세워 몸집을 불렸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의 작풍은 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몰아닥쳤다. 핀테크와 빅테크로 무장한 스마트 बैं킹, 페이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비대면 거래 시스템은 은행 지점 폐쇄와 고용불안의 결과를 낳았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망망대해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이끄는 박홍배 위원장을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단이 있었다. “불굴의 의지”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에게서 언젠가 사진으로 봤던, ‘총파업’ 붉은 머리띠 동여맨 그의 당찬 모습이 떠올랐다.

이동우 : 금융노조가 작년에 제29회 전태일노동상을 받았 습니다. 수상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배 : 한국노총 소속 단체로는 최초 수상입니다. 개인 으로는 이용득 선배님이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한 적이 있 습니다. 조직으로는 처음 받게 되었는데, 왜 그전에는 없었 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받는다고 하니 훨씬 상 의 무게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금융노조 동지, 후배들도 전태일노동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노조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우 : 금융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 직 대비 두 배 정도 올리는 하후상박 임금 전략을 산별 교섭 에서 관철해왔는데요. 사회 연대 임금 전략을 처음 시행할 때 조직 내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나요? 그리고 현재 정규직 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박홍배 :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두 배로 올리려는 산별 임금 합의를 해온 지는 10년이 아니고 15년이 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처음 합의할 때의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당시 제가 노동조합이 아닌 지점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근무할 때여서입니다. 이후 산별 합의가 진행되었고 지부가 보충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금융권 선배들께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여행원제 폐지 운동을 했고 육아 휴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기억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산별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동우 : 금융노조가 사회 공헌 활동으로 미안마 유학생 생활비,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등과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 후援,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울러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연대의 영역이 있으신지요?

박홍배 : 앞서 질문하신 연대 임금 전락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조합의 사회 공헌 활동도 마찬가지인데, 금융노조가 그런 부분에 다른 노조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한테 늘 따라다니는 ‘키죽노조’, ‘고임금 노동자’라는 수식어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노조를 키죽노조라고 부르는, 어이없는 상황 이기는 합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따라붙는 그 수식어들 탓에 노동조합 활동하기가 어렵고, 교섭이나 투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연대의 폭을 넓히고 취약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을 통해서 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애니메이션 〈태일이〉, 미안마 유학생 생활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회적 금융 관련 문제와 ESG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 산업 전반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핀테크, 인터넷 은행 등 생소한 신기술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점포 폐쇄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텐데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노조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가요?

박홍배 : 점포 폐쇄 그리고 줄어드는 고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총파업 때 저희가 가장 크게 목소리 낸 부분이 금융의 공공성입니다. 은행이 공공기관인지 민간회사인지 구분을 못 하는 분이 꽤 계시는데,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의 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입니다. 회사가 점포를 없애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틈타서 은행들이 여러 점포를 폐쇄했고 그로 인해 금융 소외 계층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협약안을 요구했고, 부족하기는 하나 총파업 이후 산별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정부의 지분이 없는 민간회사라도 금융산업이 지닌 공공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수익과 비용만을 고려하여 지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동우 : 2022년 4월 7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과 함께하는 노동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금융노조 노동대학은 2002년 4월 처음 시작돼, 2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바라는 활동가상은 무엇인지요?

박홍배 : 타임오프제로 인한 재정 악화로 한동안 ‘전태일과 함께하는 금융노조 대학’을 열지 못하다가 만 8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전태일재단, 전태일기념관과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깊습니다. 각 지부 동지들이 전태일기념관이라는 상징적 장소에 모여서 열사의 삶을 기리고, 여러 노동자와 연대의 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재단에서, 기념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노동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

다. 저희 간부들에게도 바라는 점은 ‘연대의 정신’입니다.

이동우 : 내 인생에서 ‘전태일’이란 이름이 강렬하게 다가왔던 때는 언제인가요?

박홍배 : 홍경인 배우가 주연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동우 : 『전태일 평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박홍배 : 전태일 열사가 시장에서 노동 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던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금융노조로 오기 전에 일상적으로 지부에서 하던 일이 노동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었는데, 열사께서는 1970년 이전에 그런 일을 하셨더군요.

이동우 : 전태일노동상을 받은 뒤 우리 조직 혹은 내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박홍배 : 제가 수상 소감으로 상이 참 무겁다고 했었는데요. 노동조합이 간혹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태일노동상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전태일노동상의 무게 덕에 금융노조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판짓을 못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동우 : 2022년 현재 전태일 정신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어야 할까요?

박홍배 :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풀빵 정신과 같은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불굴의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 현장의 어려운 상황이나 윤석열 보수 정권의 폭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아직 4년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저희 어깨를 짓누르지만, 저희보다 힘들게 사셨던

열사를 떠올리면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 없습니다. 열사가 보여주셨던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 노동운동을 하길 잘했다고 느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박홍배 : 산별 중앙 교섭에서 임금 인상분의 0.9 퍼센트를 사회공헌활동에 할당한다는 합의로 저희가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노조 39개 지부 중 한두 곳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고, 일부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통제받는 지부도 있어서 모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500억 이상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근로복지 진흥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과 후 수업이 없어졌을 때, 해당 교사들에게 긴급 생활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동우 :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박홍배 : 여러 번 있는데요, 눈물이 많아서요. 얼마 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민중가수 최도은 님이 오봉역 사고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애길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운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제가 국민은행 지부장일 때 교섭 과정에서 지부 단독 파업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조합원이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무대 위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동우 :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설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박홍배 : 현 정치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을 배척하다 보니, 아마도 이 길에 들어서길 망설이는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누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 일터에서의 경험들, 그런 것이 쌓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 상황을 힘들게만 보지 말고 결국 나는 할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 내 인생의 물건(오브제)을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사연이 담긴 물건입니까?

박홍배 : 성격상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합니다. 3년 전쯤 소속 지부의 수석 부위원장 동지가 사진 액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조합원들과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넘마주이처럼 휴지를 줍는 걸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흐릿했으나 그 액자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차 안에 걸던 글귀입니다. 지부 선거에서 사측과 선거 개입 문제로 소송전까지 벌이며 두세 달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이 들려다가 저녁에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참 하루가 무사히 넘기기가 어렵구나, 그저 오늘도 무사히, 라고만 되뇌던 날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하루하루가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 앞으로 노동운동계가 꼭 해주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들려주세요.

박홍배 : 노동운동이 노동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철폐 등과 더 나아가 주거, 환경 문제까지 복지 국가로 향하는 행보를 해야 합니다. 정당 활동을 병행하는 제가 보기에 정치 체제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이를테면 브라질의 물라 대통령 같은 뛰어난 정치지도자가 우리 노동계에서도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나 후배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덜 걱정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우 :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박홍배 : 전태일기념관 개관 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축하 인사를 나누며 기뻐하던 자리에서 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서였는지, 처음엔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우리 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전시 활동 등 많은 일을 기념관에서 함께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노동조합 간 국제 교류가 뜸했습니다. 해외 교류 활동이 재개되면 방한하는 외국 노동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꼭 들르는 국제적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2022 특별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부터 30회간 전태일노동상과 전태일문학상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도이다. 23회 문학상 수상자인 내가 29회 노동상 수상 단체의 대표인 박홍배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조직과 활동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오랜 시간 산별 교섭을 지키려 했던 과정과 결과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해주신 것 같다”, 박홍배 위원장의 수상 소감과 “이 땅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 얼음새꽃. 제 체온으로 언 땅을 뚫고 얼음을 녹이며 피는 꽃. 보수화의 삭풍에 동토가 되어가는 이 땅에 그런 시 한송이 심고 싶었습니다”, 나의 수상 소감은 ‘전태일 정신’으로 한데 묶였다. 두 상의 30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축한다.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 그 너머, 너머를 꿈꾼다. ●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연대를 잇는 연대’ 부분 중 2021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수상한 전태일노동상 기념패 <곰은 목지>.

전태일노동상 30회 [권영국, 임종린]

2022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이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임종린. ●

전태일문학상 21회 르포 [신정임]

1977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라디오방송 작가를 꿈꾸며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지만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데모에 나가느라 꿈을 잊었다.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지부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월간『노동세상』 창간 때부터 기자로 일했다. 잡지 폐간 뒤 『아줌마 백화점에 가다』로 2013년 제21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뒤 르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같이 쓴 작품으로 『달빛 노동 찾기』, 『숨은 노동 찾기』, 『사람의 얼굴』, 『나는 시민 기자다』 등이 있다.

전태일이 바랐던 대학생 친구, 파바노 친구들로 태어나



2022년 12월 8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난 신정임(왼쪽)와 권영국(가운데), 임종린(오른쪽).

‘물신의 벽을 넘을 사다리는 나눔과 연대입니다.’

2022년 제30회 전태일노동상 선정위원회는 수상자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수상 선정 근거를 설명하는 글을 이 문장으로 시작했다. 사람이 아닌 돈을 신성시하는 사회에서 나눔과 연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준 본보기가 공동행동임을 밝히면서, 50일이 넘는 단식을 하며 노동조합 지키기에 나선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짓에 공명한 시민이 전국에서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에 꼭꼭도 않던 SPC그룹이 흔들렸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하고, 사측에서 사과문을 올리는 열매를 맺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이 함께 이룬 값진 승리였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연대체로서 공동 행동이 처음으로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승리는 더 밝게 빛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이끌고 있는 임종린 지회장이 이 승리의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갯길들을 굽이굽이 넘어왔는지를 들려주었다.

신정임 : 파리바게뜨 투쟁을 보면 한국 노동 문제의 현주소를 알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권영국 : 우리가 사는 곳에서 늘 마주치는 곳이 파리바게뜨 매장이잖아요.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빵 맛도 좋아 시민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이용했을 텐데요. 알고 보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휴식이나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모성권 보호도 안 되고, 노조 파괴에 인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충격이었는데 시민들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기분이 더 커져 분노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속을 들여다보니 SPC그룹이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SPC자본의 문제는 우리나라 자본이 다 갖고 있는 폐단이었던 거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노동자를 파트너로서 생산의 주체, 권리를 가

지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일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던 겁니다. 시민들에게 크게 전파했던 이유도 “노동자를 어떻게 저렇게 취급하지?”라는 공분이 형성돼 사회 이슈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임 : 임종린 지회장님은 올해가 입사 15년차라고 들었습니다. 모범사원으로 표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임종린 : 문제가 있는 건 원래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회사에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네가 만들어, 네가 총대 메면 같이 할게.” “총대 누가 뭘 거야?”라고 농담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무상담을 받으면서 보니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한데... 회사가 원래 이렇게 뭘.”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불법이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일을 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를 알게 됐죠.

신정임 : 그때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았나요?

임종린 : 수당 문제였는데요. 저와 같은 직급에게 주는 수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이 바뀌었으니 돈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라고 했으면 저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모범사원이었기 때문에 수당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당 조건이 바뀌었으니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절차나 동의도 없이 그냥 카톡 하나 보내서요. 그런 모습이 부당하게 느껴져 노무 상담을 받았죠.

신정임 : 노무 상담을 받는 것과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 조직은 어떻게 했나요?

임종린 : 만약 지금 하라고 하면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웃음), 그땐 잘 모르기도 했고 분노가 더 커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매장이 전국에 있고 협력사마다 폐쇄적인 구조여서 힘들었어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했는데 “서울에 있는 기사를 연결해봐라.” 하면 연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카톡

을 통해서 전달해도 노동조합 소식을 받아보는 걸 다들 겁내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파가 잘 안 났어요. 그러던 중에 간부 중 한 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누가 노동조합을 SNS를 보고 가입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빵기사들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빵이나 케이크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진 기반 플랫폼에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노동조합 소식을 올리고,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렸더니 전국에서 한두명씩 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결국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되는 법. SNS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을 지역별로 모아 노동조합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청도 지역까지는 임종린 지회장이 다녔다. 오후 5시에 퇴근해 운전해서 7시쯤 설명회 장소에 도착하면 설명회와 뒤풀이까지 하고 밤늦게 돌아와 다시 새벽에 출근하기를 몇 달간 반복했다.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지냈다. 그나마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은 화섬식품노조 간부들이 챙겨줘 빠르게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었다.

신정임 :전국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느꼈던 거군요.

임종린 :네,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가 일한 지 10년 차였는데 저는 건강한 편이어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꼭 쉬어야 하는 상황도 없었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불만이 있긴 했지만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현장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픈 데 끌려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수당 5만원 때문에 그랬는데 70만원, 100만원 뜯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나는 5만원 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70만원, 100만원을 뜯기고도 가만히 계세

요?”라고 했더니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는 게 없고, 현장에서 문제아밖에 안 되는데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죠.

신정임 :2017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8년에 합의 되는 과정에선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임종린 :SPC가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투쟁했죠. 그때 순진했던 게 SPC 본사 소속이 되면 좋으니 모두가 동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반대 세력이 생기더라고요. “6개월짜리 계약직도 직접 고용이니 다 계약직으로 바뀔 거다”, “제빵 기사들은 고용하겠지만 관리자들은 본사에도 있어서 협력사가 답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들 반대 세력도 노동조합으로 결집했지요. 그러다 보니 회사를 상대로 요구하기도 바쁜데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이 생겨 직원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회사랑 싸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어요.

신정임 :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이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임종린 :합의할 때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행복한 결말일 줄 알았어요. 합의서 쓰는 날 사진 보면 제가 굉장히 밝게 웃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웃지 마, 바보야.”라고 할 텐데... 합의는 합의고 현장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회사의 모습이 있었던 말이에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아프면 쉬고, 휴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연장 수당도 제대로 받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노동조합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복수 노조인 상황을 이용해 회사랑 싸울 문제를 계속해서 노조끼리 싸움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니까 현장에서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많았죠. 노조끼리 먼저 싸워야 안건이 될랑 말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사와 대화하는데 장애물이 많아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

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지켜야 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많이 힘들었죠.

신정임 :조합원들도 많이 빠져나갔나요?

임종린 : “진급하려면 당연히 회사가 원하는 노조에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는 만연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회사의 탄압과 불이익이 있고, 현장에서는 고충이 발생하고, “그래도 고충을 처리해주는 곳은 저 노조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조합원이 줄진 않고 계속 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임종린 지회장은 2019년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 그랬는데 회사에서 아예 민주노총을 0%로 만들겠다는 작전을 세우면서 갑자기 탄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조합원이 빠지게 됐죠. 그 시기가 2021년 3월부터였어요. 2018년 1월에 한 사회적 합의 중 ‘본사직과 임금을 3년 내에 맞춘다.’가 중요한 조항이었는데, 3년이 되는 해가 21년도였어요. 약속 기한이 됐으니 임금을 맞추기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회사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키라고 하는 애들을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행 시점이 됐을 때부터 탄압이 강하게 들어왔죠.

신정임 :그래서 안 해본 투쟁이 없는 거죠?

임종린 :그래도 안 해본 것도 있죠. (웃음) 1인 시위, 천막 농성은 계속 했고, 단식 농성도 하고요. 제가 단식을 해서 안 돼서 간부들이 집단 단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정의당 중앙당사랑 민주당 서울시장 사무실로 들어가서 농성도 하고요. 전국에서 도와줘서 매장 앞 1인 시위도 하고, 3보 1배, 오체투지도 해보고... 아, 많이 했네요.

신정임 : 53일 동안 단식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중간에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임종린 :사실 단식 들어갈 때 20일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단식 며칠 차’ 쓰는 걸 딱 20일까지만 프린트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죠. “대화합시다”, “문제 해결 합시다” 하고 시작한 단식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됐

는데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중간에 끝내는 건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신정임 :그 뒤에 공동행동이 만들어졌죠? 지역별 공동행동까지 조직돼 14개 지역 600여 단체가 함께하는 전국적 연대 조직이 됐어요. 한 사업장 투쟁을 이렇게 지지·지원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텐데요.

권영국 :외국 투자 기업에서 사업장 철수할 때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해 공동위가 만들어져 싸움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노동권 침해 문제로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삼성공대위가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SPC를 식품업계 삼성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 공동행동이 만들어지기 전인 작년 7월,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가 재결성됐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100명씩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노조 탄압이 본격화한 뒤였죠. 자칫하면 노동조합이 붕괴할 위기여서 시민대책위가 재가동되긴 했는데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연대의 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이 50일 다 돼 가는데도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위기 의식을 크게 느낀 거죠. 제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노동시민사회쪽에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어요. 5월 16일로 기억하는데 다들 긴장을 하고 있던 터라 바로 50여 개 단체 62명인가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5월 18일에 73개 단체가 모여서 공동 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했죠. | 공동행동이 실제로 확대되어 결성된 데는 당사자, 특히 임종린 지회장의 절박한 단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단식으로 그동안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지회를 향한 노동 탄압을 시민 사회 진영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서로 결합하면서 공동행동이 탄생하게 됐던 거죠.

신정임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SNS DM (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농성장 방문했던 분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임종린 : “트위터 보고 찾아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중학생들이 트위터 보고 온 적도 있고요. 농성장 옆 아파트에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현수막을 달았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식의 문구로요. 얼굴도 모르는 트위터 친구께서 그걸 보고 화가 났나 봐요. 농성장이 아니라 그 현수막 앞으로 찾아와 ‘어떻게 여기서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고는 다른 분들도 와서 포스트잇 붙이라고 공간을 마련해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노동 탄압 관련 스티커를 사비로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려 사람들에게 배포한 분도 계셨어요. 단순히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대해주신 분들이 많았지요.

| 공동행동 상임대표로 처음부터 이 투쟁을 함께해온 권영국 변호사는 “청년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이어서 인스타그램 등 SNS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구조가 있었고, 땀은 생활과 밀접해서 더 가까이 느껴져 훨씬 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 **신정임** : 변호사님은 공대를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게 됐는지요?

권영국 :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직 공채로 입사했어요. 현장을 가까이 하면서 노동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이 들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 과정에서 두 번 해고되고 구속도 됩니다. 블랙리스트처럼 주변에 알려져서 더 이상 괜찮은 기업에 입사하기는 글렀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사법시험 공부하던 선배가 오갈 데도 없다고 하니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 ‘활용도가 높고, 전문직이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웃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집에 너무 고생을

시켜서 ‘이제는 집에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노동의 문제로 돌아가는 부분도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험 통과하면 나는 노동자를 위해 사는 노동 변호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광부였고 제가 기술직으로 들어간 곳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업이었잖아요. 노동 문제하고 저하고 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일이 빨리 찾아왔던 거죠.

신정임 : 사법시험을 택할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많은 공대위에서 앞장서며 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임종린 : 오체투지를 몇 번 하셨는데….

권영국 : 운명이라고 할까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로 하고 면접을 보러가기로 한 날, 민주노총에서 법률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했죠.

신정임 : 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권영국 : 운명이라니까요. 지금 더 필요한 건 이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채 의식도 있었고요. 해고되고 복직 투쟁을 2년 정도 했었어요. 결국 힘에 부쳐 사법시험을 봤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부채 의식이 남았죠. 마음의 빔을 먼저 갚아야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싶었죠.

|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 계획서를 받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의 아내는 3주 동안 말을 안 했다. 남편이 해고되고 구속되는 걸 지켜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걸 힘들게 봤바라지했던 아내로서는 말할 수 없이 서운한 일이었다. “손에 땀이 들어왔는데 그 땀은 농친 기분”이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던 아내는 결국 3주 만에 “아, 이 화상을 내가 어떻게 해. 당신, 알아서 해.”라며 허락의 말을 대신했다. 그때부터 권영국은 노동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

신정임 : 민주노총 법률원부터 많은 노동 사건을 담당하셨을 텐데 잊지 못할 노동 사건이 있다면요?

권영국 : 발전노조 투쟁이 제 첫 수임 사건이었어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전 공기업이 38일 동안 파업 투쟁을 했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세계적으로도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 손 놓고 나와서 파업을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담당 변호사로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전국에 흩어져있던 노동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매일 매일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싸움박질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 그 다음 기억나는 건 쌍용차 정리 해고 사건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1심을 어렵게 뒤집어 노동자들이 이기고 올라간 사건을 다시 뒤집어버립니다. 그때는 우리도 굉장히 긴장을 했지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하고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열흘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매일 2천배를 했어요. “설마 부처님도 이정도 치성이면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원심을 파기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고 노동자들이 멍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입구로 가니까 밖에는 취재하러 온, 40~50명쯤 되는 기자들이 쭈뼛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나 오다가 그걸 보고는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 덩치 큰 노동자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원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 그때 저로서는 참담한 절망 같은 걸 느꼈어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구나.’ 그래서 그때 정치를 생각했어요. ‘이거 판결에 맡길 문제가 아니구나. 주권자인 우리들이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한 계기였어요.

|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껏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

2016년 총선에선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명령하고 여론 조작까지 했던 김석기가 후보로 나선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했다.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이었던 그로서는 참사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게 용납이 안됐을 게다. 4년 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경북 경주로 출마했다. 경주는 그가 처음 기술직으로 일했던 풍산그룹 안강공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일하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운영하는 나라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했다.

|

신정임 : 참담한 일도 있던 반면 보람도 많았을 텐데요.

권영국 : 많죠. 발전노조 같은 경우에 투쟁 끝나고 368명인가 해고됐어요. 수천 명이 징계 대상에 오르고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죠. 처음엔 일부 청구로 몇십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다 합쳐 수백억 정도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냈죠. 결국 법원에서 원고인 발전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어요. 와~ 정말 그때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 최근에는 동국제강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이 기억나요. 처음에 원청인 동국제강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뻔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사주 이름이 들어간 사과문을 동국제강 홈페이지에 팝업창에도 띄우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싸움을 하면 우리가 늘 패배하는 건 아니고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 그걸 또 한번 느낀 게 바로 파riba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싸움입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런 성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도 스스로 위안도 하고 희망도 갖습니다.

신정임 : 합의할 때, 이걸 빼면 합의 못 한다, 꼭 넣어야만 한다고 한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임종린 : 합의서에 쓴 조항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그중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만한 건 휴식권 문제죠. ‘보건 휴가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 부분으로 가장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했을 때 조합원들이 가장 기뻐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권영국 : ‘사과를 누구 명의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죠. 다음엔 ‘이 합의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담보하게 할 것이냐.’였죠. 노동조합뿐 아니라 정당까지 포함해서 했던 사회적 합의를 파괴해버렸던 거니까요.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없애는 방식으로요. | 노조 파괴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는 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하잖아요. 자본들이 노조 파괴가 범죄 행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도 않고요. 노조 파괴나 부당 노동 행위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처우 문제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힘을 갖게 되면 그때 개선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싸우는 주체에 대해 보상하려면 앞으로 SPC가 부당 노동행 위나 노조 파괴를 못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책임자들에게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만 내부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우리가 처벌과 징계를 받는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신경 쓰였어요.

| 파riba게뜨 노사는 2022년 11월 3일 합의서에 서명한다.

신정임 : 이번에 합의할 때는 많이 웃었나요?

임종린 : 아니요. 표정이 더 안 좋았습니다. 합의 내용 중 노조 파괴에 적극 가담한 자, 부당 노동 행위자를 징계한다는 게 핵심 사항이었거든요. 부당 노동 행위로 2021년 1월에 9명이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어요. 이후에 압수수

색하고 추가로 송치됐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서 죽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추가 송치자가 몇 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예 없거나 한두 명이면 이후 법적 투쟁을 계속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알려주다가 11월 3일 합의하는 날 도장 찍기 1시간 전에 등기가 날아온 거예요. 법인이랑 대표이사 포함해서 28명이 송치됐다고요. 이진 거의 회사가 노조 파괴를 했다는 수준이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합의 안 하고 계속 투쟁했지” 하면서 간부들이 다 화가 났어요. 사진 보면 표정들이 다 썩어 있어요.

신정임 : 아쉬움은 있었지만 합의 후 연대체로 전태일 노동상을 처음 타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권영국 : 일단 네 번에 걸쳐 진행한 전국 동시 다발 1인 시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동네 빵집 쉼린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함께한 파riba게뜨 노동자 친구들(파바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연대해주셔서 결국은 그 쿼터 높던 SPC를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합의서에 도장 찍게 만들었죠.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이자 노동의 문제에 어떤 식으로 같이 손잡고 연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례이죠. 이번에 노동문제에 시민이 참여하고 공분을 일으켰던 것 일면에는 아마 자기가 하는 노동과의 관계도 고민하고, 시민의 노동자성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종린 : 투쟁이 길어지고, 공격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 우리가 옳다고 정당성을 부여할 걸 계속 찾습니다.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옳고 버티니까 조금씩 바뀌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우리 조합원들에겐 있거든요. 전태일 노동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역시 봐, 우리가 옳았어.”라고 할 수 있어서 좋았죠.

신정임 : 1970년대의 전태일 정신의 어떤 부분이 2022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종린 : 이번에 SPC 내 SPL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재촉만 하면서 지켜야할 규정도 지키지 않고 안전장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으로 봐라”라고 외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외쳐야 하는 구호가 아닐까 싶어요.

권영국 : SPL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SPL 강규형 지회장에 게 “이 사고가 왜 발생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라고요. 사람은 잘못하면 다 칠 수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생산 속도, 물량에 안전은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임 지회장이 얘기한 대로 “노동자를 기계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잖아요. 속성상으로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 또 하나는, 전태일이 노동자 시절에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노동자들이 싸우다 보면 언론플레이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파riba게뜨지회 노동자들의 친구가 돼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대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신정임 : 시민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임종린 : 프랑스노총이 연대를 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프랑스에서도 단식 투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 잘못된 건 저들이니 저 사람들을 깨부셔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맛다. 나쁜 저 사람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꺾아먹는 고통스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꽃이다.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

한 공격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투쟁하는 것들이 단순히 열 받아서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대의를 느꼈습니다.

권영국 : 우리 사회가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깊잖아요. 우리가 철차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열심히 잘 싸웠는데 이 민주주의가 공장 담을 잘 못 넘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고, 마치 무노조 경영이 굉장히 좋은 경영인 것처럼 떠벌리던 시기도 있잖아요. 저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공장내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가 상사나 사장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실질적인 민주주의인 거죠.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과 노동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내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은 바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쟁취하고 실현하는 길을 만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시민들 속에서 빨리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마지막으로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11월 3일 노사합의 이후 SPC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느냐고 묻자 권영국 변호사가 “확 바뀌면 다들 노동조합하지.”라며 웃었다. 임종린 지회장도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버티니까 바뀌는구나.’라는 희망찬 분위기는 조금 생겼다.”고 답했다. 집과 회사만 오가던 모범사원이던 임종린 지회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고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전했다. “열린 세상이 마냥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럽지만도 않아요. 즐거움도 꽤 큼니다.” 임종린 지회장이 전해준 말처럼 고통을 함께 짊어질 친구가 있는 한 희망은 항상 새로운 세상에서 움튼다. ● ┐

전태일문학상 3회 소설 [김하경]

1988년 계간 『실천문학』 봄호에 단편 「전령」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9년부터는 월간 『노동해방문학』 5/1 문예 창작단에 참여했다. 1990년 11월 「합포만의 8월」(『그해 여름』)로 제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한국 민주노동사를 주제로한 『내 사랑 마창노련』(전2권)을 출간했다. 그 밖에도 콩트집 『호루라기』, 『송어의 꿈』와 장편소설 『눈 뜨는 사람』을 썼고, 마창지역 노동소설 모음집 『그래! 다시 하는 거야』 및 『속된인생』, 『워커바웃』등을 펴냈다. ●

전태일문학상 15회 시 [유현아]

2006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을, 2020년에 청소년 시집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을 펴냈다. ●

노동 문학, 문학에서 노동 운동으로



2022년 12월 12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노동과 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김하경.

유현아 :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15회 전태일문학상 시 부문으로 상을 받고 시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나요?

김하경 :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가끔 강의나 이런 게 있을 때 나가고요, 보통 때는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현아 : 여긴 전태일 기념관인데요, 그 전태일 열사가 김하경 선생님보다 세 살 어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돌아가신 소식을 좀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인연이 혹시 있었는지 당시 포래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하경 :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걸.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동년배

라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하고 했어요. 그때는 인천에 인일여고 선생이었어요. 국어 선생이었는데 그때 70년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고 당시에 『여성동아』에 편집부장이었던 권도홍 씨, 권도홍 씨가 되게 유명한 분이데 꼴통으로 유명하신 분이예요. 그분이 소설가 박태순 씨로 하여금 그 사건을 취재해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동아에 세 번의 연재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 취재하고 와서 저희 집에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그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말하자면 기록을 본 다음에 나와 동년배인데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당시에 제가 학교 선생을 하니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야단을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이렇게

📷 (B-1-2-16-42)

제2회 전태일 문학상 시상식, 1989.11.10.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회 전태일 문학상 시상식이 1989년 11월 10일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B-1-2-16-43)

제3회 전태일 문학상 시상식, 1990.11.08 (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90년 11월 8일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에서 이루어진 제3회 전태일 문학상 시상 광경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T-4-7) 전태일노동상, 전태일문학상수상자들의 만남 ㉠ 전태일문학상3회 소설 [김하경] + 전태일문학상15회시 [유현아] | 2022년 12월 12일 | 전태일기념관

포한이 맺혔는데 너희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잘 아는 김근태씨 부인 인재근 씨도 제 제자였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재근이가 저한테 선생님 제 인생이 꼬인 게 선생님을 만난 뒤부터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운동권 선배들이 자기를 불러서 전태일 열사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봉천여중, 신림여중 국어 선생을 계속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은수미 씨, 장인숙, 김유경 이런 제자들이 또 운동권이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나한테만 끝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까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유현아 : 동년배이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군요. 또 선생님은 여러모로 특별한 이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사 활동을 하셨고 1978년도에는 교육 평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로 「여교사일기」를 발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한 것은 등단하기 전 인소설을 쓰기 전부터인 것 같아요. 교사 생활 이후에도 방송 작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데 글을 계속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하경 : 글을 쓴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대학도 국문과에 들어간 이유도 글을 쓰고 싶어서 갔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무슨 여류 문학가 이런 사람들의 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쓰고 싶은 그런 문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문학과 거리를 멀리하고 살았는데 보시면 알지만 학교 선생을 하면서 제가 「여교사일기」를 연재했는데 그게 주간 시민이라는 주간지였어요.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냐 하면 동아투위, 조선투위 했던 언론 해직 기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했던 기자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칼럼을 담당한 사람이 지금 한길사인 사장이신 김원

호 씨가 초창기 애기 기자였을 때 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논조가 관보, 서울시 홍보를 맡은 신문이긴 하지만 그 동아투위 사람들이 그 신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꾼 것은 거죠. 거기서 제가 1년 반인가 연재를 하고 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때 관악서 형사가 한 번 신림여중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김원호 씨 소개로 주간 시민사회에서 책을 낸 게 〈여교사일기〉였고 78년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거를 더 쓰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태일문학상에 나오기 전에 〈눈 뜨는 사람〉이라는 장편을 먼저 썼습니다. 78년에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쓴 거고 그게 70년대 노동운동이 처음 싹 틀 그 시작인데 성수동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던 그 학출 이야기였어요. 소설의 그 사람이 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 전태일 열사한테서 받은 뭔가가 저한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외피를 입고 일반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초기의 처녀작이기도 해요. 당시는 그런 종류보다 막 투쟁 일선에 뛰어나가야 되는 작품을 원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판이 안 됐어요. 그 당시 김사인 씨가 실천문학에 편집장도 하고 그랬던 텐데 아마 그분이 저한테 김아영이라는 이름도 필명도 주신 분이예요. | 78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글을 쓰려면 글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해서 방송 작가 생활을 했는데 그 방송도 또 어떤 방송이냐 하면, 제가 양희은의 담당 작가였어요. 양희은 씨가 광주에 내려가서 공연하고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유남봉 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 항쟁이 나고 난 뒤에 유남봉 씨가 저희 집에 기타를 숨겨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기타 속에 총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부상자와 구속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회 조직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한 거죠. 광주 출신의 많은 도예가가 만든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도자기를 판매하는 거를 저희 집에, 제가 그때 봉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막 가마니로 가져온 적이 있

어요. 그걸 좋은 건 다 팔고 제일 찌끄레기 안 팔린 거를 제가 샀어요. 유남봉 씨랑 웃으면서, 이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면 이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이게 면죄부다. 그러면서 우스개 소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 어쨌든 그게 80년이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방송 작가가 KBS로 통폐합이 됐어요. 방송 언론 통폐합되면서 제가 KBS에서 너무 언론 검열이 심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몸이 엄청 나빠져 쉬고 있을 때 우연히 사당동 산24번지 빈민 운동에 뛰어들어서 한5년을 그러다가 다리까지 부러지고 깡패한테 맞아서 사당 의원에 두 달을 입원한 적이 있죠.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전국 자가 붙은 조직이, 전국민민연합 이런 게 됐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할 일을 여기서 다 한 거 같다. 제 역할이 뭐였냐 하면 일반 시민, 일반 주민들하고, 학생 운동권은 학생들하고의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학생들은 이렇게 줄인 말이 있잖아요. ‘민민투’. 또 무슨 말 할 때도 동을 뜬다, 피를 뿌린다 식의 단어를 노상 쓰는데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제가 운동이나 활동가는 아닌데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운동가는 활동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본래 그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때 실천문학에 사당동 산24번지에 살고 싶다라는, 사당동 산24번지 투쟁기를 써서 발표를 하고 똑같이 그88년 호에 〈전령〉을 발표하죠. | 이 〈전령〉이 바로 청계피복과 관계된, 언제냐 하면 84년, 85년에 전두환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화 국면을 하면서, 학원 자율화 이런 걸 하면서 학생 수도 늘리고 총학생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도단을 패하고, 이정훈이 김민석이 니 이런 사람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나오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청계피복도 81년에 해산됐다가 이제 83년, 84년에 복구한다라고 하면서 합법성 쟁취 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서울 시내에서 누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바로 정경

이 달려왔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라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합법성 쟁취대회를 하는데 노학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학생회하고 연락이 돼서 처음으로, 동을 뜬다고 그러죠, 동원이 돼서 집회가 시작되는데 누가 나더러 아마 잘 보이려면 한양공고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딱 좋다는 거야. 그래서 육교에, 청계천 그리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거야.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한양공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투쟁, 1차 투쟁이 한 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정경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저쪽 다른 데서 막 동원해서 지내들도 제압하러 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야. 그래서 못 오고 있는 사이에 청계천6가, 을지로6가 이쪽으로 완전히 길이 메워진 거죠. 학생과 노동자들이 합쳐서. 저는 87년보다 그때가 더 감격스러웠어. 그 떨리는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령」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때 실천문학에 편집장이 누구냐 하면 송기원 씨였어요. 소설을 쓰는데 송기원 씨가 왜 이 작품을 좋아했냐 하면 보통 그냥 노동자 투쟁을 정면으로 다루면,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있잖아요. 가지 못한. 그런데 이거는 주인공 자신이 옆에서 보는 제삼자의 눈으로 투쟁 장면을 보고 그거를 모임에 가서 전달해야 되는 일종의 군대로 전령의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독자의 입장이 마치 전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청계피복 노조와 관련된 거는 내 등단 작품이 「전령」이라는 그거하고, 합법적 쟁취 투쟁을 다뤘다는 거. 이거는 어디서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네. 당시에 민중덕 씨가 계셔서 제가 그 자료를 얻어서 글을 썼거든요. 지금도 그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합법 속 쟁취 1차 투쟁할 때 자료가.

|

유현아 : 「전령」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작품을 읽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전태일 기념관에서 그 「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어쨌든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의 노학 연대 투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중심점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의 「전령」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뜻깊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그거는 바로 제가 연락해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1982년도에 무크지 『마산문화』를 접하고 노동 운동 취재를 위해 1989년에 연고가 없는 마산으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피 마산, 창원은 민중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산업도시로 여러 노동자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마산문화』에는 80년대 최초의 노동 소설도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마산문화』의 어떤 점에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산이라는 어떤 구심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경 : 빈민 운동을 관두고 제가 김사인 씨가 있는 노동해방문학회 회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노동해방문학이 연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서적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코너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마산문화』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놀란 거는 서울도 아닌 지방에 무크 잡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그 창간호를 보니까 노동자 여성이요, 여성이 쓴 자기네 자기 생활을 그대로 쓴 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잊혀졌어요. 근데 노예문에서 소설 분과 활동을 하면서 무슨 소설을 쓸 건가, 쓰고 싶냐, 이런 걸 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한겨레 신문에 문성현 씨 위장 취업 기사가 박스 기사로 나오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대 상대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노동자가 돼서, 더군다나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창원이라는 데 가서 일을 하고 또 구속도 되고 막 그랬다니 왜 그랬을까. 그에 관해 굉장히 호기심이 끌렸고, 거기다 『마산문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마산, 창원이라는 데가 어마무시한데로 보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노동 현장을 기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갯소리인데, 몰라서 갔을 거야 지금 알았으면 절대로 그런 호기를 부릴 수가 없었던 건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쓰겠다고 써냈는데 마침 거기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소설 분과에서 그만두면서 김한수, 다음에 이인희,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 김명환, 윤동수.) 김명환 씨, 윤동수랑 이렇게 같이 5·1문예창작단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거기서 이거를 더 심화시키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취재하러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려와서 어디가 있을 데도 없고 고속버스밖에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실 씨가 부산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남편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부산이니까 방 하나를, 방 하나가 아니지, 집 하나를 얻어 있었는데 거기 방 하나를 제가 객실구로 한 달 동안 있기로 했어. 왜냐하면 거기서 창원까지는 50분밖에 안 걸려요, 시외버스로. 아 인터뷰 하러 다니려면 그 집에서 묵는 게 낫겠다. 그때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어디 지방에 가서 자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 서울 사람들 다 그렇죠? 서울 이외에 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술하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 남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해, 그 뭐라 그래야 돼, 아주 낮은 사람을 엄청나게 안 좋아해. 그랬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정의당 대표 한여영국 씨를 비롯하여 몇 명의 통일중공업, 그때 여영국 씨가 해고자로 있을 때예요, 스물몇 살 때였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집에 와서 몇 번씩 듣는 거예요. 듣고 또 거의 외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

에 그 정도로 해서 제가 그 작품을 쓴 거예요. 쓰게 된 것도 김명환 씨가 누님이 꼭 이번에는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안재성이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 1 문예창작단에서. 왜냐하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김명환 씨가 이제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 작가들, 시인들을 만났는데 다들 조건이 안 좋았어요. 뭐 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긴 글을 쓰는 소설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만만한 게 나 밖에 없고 조건이 내가 제일 나오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도저히 쓸 자신이 없어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마산에 집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1년을 살았어요. 공장에도 찾아가야 되고 또 해고자들 많이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경상도 사투리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하나 문제냐 하면 〈그해 여름〉은 노동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주인공이 처음에, 그 제르미날처럼, 시외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공장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쪽 성장 과정을 순차적으로 구성해서 썼는데, 이것을 제가 한 번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마 노동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나는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동문학이라는 게, 소설이라는 게 구성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해야지 맨날 쓰던 대로 쓰고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한 게, 현재 87년이 나오면 한번 1장이 시작되어 나오다 갑자기 또 85년 해고됐을 때 얘기로 가는 거예요. 또 87년에 갔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엮이는 구성 방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읽을 만하면 또 다시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니까, 말하자면 몰입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누가 더 좋아했냐 하면 지식인들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소설의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

았어요. 전태문학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소설을 썼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전태일문학상을 내가 너무 과도하게 어마어마한 문학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10년 후, 100년 후에 누가 보고 전태일문학상이라는 게, 90년에 이런 소설을 쓴 작가도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유현아 :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형식을 좀 찾아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제 3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으신 이야기 잠깐 해주셨고, 그때 상을 받으셨던 작품 제목이 「함포만의 8월」로, 『그해 여름』이라는 작품집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상황하고 전태일문학상 수상이 작가 김하경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도 궁금하고 사실 여기 보면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 이성광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시상식 분위기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경 : 소설 심사위원도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박태순 씨가 계시더라고. 어쨌든 그때는 무슨 전태일문학상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문학상을 받으면 뭐 어디서 조명을 받고 뭐 인터뷰가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이가, 김명환 씨가 굉장히, 누님한테 너무 고생을 시켰는데 드릴 건 없고 했어요. 근데 사무실 어디 구석에 이런 게 있었나 봐. 이 액자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 유치한 액자나무패기. 거의 나무가 막 실록실록한 그런 액자로 된 걸 하나 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액자를 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보통 다 이렇게 상을 부상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준 사람이 없고 누님한테 처음 줬대. 어쨌든 이걸 받았는데 저희가 마음고생을 한 거는, 파업이 11쇄까지 찍었어요. 그 정도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낼 때는 91년이었는데, 89년, 90년, 91년 이 사이에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

서 사회주의권이 완전히 내려앉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간파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회주의가 몰락했대. 그래서 사회주의 되어 본 적도 없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 지식인의 제일선에 있던 사회과학 출판사 문을 닫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책이 잘 안 나간다. 뭐 이러면서 출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을 받으면 11월에 원래 발표가 되면, 1월이나 2월이면 늦어도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5월인가. 근데 그때까지도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야. 언제쯤 한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사실 작가로서는 그게 빨리 출판이 안 되면 나 그거를 집에 도로 가져가고 싶은 거야. 부끄러워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출판을 해주시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2월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김명환 씨랑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전노협 신문에 콩트를 연재하겠다. 그래서 전노협 신문 콩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콩트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를 한 편 쓰기도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노협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이번 주에서 가장 큰 투쟁의 이슈가 된 사업장을 가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녔어요. 주안, 울산,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는데 그렇게 취재를 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음 주까지 그걸 써야 되는. 그거를 그냥 투쟁기로 쓰는 게 아니라 소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콩트로.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 하면 〈해동 이네 집〉이었는데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콩트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더 힘든 거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입단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임금 투쟁이나 이런.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안재성이, 김응교 씨 뭐 이런 사람한테 제가 SOS를 쳤

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번은 내가 하겠는데 일주일에 한번은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SOS 쳐서 그렇게 낸 책이 〈호루라기〉라는 책이었어요. 내가 어느 날 책방에 가봤는데 〈호루라기〉책이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어린이책에 가 있더라고, 그 책이. 제목 자체로 어린이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였냐 하면, 해동이라는 어린아이하고 해자하고 둘이 있었는데 주인공이죠. 근데 제가 그거 쓸 때는 운동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처녀, 총각이었어요. 이십 대나 삼십 대 초. 그러니까 아직 결혼이라든지 생활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젊은 이십 대 혈기에는 나도 혁명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애를 낳고 결혼해 봐,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너무 그런 파업이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생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근데 그때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 콩트를 보면서,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그래, 라고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그 콩트를 보니까 다르더라. 근데 그거를 누가 느꼈냐 하면, 그때 전노협 위원장 하시던, 누구죠, 단병호 의장님 같은 분은 너무나 가슴에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만 가면 마누라한테 닦기던 이야기가 어쨌면 여기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길 후배들 앞에서 못 하는 거지. 지금 이 피가 끓는 친구들 앞에서 무슨 가정 얘기니, 자기 아이들 얘기니, 생활비 얘기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콩트를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간적 격차, 세월의 격차가 제가 노동 소설을 쓰면서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이분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만 언젠가 분명히 다

가울 거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 분 참 빨리도 쓰셨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구나, 라고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호루라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뭐를 하나 느꼈냐 하면 노동 문학에서는 장편보다는 장르적으로 콩트나 짧은 글이 더 어울린다. 노동자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시는 어떤 조금 다른 결이잖아요. 같은 이야기라도, 근데 콩트는 생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도 그런 거를 짧게,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지금도 한참 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다룬 콩트였는데 그게 한진중공업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손해 청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파업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모든 조합원한테 도장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손배 청구가 원래 위원장과 간부들에게만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청구가 그래서 위원장과 간부를 다들 안 하려고 그러죠. 파업이 일어나면 자기 집 재산이며 뭐 하다 못해 처가 거까지 다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손배 청구가 들어올 경우 조합원 전체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걸로 처음으로 한 게 손배 청구 소송 재판이 일어났는데 전 조합원이 다 재판정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룬 콩트가 손배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콩트야말로 소설과 노동문학에서 가장 어울리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소설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하지.

유현아 : 전태일문학상을 타셨는데 콩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그 이외에도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사랑 마창노련〉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르포 형식의 수필집으로 평가가 되는데 노동자 대투쟁과 마창노련 건설에서부터 해산까지 역사를 다룬 책인데요. 저희 전태일기념관도 거의 3년째 노동운동 구술 기록을 하고 있고 자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록하는 노동 역사에 대

해서 선생님 계속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강연도 조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기록하는 노동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김하경 : 저는 제가 그 마창노련 쓸 때 작가로서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작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개인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주로 들었는데 마창노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노동운동을 한번 돌아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눈도 굉장히 길어지죠. 말하자면 그때그때 일회 일비하고 웃고 우는 게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아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언제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여유 있게 가자. 이런 마음 이런 게 생긴 게 그 역사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쯤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쓰는 동안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우선 제일 힘들었던 게 원래 일 년 동안에 단행권 한 권을 쓰기로 했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류하고 정리하는데만, 말하자면 저한테 집에 라면 박스 100박스가 왔는데 박스를 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쿠팡도 나오고 막 운동화로 밟은 흔적, 뭐 오만 잡당한 종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인채물의 변화기야. 맨 처음에 복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각색의 종자들이 유인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여러 종류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정리하는데만 일 년을 소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건 둘째치고 정리하고 그거를 다시 자료로 해서 입력하는 작업,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일종의 백서종의 성격을 가진 다섯 권짜리의 그 분량의 단행본을 먼저 원고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일 년 동안 단행본 상하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제가 뭐 먹고 살았겠어요. 지금 보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활력

있게 문학 글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여기에 매달려서 말하자면 5년을 썩은 거야. 여기에 미쳐서 하다 보니까 건강도 망가지고 글 문장도 다 버리고, 문장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창노를 다 쓴 다음에 지역 신문에 제가 논설실장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 지역 신문사에 시민들이 만드는 신문사거든요. 경남도민일보라고. 그러니까 한 6년을 제가 거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있잖아요. 문장이 그리고 사고가 아주 바뀌는 거예요. 사유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창노련이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작가로서는 절대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맡게 된 이유는 언젠가 대하소설을 쓰리라, 노동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장편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걸 썼고 지금까지도 못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 마창노련이 저한테 대표작 아닌 대표작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 다시 문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운동하고 노동 소설 쓰고 그런 거를 전 시기라고 하면 마창노련으로 두 번째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새로운 문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00년이 딱 돼서 문학을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무슨 포스트모더니즘 하면서 막 문장도 이상해지고 내용이 이상해진 거예요. 문학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무슨 노동 소설, 무슨 루카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때 포스트모더니즘에 제일 유명한 보르헤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보르헤스 한 전집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아라비안나이트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양 소설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또 그걸 편역한 책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가 됐냐 하면 노동 소설이지만 그 앞으로 노동 문학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전망이라 그럴까요. 끊임없이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 라는 거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걸 느꼈고 다만 형식은 새로워져야 된다 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식에 관한 공부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노동문학이 김명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후일담이니 뭐 이제 노동 소설은 이제 다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게 남아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아마 유(현아) 선생님도 알 거예요. 옛날에 운동했던 사람이 지금 다 시골에 가서 뭐 하죠. 환경 운동해요. 다 시골에 가면 이장도 하고 이게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에서 이걸 안 담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아 옛날이여 이런 얘기 하나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후손한테 뭘 물려줄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다뤄, 작가들은. 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갑자기 요즘 SF로 돌아가서 난리가 나서 과거로 갔다, 미래에 갔다, 난리 치는데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내일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제가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초란〉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데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양계장을 하기로 하고 시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자가 사료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미국 서구에서 온 사료는 애네들이 장난을 쳐서 사료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좋아지려만 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자가 사료를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개발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큰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자가 사료를 해요. 그래서 그 자가 사료로 먹은 닭이 처음 낳은 계란이 초란이야. 그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저는 그거 쓰면서 엄청나게 보람을 느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게 저한테는 내일 후일담이 아닌 내일담 문학이라는 그런 거죠.

유현아 : 아까 선생님이 〈내 사랑 마창노련〉 같은 경우는 대표작 아닌 대표작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 때문에 5년을 어떤 소설 쓰는 마음도 조금 달라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내 사랑 마창노련〉이 문학에 내가 글 쓰고 있는 문학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형식이 발견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김하경 :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형식이나 이런 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해서 뭐 마술적 리얼리즘 뭐 이렇게 가지만 그러면 노동소설의 아주 본류 있잖아요. 거기다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다른 현장 쫓아다니느라고 남의 소설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프리날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프 노동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시발이 된 일본 소설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는데 〈시멘트 포대 속에 편지〉라는 아주 짭짤한 소설인데 이게 굉장한 쿨트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을 치면 전문이 나와요. 하야마 요시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바야시 타키지의 〈개공선〉을 최고로 치지만 이 〈개공선〉이 또 누구의 작품을 모델을 삼았냐 하면 바로 이 〈시멘트 포대 속에 편지〉를 쓴 하야마 요시키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요코하마까지 오는 그 석탄을 실은 배 선원들 이야기예요. 오는 과정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게 ‘바닷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선〉보다 사실은 이 소설이 훨씬, 뭐라 그럴까 진짜 생생해요. 다 자기 경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 처음 프롤레타리아 문학, 소설이 아시아 쪽에서 시작된 시발점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우리나라 파업 이런 건 너무 부끄러운 소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이 작가들은요, 이 소설 쓰는 작가들이 계속 투옥되고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들들이 굶어 죽거든요. 그리고 마누라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러

니까 우리나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각 때 무슨 혁명을 얘기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번치 않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안 변할 수 있겠어요. 부인이 도망갔는데, 애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그 다음에 계공선을 쓰는 이 작가는 스물여덟 살에 공산당 당원으로 일제 검거령 내렸을 때 잡혀가서 바로 그날 죽었잖아요.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때려줬는지 그날로 바로 죽었어요. 스물 몇 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쓴 노동 소설이 시대가 다 돼서 꼭 사회주의를 염원하면서 쓴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최신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보고 이 양쪽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지금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유현아 : 지금까지 김하경 선생님은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김하영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가 전태일문학상 30회였습니다. 2022년 30회를 맞이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경동 시인이 자기가 평생 받아보고 싶었던 상이 전태일문학상인데 못 받았다고 할 만큼 어느 한쪽에서는 전태일문학상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지금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데 전태일문학상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더불어서 지금 비정규 노동수기 공모전 심사도 하시고 해서 노동자 글쓰기와 관련된 선생님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경 : 안 그래도 그 비정규 노동 수기 심사한 지가 한 10년이 다 넘었나, 다 돼 가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노동의 질과 노동의 내용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옛날에 제조업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학벌이 좋아요. 가방끈도 길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워낙 인터넷 시대에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기록을 참 잘해. 글을 잘 써요. 우리 제조업 노동자들은 글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표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워낙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그 비정규 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자기표현들을 자유롭게 잘 하는구나 그런 거. 물론 자기 사장님이 안 보는 한에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노동자들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차별과 착취 그런 현실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안 바뀌는 거는 연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즘 노동자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그런 조직 같은 거를 잘해, 조직을 많이 만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전태일문학상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뭐 하죠, 심사를 하여튼 좀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상하게 옹모작들도 좀 이해시키고... 근데 그거를 뭐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무슨 꼭 욕심을 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형식도 좋고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내용이, 형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아까 얘기한 처럼 그 노동문학의 본질,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치열함을 가지고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1시, 2시까지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글을 좋아해서 그렇게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송경동 씨처럼 마음은 있는데 시간과 그게 허락지 않아서 못 쓰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새롭게 전태일문학상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태일문학상이 어떤 상인지, 최소한 시작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를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유현아 :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전태일문학상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전태문학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쿡트집 〈호루라기〉〈송어의 꿈〉소설집 〈숙된 인생〉〈워커바웃〉까지 김하경 선생님이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작품 안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글도 그렇게 쓰시는데 최근에 노동자의 죽음, 계속 노동자의 아픔이 드러나지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아까 김명인 선생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문학평론가 김명인 선생님은 〈워커바웃〉해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김하경의 소설은 과거의 운동 실패를 회한과 열패감으로 돌아보는 후일담 문학을 넘어 새로운 연대의 전망을 만들어낸 내일담 문학이라고 쓰셨거든요. 삶이 변하고 있지만 비슷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인데 노동문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덧붙여서 노동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요새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 문학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경 : 노동 문학에 관한 거는 짧게 한마디 할게요. 전부터 제가 그랬는데 그 문학 앞에 붙이는 수사 있잖아요. 노동 문학 무슨 민중 문학 무슨 농민 문학 이렇게 앞에 붙이는 그 글자를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거든요. 제가 노동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고요. 그 소설의 무대가 제조업 현장일 뿐이고 파업 현장이거나 또 사회 투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좀 붙여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협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소설가라는 말을 안 붙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노동 소설, 노동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현아 : 혹시 요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하경 :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있긴 있는데, 지금도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 주에 가장 굉장한 투쟁이 있거나 무슨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기록하고 남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군지는 내가 몰라. 참 세상이나 이런 데는 가끔씩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5 1 문예창작단 맨 처음 낼 때도 저의 꿈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같이 공동 창작하고 이름은 5 1 문예창작단 이름으로 낸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 김하경 이름으로 해서 내는 거, 자본주의 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지향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동창작단 안에 있는 작가들의 어떤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조건이 비슷해야 돼. 근데 조건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조건에 지금 생존권에 시달리는 작가가 있고 여유가 있는 작가가 있으면 맨날 이 여유 있는 작가가 써야 되는 거야.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작가들이 모여서 공동 창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한때는 우리가 그런 걸 꿈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친구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안 내고 다른 이름을 낸다는, 이런 숨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인터넷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

요. 어디에 응모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직접 발표하는 거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
유현아 :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노동자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노동자와 작가의 연대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김하경 : 전에는 노동자가 곧 작가가 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또 없어졌는데 요즘은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글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뭐 지식인이나 노동자나 그런 차이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인터넷 때문에 모든 그런 게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가라는 건 다 그거잖아. 지식을 자기가 독점했고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문열의 소설을 읽으면 상식이 늘어 막 이러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문열의 소설에 나오는 상식은 이제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작가가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 자기가 우쭐할 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에 노동자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고 지식인이나 노동자 이런 단어조차 아마 없어질 거예요.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아요.

|
유현아 :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태일문학상 30회예요. 30회를 하는데 혹시 전태일문학상 30회를 축하하면서 전태일문학상 수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김하경 : 아니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7년 투쟁을 겪고 난 뒤에 노동자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제가, 87년 투쟁을 겪고 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작업복을 안 입고 돌아다녔대. 퇴근하면 작업복을 벗고 민간 사복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고 아가씨를 만날 때도 그렇게 나갔는데 87년 투쟁 이후로 오히려 작

업복을 다림질해서 그걸 입고 나간대. 그러면 아가씨가 거기 엄청나게 회사 노조 싸움한 거 신문에 났더라. 그럼 자기가 막 우쭐해서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 그게 이제 달라진 세상의 표본이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누가 저를 좀 업신여기면서 좀 뭐라 그럴까, 우습게 보는 대접을 받아서 제가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전태일문학상 받은 여자예요,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얼척이 없어서 아니 전태일문학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나는 최소한 이런 사람인데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라는 뜻이었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지만, 전태일문학상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 글을 쓸 때 응모할 때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될지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쓰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마산에 내려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재할 때도 남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취재를 하는 식으로. 그 소설을 한 번 전태일문학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자기 열정과 자기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야 하지 않겠나 라는 거죠. 전 앞으로 응모하는 분들도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30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힘이 약해지고 뭐라 그럴까,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자부심이 없어졌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걸 좀 갖고 살고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유현아 :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김하경 : 그거는 제가 큰소리 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유현아 :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노동자의 편에서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설가 김

하경 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김하경 : 전태일문학상이 30년이나 됐다니 참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 오래오래 이 상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유현아 : 네 여기까지 김하경 선생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태일문학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태일문학상과 전태일 기념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하경 : 네. 감사합니다. ●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어느 골목길' 부분.

© (Suryuanbang) Lee Jheeyung

[2]

어느 골목길

노동조합 사무실이 활성화되었던 70,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골목길을 현대적인 뉴트로 포토존 형식으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전시의 메인 공간인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을 통과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시대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도입부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박광수 감독의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공간, 특히 식당과 골목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손수 작화로 제작된 영화 소품용 간판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실제 사용되었던 간판을 배치하여, 1970년대 성업했던 식품 사업과 1980년대 동네의 길거리를 정겹고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가슴속에 저항과 반항의 씨앗을 뿌린 청년 노동자 전태일 정신을 다양하게 재조명하기 위해서 식물들과 함께 구성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운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실 공간이 들여다보이는 창문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관람객(나)의 시선이 어떠한지 자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사무실 소품들을 단서로 삼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 (Suryuanbang) Lee Jheeyung



© [Suryuanbang] Lee Jheeyung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어느 골목길' 왼쪽.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어느 골목길' 오른쪽.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 — 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① 노조 사무실(부분).

© (Suryuanbang) Lee Jheeyung

[3]

마음 잇기 — 사랑과 평화로

이 공간은 70, 80년대 노동조합 사무실을 모티프로, 관람객들이 당시 노조 사무실의 분위기를 격식 없으면서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미션형 전시 공간입니다. B-2 앞에 배치된 바보회[전태일은 1969년에 노동운동 단체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보회라는 이름은 노동자들이 바보처럼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모습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습니다.] 명함으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서랍이나 캐비닛에 적힌 이번 전시에 관련된 6개의 퀴즈를 맞춰 보고, 글자도장을 발견해 명함에 새겨 전시 제목 <30+1 : 떠오르도록>을 완성해 주세요. 이 퀴즈 미션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된 노동환경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흐려진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색감의 기다란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있는 문서실에서는 마치 며칠 전에 쓴 듯 생동감 넘치는 필기체로 적은 문서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밤낮없이 투쟁하며 생활한 흔적을 보여주는 후생 식당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대자보와 글씨 모빌이 전시된 '우리들의 요구' 구간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구간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풀뿌리 정신을 상징하는 식물과 마음 잇기(연대)를 상징하는 색실을 주요 오브제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애가 넘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리즘 창문 시트지에 비친 다양한 색감의 식물들과 나무 박스에 담긴 여러 색상의 실타래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소중한 피드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Suryuanbang) Lee Jheeyung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①노조 사무실.

© [Suryusanbang] Lee Jheeyung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②후생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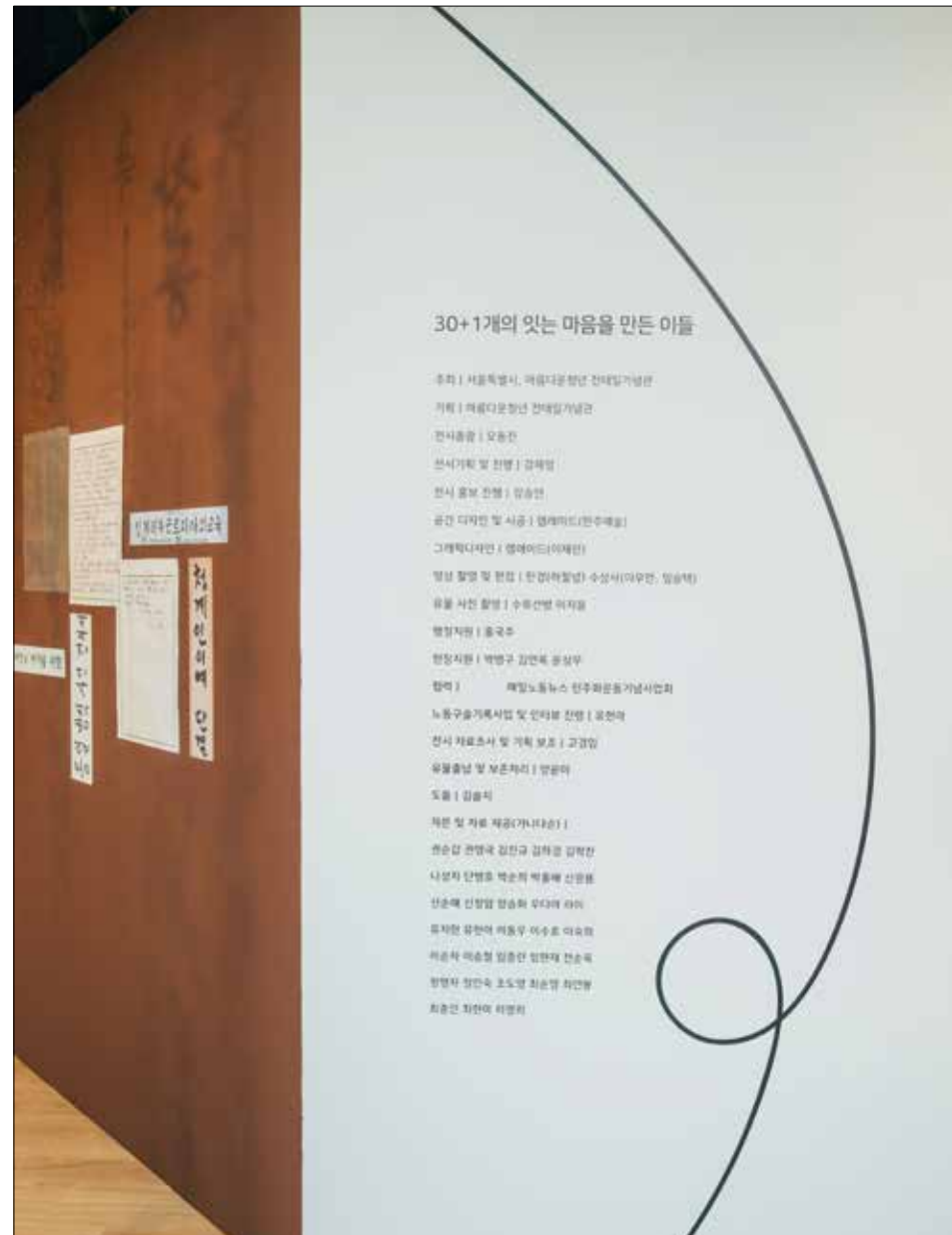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④문서실.

© (Suryusanbang) Lee Jheeyoung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③우리들의 요구.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시 중 '마음 잇기—사랑과 평화로' 부분 중 ③우리들의 요구(부분).

[T-5]

전태일과 최명아

노동자의 글쓰기

[T-5-0] 80년대 아닌데요 [T-5-1] 네 이름은 무엇이냐 [T-5-2] 사라지는 것은 없다

〔김해자〕

김해자 | 1962년 전남 신안 출생,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조립공과 미싱사 학습지 배달, 학원 강사 등을 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글을 쓰다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 시집 『무화과無花果는 없다』 『축제』 『집에 가자』 『해자네 점집』 『해피랜드』 등을 발간했고, 민중 구술집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세이집 『내가 만난 사람들 모두 다 이상했다』와 『위대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평 에세이 『시의 눈, 별레의 눈』 등을 펴냈다. 전태일문학상, 백석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만해문학상, 구상문학상, 난설헌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C][T-5] 전태일과 최명아 [김해자]

[T-5-0]

80년대 아녜요

한 집 건너 지하공장

미싱 소리 드르륵대던 곳

사철 시꺼먼 하늘만 내려앉던 청천동

십자약국 골목 파란 대문

빨간 닭장집 안 녹색 부엌문

방문 벽에 걸린 푸른 작업복

왼편에 하얀명찰 생산2과 김정례

앞은뱅이 책상 앞에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문」

옆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 안에 쓰다만 편지

"공부 열심히 해. 돈 걱정 말고 누나만 믿어라"

방문턱에 걸린 두 발

부엌 바닥에 늘어뜨린 긴 머리칼

아궁이에 타다만 연탄

잠긴 문 바라보다 멈춘

반쯤 열린 눈

밖에 하얀 눈

[김해자, 「승천」, 『축제』(애지, 2007)]

143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C)(T-5) 전태일과 최명아 (김해자)

142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80년대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시를 발표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정희성 시인이 하신 말씀이다. “80년대 아닌데요, 그건 90년대 후반 실화입니다.” 답했더니,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한다. 전태일이 거리에서 분신한 지 50년이 되었어도, 그가 품에 안고 다니다 불을 질렀던 책, 「근로 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52시간도 모자라다고, 게으르다고, 더 늘려야 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트럭 안에서 두어 시간 쪽잠 자며 아슬아슬하게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호소에 강제 명령으로 대응한다. 집계도 안 되는 산재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는 오늘 이 시간, 노동자 전태일과 인간 전태일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T-5-1]

네 이름은 무엇이나

20년 전 전국 노동자 대회〔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의 기일인 11월 13일 전후에 개최되는 집회로 198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에서 딸아이가 이소선 어머니께서 주시는 상패를 받았다. 이름하여 ‘어린이 전태일’, 어린이를 위한 전태일 평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 (사계절, 1996) 독후감 우수상이다. 딸아이 손 잡고 껴안고 나서 셋이서 포옹했다. 딸아이는 전태일 아버지 전상수씨와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마치 이모나 삼촌 부르듯 했다. 이소선이가 시장에서 배추잎을 주워서 죽을 끓였다거나, 거리에서 전태일이 순덕이를 잃어버렸다거나, 전상수 씨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곤 했다. 가까이에서 오래 보면 과거 속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법이니까. 초등학교 50번 이상 『청년 노동자 전태일』을 읽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어른용 전태일(『전태일 평전』(돌베개, 1991))까지 보게 된 이상스런 독서 습관에는 개인 특성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연도 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0년 여름, 극단 〈한강〉 팀원들과 나는 집단 창작극 〈전태일〉을 만들기 위해 경북 성주에 있는 폐교에서 한 달여 합숙했다.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된 딸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기에 딸아이도 함께였다. 창작자이기도 한 배우들과 날마다 몸 풀고 장면 만들고 시연해보고 토론하는 동안, 어린 딸아가 들은 전태일이란 이름은 하루에서 수백 수천 번은 되었겠다. 빼걱대는 폐교 마룻장에 텐트를 치고 잠든 배우들의 입에서 잠꼬대처럼 전태일이 들렸을지도 모른다. 껌 팔고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다 매 맞는 어린 전태일도, 재단사 전태일도, 삼각산에서 돌 지고 나르는 전태일도, 수많은 이름 중에 기억하기에도 좋은, 재단사 모임 바보회를 만든 전태일도, 분신한 전태일도 연극으로 보였겠다. 노래극이 만들어지는 동안 배우들은 ‘전태일 1’, ‘전태일 2’, ‘전태일 3’, ‘전태일 5’, ‘전태일 6’으로 불렸고, ‘시다 1’과 ‘시다 2’와 ‘미싱사 1’과 ‘미싱사 2’와 ‘미싱사 3’으로 불렸다. 나이도 제일 많았고, 봉제 공장에서 시다 미싱사 일을 해본 사람이 나 말곤 없었기에, 자주 80년대와 90년 중반까지 다니던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는 나와 내 옆에 있는 미싱사와 시다들을 불러와야 했다. 기억 투쟁이었다. 그것만으로 당연히 모자랐다. 70년대 자료들도 자료일 뿐이어서, 전태일과 비슷한 시기에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청계피복노조도 만들고 고초도 함께 겪은 미싱사 언니한테 전화하고 찾아가 인터뷰도 했다.

“열두 살에 시다가 됐어. 아침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만원버스에 시달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닭장 같은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햇볕 한 번 못 보고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밤까지 일을 해. 도시락을 까면 밥을 먹는 중에도 색색 먼지가 앉아. 작업장이 먼지 구덩이거든. 하루 열다섯 시간씩 일하고 받은 첫 월급이 500원. 집에 가도 쌀 한 톨 없으니 일이 고되어도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어.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서 이런 데서 어떻게 일해요, 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게 배부른 소리였어. 몸이 고된 것보다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건 화장실이야. 한번 일을 보려면 30분씩 기다려야 돼. 재수 좋으면 30명이고 평소에는 40~50명이 서 있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거지. 굶어 가며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일하니 자다가도 밤에 서너 번씩 쥐가 나는 거야. 그때는 어떡할지 모르고 너무 아프니까 울고불고 했어. 나 땀에 엄마가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아파도 엄마한테 한 번도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란 말이 안 나와. 그 말을 못 하겠어. 여러 식구가 함께 사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집이 지옥이었는데도 엄마 때문에 감히 가출할 생각도 못 했어. 내가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던 거지.”

순애 언니는 말했다. 공장 다녀도 밥 굶긴 마찬가지였다고. 점심 도시락은 싸 갈 수 있을 때는 싸 가고, 못 싸 갈 형편이면 내리 굶었고, 배고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감각이 둔해져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퇴근해서 집에 가도 수제비 얻어먹기도 쉽지 않았다고. 식구들이 많으니 남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잤다고. “차비 아끼려고 5원씩 모으면서도 내 입에 뭔가를 채울 생각도 못 했”다고. 일 끝나고 동대문 고려제과 빵집 앞을 지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맛있게 나는지, 그 빵 한 번 사

먹어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나중에 폐병 걸리고 나니 그 빵 한 번 못 먹어 보고 내가 몹쓸 병에 걸렸구나 싶으니 눈물이 났”다는 언니는 전태일을 알게 된 자신을 ‘행운아’라 했다.

“공순이들이 뼈 빠지게 일하다 결핵 걸리면 죽는 거지, 어디 약을 먹어. 친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죽었어. 그 전엔 나는 덕 없고 복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학대하고 살았어. 근데 노조를 알면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어. 병어리처럼 말도 안 하고 팔자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았잖아.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공순이니까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당연하다고 살았잖아. 죽을 수 없으니까 사는 거고, 팔자가 그렇게 타고 났으니까 사는 거야. 지옥이 지옥인 줄 몰랐어. 나는 지옥 같은 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것 몰랐어. 전태일이 어린 여공들한테 풀빵을 사주고 창동까지 걸어다녔는데, 나도 똑같이 중랑교까지 걸어다니면서도 감히 그런 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거야. 그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꿈을 일깨워준 거지. 죽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큰 스승이 된 거야.”

연극을 만들며 나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전태일이 일기와 편지를 쓰지 않았어도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그리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었겠는지. 그의 삶과 고투와 죽음이 그 만큼의 무게로 시대를 초월해 딸아이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고. 바꾸려면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순애 언니의 육성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기록들은

2012년 민중 구술집 『당신을 사랑합니다』(삶창, 2012)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삶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고 책이 된다. 노동자들은 몸을 쓰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문서만 다룬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나는 기록 투쟁이 끊어진 다리를 잇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 지금 생각하면 어린 딸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 어린 것이 또래 친구도 없이 어찌 한 달을 버텼을까. 2000년 어린이에게 연극처럼 보이는, “네 이름은 무엇이냐” 묻고, 모두가 “내 이름은 전태일이다” 답하는 과거 전태일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비춰졌을까.

[T-5-2]

사라지는 것은 없다

IMF 직후 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지인 최명아를 잃었다. 온갖 고초를 겪고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매번 진심으로 여겨지는 김대중이 대통령ی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빗쟁이가 되었다. 국가 부도라는 빌미로, 노동 유연화니 뭐니 해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노사정 협상이 이뤄지던 날, 노동자는 노동자의 적이 되었다. 각목으로 깨진 민주노총 창을 통해 찬 바람이 몰아쳤다. 사무실로 향의하는 노동자들의 전화가 폭주했고, 조직 부장 최명아는 그것을 직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받는 전화마다 욕지기가 반이었고 죄송하다고, 우리 힘이 그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고, 최선을 다해 부당 해고는 줄여 보자고, 죄인처럼 전화기에 대고 머리를 조아렸을 게다. 그러던 중 최명아는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이 떨어졌나 싶어서 잠시 짬을 내어

종로에 있는 공안과에 들렀다 전화 한 통 하고 쓰러졌다.

최명아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뇌사에 빠진 한 달 동안, 통통 부은 작업복들이 중환자실 복도를 가득 메웠다. 울산 부산 마산 창원 광주 목포 제주 거제도에서 밤새 구겨진 작업복들과 종종거리며 달려온 맞교대 작업화들과 공단 담장 너머 쿨룩대는 고단한 기계 소리와 해진 작업복 스쳐가는 바람의 갈피마다 눈물이 배어 들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던 노동 운동가 최명아는 한 번 감은 눈 다시 뜨지 못했다.

장례식을 치른 뒤 줄지에 떠나간 최명아 동지를 기리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동료들도 친구들도 동지들도 한마음이었다. 사진과 글을 모았다. 삶 전체를 보여 주는 다소 긴 글은 마침 최명아와 일도 같이 한 적 있는, 소설가 방현석이 쓰기로 했다. 자료가 다 모아지기 열흘 전인가, 방현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저히 못 쓰겠다고, 나더러 쓰라고 부탁했다. 심정이 이해가 갔으나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였다는 이유로 나는 쓴 잔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리얼한 투쟁사를 써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동지들은 수기보다는 소설적 질감의 문학적 글을 주문했다. 며칠 고민하다 사흘이 흘렀다.

내가 지닌 최명아 일기와, 1년 전 무량사 앞에서 둘이 찍은 사진을 옆에 두고, ‘닥터 마리오’ 게임을 했다. 약으로 만든 테트리스였다. 빨간약 노란약 파란약 캡슐이 밤

새 쌀이고 한 줄도 못 썼는데 창밖이 희뽀해졌다. 그렇게 사흘 밤을 흘려보낸 아침 닥터마리오 게임을 삭제하고 「최명아」를 쓰기 시작했다. 최명아가 죽기 달포 전에 민주노총에 들러 IMF와 관련된 노동자들 자료를 받고, 밥과 술을 마시고 전철을 타고 눈 쌓인 미아리를 지나 자취방에 가서 우리가 마신 술의 방울 수만큼 많은 이야기를 새벽까지 주고받던 최명아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프레스 밟고 실밥을 따고 미싱을 밟고 나무에 뺨빠질(사포질)하고 목재 공장에서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인천노동자협회를 만들고 민주노총에 들어가 전국을 쏘다니며 노동자를 만나던 최명아가 영화처럼 상영되었다. 소설 「최명아」의 부제이기도 한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그렇게 남은 사흘 만에 써졌고 그 해 ‘전태일문학상’을 받았다.〔김해자는 1998년 제8회 전태일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6년 후에 나도 최명아와 똑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다. 뇌출혈이었고 터진 부위조차 똑같은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6년 전 최명아가 쓰러지기 직전의 고통을 상상하면서 썼는데, 똑같았다. 군화발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 총부리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내가 한 줄기 바람이었다면 단 몇 잎의 풀이라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는가? 아, 내가 한 방울의 물이었다면 다만 얼마의 땅이라도 적시긴 했는가?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오래오래 어루만지고 쓰다듬는다. 내가 걸었던 수많은 갈래길에 작별을 한다. 빛이 오는 곳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 내가 점점 작아진다. 어릴 적 발목이 빠지면서 걸었던 고향 고샅길을 지나니 키 큰 은행나무가 보인다. 모란잎이 하나둘 얼굴 내미는 마당 어귀를 지나 사랑방 마루에 앉아 있는 엄마 품에

안긴다. 참 따스하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투명한 빛이 쏟아진다. 블랙홀처럼 소용돌이치는 빛 한가운데로 내가 끌려 간다. 아, 저만치 보이는 붉은 꽃나무, 빛의 바다.”〔김해자, 「최명아」(1998)〕

이런 인연으로 전태일문학상 심사도 열 번쯤 한 것 같다. 주로 르포였고 가끔은 시였다. 심사를 맡긴 관계자들의 눈이 날카롭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생한 기록을 좋아하니까. 시 보고 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큐를 보다 자주 눈물이 흐르니까. 주로 시를 쓰지만 내 시는 르포에 가까우니까. 전태일 이름이 붙은 상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 알아주지 않아도, 청탁이 안 와도, 스스로와 나보다 뼈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를 바란다. 내가 썼으면 하는 노동자들이 글 쓸 시간도 여유와 조건도 안 되니,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써 왔는지도 모르겠다.

전태일이 간 지 50년이 지났다. 최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 혹은 폭도로 매도되는 데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망했다. 율화증도 심해진다.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짓밟고 강제 명령을 하는 시대에 전태일이란 무엇인가. 딸아이와 함께 20년 전 만들어진 연극 〈전태일〉이, 2021년에 다시 만들어지고 2년째 순회 중이다. 연극 부제목처럼 ‘네 이름은 무엇이야’ 묻고, ‘내 이름은 전태일이다’ 답한다. 공장이 많은 인천의 옛 이름이 어진내인 것처럼, 만인에게 삶이 어진 세상이기를 바라지만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떠나간 자리에 누가 누군가 머리채 잡혀 끌려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쓴다.

지금도 청천동 콘크리트 건물 밖에는 플러그 뽑힌 채 장대비에 젖고 있는 도요타
미파 브라더 싱가미싱들이 서 있죠 나오다 안 나오다 끝내 끊긴 황달 든 월급봉투
들 무짚지와 미역냉국으로 빈 배 채우고 있어요 얼어붙은 시래기 걸려 있는 담 끼
고 굶이도는 골목 끝, 아득하고 고운 옛날, 어진내라 불리던 인천 갈산동 그 쪽방에
는 연탄보다 번개탄을 더 많이 사는 소녀가 살고 있네요 야근 마치고 돌아오면 늘
먼저 잠들어 있는 연탄불 활활 타오르기 전 뚝아떨어지는 등 굶은 한뼘잠

배추밭에 배추나비 한가로이 노닐던 가정동 슬라브집 문간방에는 사흘 걸러 켜어
터지던 붉은 해당화가 울고 있어요 지금도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듣지 않으려 귀
막고 이불 속에 숨어 있다 저도 몰래 뛰쳐나가 패대기쳐진 여인과 아이와 한 덩어
리 된 어린 여자 눈물방울이 아직도 흙바닥에 뒹굴고 있을까

교도소가 마주 보이던 학익동 모퉁이 키 낮은 집 흙벽 아궁이가 있던 옛 부엌엔 전
단지 속 휘갈긴 어린 해고자 메모 ‘배가 고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애호박
몇 조각 둥둥 떠다니는 밀가루 죽이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효성동 송현동 송
림동 바람 몰아치던 주안 언덕배기 그 작고 낮은 닭장집 창문마다 한밤중이면 하나
둘 새어나오는 쓸쓸하고 낮고 따스한 불빛

이상하기도 하죠 스무 해 전에 도망쳐 왔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있다니

내가 떠나온 그곳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니요
푸른 작업복에 떨어지는 핏방울
아직도 머리채 잡혀 끌려가고 있다니
앞으로 달려온 줄만 알았는데
제자리에 선 뒤통박질이었다니요
[김해자, 「어진내에 두고 온 나」, 『집에 가자』(삶창, 2015)]

[T-6]

젊은 시인들의 시

[T-6-1] 우리는 서로를 펼치고 [권민경]

[T-6-2]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 [김현]

[T-6-3] 불에 대해 말하지 않기 말하기 [박소란]

[T-6-4] 이어지는 사람 [손미]

[T-6-5] 노란 봉투 [신철규]

[T-6-6] 엘레나와 유코가 어느 소설 속에서 [양안다]

[T-6-7] 이런 지구—이감 [육호수]

[T-6-8] 전망 [최지인]

〔T-6-1〕

우리는 서로를 펼치고

〔권민경〕

주민들이 기지를 발휘해 투신하는 사람을 구했다
이불을 펼치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다
겨울밤의 솜이불 어디든 갈 수 있던 상상의 무대
이불은 무한한 가능성
우주 우주는 자꾸만 펼쳐지고 접힐 줄을 모르고
언젠가 구겨질 테지만 그땐 내가 없으니 알바 아니다
펼 수 있을 때 최대한 멀리 가기
이불을 털다 추락한 주부의 소식도 듣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
우주도, 우주도야! 운명 공동체야!
우주는 여기 있어. 엄마는 집에 갈 거야.
집엔 늘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위엔 고양이
언니와 각자 무거운 이불의 귀퉁이를 잡고 맞대던
개켜진 어린 기억
삶의 끝자락이 서로 닿아 있다
고양이 엉덩이 팡팡 때리기

우리는 서로의 우주를 잡고 포개며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우리가 되는 세계

가능성을 덮고

권민경 |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
요』 『꿈을 꾸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었다』가 있다.

[T-6-2]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

[김현]

이라는 제목은
이소연 시인이 쓴 글을 보고 적은 것이다

그 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나뭇잎이 후두두 떨어져 내리지만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은 쓰여 있지 않다

그 글은
10.29 참사를 몸으로 앓으면서 쓰였다
이렇게

“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낫달같이 몸져누웠다.”

그 글은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304낭독회 99번째 자리에서 읽혔다

어제 대통령실에선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

슬픔이 그 자체로 정치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수많은 시인이
슬픔을 시에 활용하겠는가

그 글에서 한 사람이 시인에게 묻는다

“시인이 생각하는 법이 궁금해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시인은 후두두
떠오르지 않는 나뭇잎을 보면서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리니

그래서 나는
달력을 넘기다 말고
시간의 부드러운 융단에 떨어진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을 주워 집으로 가면서
 오래되었다고 넘겼다
 |
 사람처럼
 |
 어제 나는 한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끝난 거래요
 태아 자세로 웅크려야 된대요
 그거 봤어요
 이태원 참사 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
 진짜 쓰레기들 아니에요
 |
 물방울처럼
 |
 그 글에서 시인은
 단 한 사람 잃을 준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 생각한다
 시인의 머리에서 어깨에서

가슴에서, 저 끝에서
 무릎에서 발등에서 떠오른 것이다
 |
 나뭇잎처럼
 |
 |

김현 | 2009년 계간『작가세계』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낮의 해변에서 혼자』, 산문집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당신의 자리를 비워둘게요』(공저)가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T-6-3]
불에 대해 말하지 않기 말하기
[박소란]

캠캉한 복도
센서 등이 감지하지 못한 나를
그 자리 그대로 세워 둔다
꼭 벌받는 것 같아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데 두 손을 모아 쥐는데
벌써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불은 단호하다
불 앞에 선 사람들과 불 속에 재가 된 한 사람
불타다, 라는 말의 얼어붙은 뜨거움
불에 대해
더는 아는 체 말아달라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입을 다무시오

가스레인지가 평-하고 꺼진다
빨강은 여지없이 검정이 되는 것
밤은 날마다 조금씩 스며 지옥을 일구는 것
미지근한 국을 한 그릇 폰 다음 후루룩 마시고
잠자리에 들 때면
등이 시리더라 어쩐지 자주 가슴이 아프더라
누군가 아직 바깥에서 있는 것 같아
애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말할 수 없다
겨울밤이 너무 길다고
전원을 누르면,
전원을 누르면,
보일러가 돌고 온수가 흐르고
열증을 앓는 꿈처럼

애야, 황급히 문을 열면
성난 보일러가 더 세계 더 크게 돌고

박소란 | 2009년 『문학수첩』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 『한 사람의 닫힌 문』 『있다』
가있다.

[T-6-4]
이어지는 사람
[손미]

2021년엔 죽어 있었음
아무 것도 안 썼음
기록 없음

폭우가 창문을 열고 내 뱃속으로 떨어졌음

아버지는 소마취제를 구하려다 실패했음
소마취제는 조금만 투여해도 죽을 수 있음

아픈 건 싫음
제 목숨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사람

나에게 다정해줘
안그럼 죽어버릴 거야

태어나려는 뱃속 빗방울과
죽으려는 사람이 한 식탁에서 고기를 먹고 있음

오래 전부터 죽는다던 사람이 죽지 않고 있음

그런 생각은 옳을 수 있음

대대로 이어짐

강에 아기를 던졌음

나를 던졌음

2

괴롭히는 사람은 언제부터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마취된 소는 내 뱃속으로 떨어졌음

나에게 다정해줘

안그럼 죽어버릴 거야

아무도 구할 수 없음

움직일 수 없음

뱃속에서 동그라미는 팔 다리가 생김

사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아무도 구할 수 없음

사람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손미 | 대전에서 태어나, 200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양파 공동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삼화맨션』, 산문집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가 있다. 제32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T-6-5]

노란 봉투

[신철규]

야간 근무 시간에 두 명이서 한 조로 작업하게 해주세요
피로에 지쳐 하나가 잠들어도 기계에 사람이 끼이지 않게
펼 펼 꿇는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지 않게

컨베이어 벨트를 잠시만 멈춰주세요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손해 배상 청구서가 날아온다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에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기에

당신은 나의 자본을 잠식했습니다
일할 시간에 공장을 멈췄기에

당신은 기계를 녹슬게 했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당신의 입을 막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당신의 손발을 꿇습니다
공장의 기계와 무관한
이윤 창출과 무관한
땀과 피를 손발에 묻혔기 때문에

당신의 통장을 폐쇄합니다
더 이상 거기엔 쥐구멍만큼 작은 별도 비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서,
손발 잘리고 입 없는 몸으로 굴러오세요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오는 당신의 몸을 잘 포장해서
고객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노랗게 질린 하늘이 당신의 머리 위에 떠 있을 겁니다

신철규 | 1980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심장보다 높이』가 있다.

[T-6-6]

엘레나와 유코가 어느 소설 속에서

[양안다]

엘레나는 한 번 더, 그러나 전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도망가자, 유코.”

갑작스러운 고백에 작은 키 유코는 엘레나를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터지면 입밖으로 쏟아지는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유코는 제대로 서 있기도 버거웠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흰 담장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 사이 자전거를 탄 학생이 지나갔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손에 쥐고 달려갔다. 어디선가 날아온 오색 비눗방울이 흰 담장과 골목을 가득 채웠다. 비눗방울 하나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어느 연인에게로 날아갔다. 연인은 그 비눗방울을 사랑의 은유로 생각하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사라지는 행인들. 떨어지는 발소리.

잠깐 시간이 멈췄던 걸까.

유코는 갑자기 모든 걸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흰 담장 구석의 낙서.

축늘어진 가지에 목련이 피어 있고

텅 빈 거리와 정적, 그리고 떨고 있는 엘레나의 입술…… 그 입술은 유코를 조금 슬프게, 그러나 많이 기쁘게 만들었는데, 엘레나, 이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해야 하는구나, 우리,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유코는 깨달은 것이다.

작은 키 유코는 대답 대신 엘레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한 번 더, 그러나 전보다 확신에 찬 표정으로 엘레나를 올려다보았다. 둘은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웃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유코는 숨이 찬 표정이었는데 아마도 어느 해변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엘레나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 멀리 도망가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엘레나는 유코의 손목을 붙잡고 달렸다. 텅 빈 거리에서 도심으로, 도심에서 대성당을 향해. 유코는 얼굴에 닿는 바람의 결을 하나하나 느끼려 애썼다. 앞서 달리는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달리면 달릴수록 엘레나의 뒷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총구가 빠르게 끄덕이고 있었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무슨 소설 읽어?”

어느새 그 아이가 어깨에 기대어 있다.

“줄려 보여.”

그 아이는 나의 뒷목을 쓸어내렸다. 나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만 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마지막으로 잠든 게 언제였지.

“날 사랑해?”

그 아이가 나에게 사랑이라는 걸 묻는다.

나는 그런 건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응.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속는다.

양안다 | 201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작은 미래의 책』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 『세계의 끝에서 우리는』 『숲의 소실점을 향해』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가 있다. 창작동인 ‘빨’로 활동중이다.

[T-6-7]

이런 지구

— 이감

[육호수]

소중한 사람들이

꿈에서 자꾸 죽는다

동생이 죽고, 애인이 죽고 엄마가 죽고, 친구가 죽고, 네가 죽고

내게 허락된 마지막 장면까지

혼자 꿈에 남아 있었지

꿈이지만 꿈이었음 좋겠다고 생각했어

널 다시 만나려면 여기보다 더 깊은 꿈으로 가야 하는 걸까

생각했어

꿈에서 깨면 이곳은

너를 잃지 않은 세계

꿈보다 해상도 높은 꿈

내가 살아있는

꿈보다 깊은 세계

어떤 혼자가
이 빛을 다 만들었을까
|
이야기의 처음은 기억에 없고
이야기의 끝만 생각나
머리맡에 남아 있는 너의 끝
너의 끝을 보고 있던 나의 끝
|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한 꿈에서
너와 나는 어떻게 웃고 있었지
|
끝나지 않은 어떤 생각에 대한 생각
|
네게 어떤 꿈이었는지 이야기해 줘
그럼 내가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
잠으로 지운 어떤 잠에 대한 생각

육호수 |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 시 부문에, 2022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시집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가 있다.

[T-6-8]
전망
[최지인]

일벌이 조화(造花) 사이를 헤매고 있다.
|
외삼촌은 겨우 스무 살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일 년 전에는 외할아버지가
차에 치여 죽었다.
|
아버지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얼마 동안 금주했다. 병실에 잠든 아버지가 중얼거
렸다. 잘못했다고,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아버지 곁에 앉아 한쪽 눈을
가렸다.
|
모래사장에 앉아 길게 뻗은 대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찰나의 기쁨과 오래
된 슬픔이 파도에 일렁였다.
|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
나이 든 여성이 더 나이 든 여성을 돌보고 있다. 고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할머니가
이마를 찡었다. 피가 나고 흑이 났다. 하필 왜 내가 없을 때 그랬어. 고모는 울다가
식구들에게 할머니를 맡기고 산에 갔다.

어머니, 송편 드세요. 내일이 추석이에요.

멧돼지가 선산 무덤을 파헤쳤다. 할아버지는 죽어서 불에 들기 싫다고 했다. 가묘
를 쓰고 조금 더 살았다. 가는 길에 버섯을 따다 깨끗이 씻어 채반에 말렸다.

철판에 쓴 녹을 벗겨내고

마당에 둘러앉아 갸름해지도록 먹고 마셨다. 어느 사이에 나는 어미도 없고 아버
도 없고 홀로 나서 주택가를 산책했다. 이렇게밖에 못 살고 죽나. 삶이 이렇구나.
밤이 말했다. 입이 쓰다.

어린 부부는 세 살배기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다. 아이가 울타리를 붙잡고 섰다. 그
날 사진을 보면 죄다 빈 우리다. 고동색 코듀로이 바지를 입은 사내가 아이를 바라
보고 있다.

세월이 지나고 다 까먹었다.

엄마가 탄 밥을 먹었다.

저번 봄에 심은 옥수수 낱알들이 비닐하우스 바닥에 널려 있었다.

최지인 | 2013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10회 조영관 문학창작기금을 수
혜하고 제40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동인 시
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다. 창작 동인 ‘빨’과 창작 집단 ‘unlook’에서 활동 중이다.

특별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전태일노동상이 30주년을 맞습니다. 토성(saturn)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세월입니다. 토
성은 가혹한 시련을 딛고 일어서며 성숙하는 책임감을, 수행해야 할 공평한 과제를 상징하니,
30년을 성인이 되는 기간, 한 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태일 정신이
다시 떠오르도록, 노동의 가치가 다시 떠오르도록, 마음을 모으는 사이에 여명, 새벽별(금성),
일출, 하늘 등을 줄기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사람-노동자들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
는 투쟁을 상징하는 물건에 착안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0년 동안 전태일 노동상
을 수상하게 한 사건과 관련된 장소, 그 장소의 일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투쟁과 사건의
특정한 장소성에 집중한 이 작업도 토성의 과제가 된 셈입니다. 30년간의 사건들, 총 46군데의
현장과 전태일기념관을 포함해서 47개 장소의 일출을 기록했습니다. 47군데 각 장소의 일출이
자, 47일의 일출들을 겹쳐서 하나의 대형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전태일기념관 전시실 큰 벽,
동대문 평화시장 방향, 해 솟는 동쪽 벽에 1장의 대형 작품을 걸고, 30년 간 수상 장소들의 기록
46점을 양쪽 진열장 위에 작게 15년치씩 전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떠오르도록〉[수류산방 + 이지웅]

[D]



© [Suryuanhang] Lee Jheeryung

2022 특별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연대를 잇는 연대' 전시 전경. 한 벽면을 가득 메운 <떠오르도록>.



전시장의 조명이 꺼지고 그간의 기록들도 어둠 속에 회미해진 시간. 해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떠오르도록〉 전시본, 수류산방+이지웅, 2553×4228mm[841(×3)×594(×7)mm], 디지털 프린트.



180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Chun Taeil Memorial

181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D] 〈떠오르도록〉[수류산방+이지웅]

〈떠오르도록〉캡션 포스터, 수류산방+이지응, 841×594mm, 디지털 프린트.



[B-1-3]

〈떠오르도록〉

전태일노동상 30주년을 주제로 한 작업은 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실과 문화사업팀 유현아 팀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류산방에서 2022년 하반기에 생각을 발전시키며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사진은 수류산방 피디 이지응이 활영하기로 했습니다. 흔하 매일 킁킁한 새벽을 나서 노동의 역사를, 그리고 현장을 몸으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설치는 김나영, 이채영이 도왔습니다. 이지응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도시를 걸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동지에서 춘분까지, 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조금씩 일찍 찾아오고, 첫 햇살의 온기가 조금씩 더 선명해집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도록 내일 새벽에도 기도로, 노동으로, 씬으로, 사랑으로 먼저 눈 뜨는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동하는 자리에서 우주를 여는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50년 전 전태일과 이후 어둠을 몰아내어 온 노동자들에게, 30년을 이어 온 전태일노동상에, 분주히 살아 있는 생명들에게, 지대한 작업 과정에 도움과 격려를 준 모든 분들께, 스스로 떠오르는 태양과 케도를 지키는 토성에 몸과 마음을 모아고 마음으로 조아립니다.



[T-7]

다시 떠오르도록, 다시 분노할 수 있도록

[T-7-0] 오래 전의 일기 [T-7-1]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하나) [T-7-2]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둘) [T-7-3] 연민과 공감, 그리고 분노 [T-7-4] 다시 신화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 [T-7-5] 청계천, 어떤 세상의 끝 [T-7-6]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셋)

[조병준]

조병준 | 시인, 문화 평론가, 여행가. 서울 낙산아래 마을에서 자라 지금껏 머물고 있다. 문화 평론집인 첫 책 『나눔 나눔 나눔』을 펴낸 후,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오후 4시의 천사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를 미치게 하는 바다』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 『사랑을 만나러 길을 나서다』 『정당한 분노』 『기쁨의 정원』 등의 산문집, 시집 『나는 세상을 떠도는 집』, 사진 시집 『따뜻한 슬픔』 등 여행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열한 권의 책을 펴냈고, 지난해 열두 번째 책 『퍼스널 지오그래픽』(수류산방, 2021)을 출간했다. '내 마음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2022 특별 기획전 ● [30+1 : 떠오르도록]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E][T-7] 다시 떠오르도록, 다시 분노할 수 있도록 [조병준]

[T-7-0]

오래 전의 일기

오래 전의 일기 한 페이지를 곁어 읊니다. 어느새 20년 전이 가까워지는, 마흔 줄에 들어섰던 ‘열혈 중년’이 썼던 일기입니다. 다시 읽으니 참 젊었구나 싶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기도 하고요. 읽는 분들도 오그라드는 기분을 느끼실 것이 확실합니다. 뻔뻔한 중늙은이는 그래도 그 일기를 들이킵니다.

[T-7-1]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하나)

“전 자전거 외에는 그 어떤 탈 것도 몰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그 어떤 것도 못합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자전거라도 배워 놓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완전무결 뽕벅이로 평생을 살 뻔 했던 인간입니다.

어느새 꽤 지나 버린 어느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 친구를 불러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Diarios de motocicleta)>(2004)를 봤습니다. 개봉한지 1주일도 안돼 거의 모든 극장에서 막을 내린 영화니 빨리 보지 않으면 놓칠 게 뻔했습니다.

젊은 날의 혁명가... 기름 줄줄 새는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 두 젊은 혁명가, 에르네스토[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 1928~1967)]와 알베르토의 긴 여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오토바이 일기.

끝없이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제 눈으로 보지 못한 남미의 눈부신, 때로는 눈 아플 만큼 황량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영화는 기대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풍경들 때문에 시간은 아주 빨리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체 게바라를 일컬어 예수 이후 2천년 만에 돌아온 ‘혁명가의 신화’라고 했습니다. 삶에 짓눌린 민중들이 찾아낸 신화였다고 합니다. 체 게바라의 여정을 쫓아 남미를 일주했다던 제 아르헨티나 친구 에르난의 얼굴이 잠시 잠시 오버랩되곤 했습니다. 체 게바라처럼 베레모를 썼던 에르난은 지금 혁명 대신 캘커타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르난 식의 혁명이겠지요.

고물 오토바이에 올라탄 두 청춘의 모습이 자꾸 제 책상 앞 유리창에 어른거립니다. 그 끝없던 길들이 유리창 위에 주욱 펼쳐집니다. 끝없이 지루해 죽겠다는 듯 몸을 뒤틀어 대고 비닐봉지를 꼼지락거리며 제가 영화 속으로 몰입하는 걸 방해하던 제 옆자리의 젊은 여자 관객도 되살아납니다.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 재미없는 영화를 보러 왔을까요? 그녀는 뜬금없이 체 게바라의 전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가는 또 금세 잊혀지고 마는 이 이상한 대한민국의 한 표상인 걸까요?

그녀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죄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 책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체 게바라의 전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만에 그 체 게바라의 젊은 날을 그린 영화가 수입되었습니다. 수입사에선 베스트셀러의 힘을 믿었던 거겠죠. 광고도 할 만큼 하고, 큰 극장에서도 예고편을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극장들에서 그 영화는 1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있었듯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나라들에는 아름다운 청년 체 게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글에서 미국 CIA 요원들에게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에 살해당했던 청년이라네요. 그 체 게바라가 형이라고 불렀던 알베르토는 아직 쿠바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검버섯 피어난 얼굴로 알베르토 ‘형’이 등장합니다. 그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어찌면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이슬로 맺힙니다. 저 또한 살아남은 자로서 그 눈물을 제 멋대로 상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 [2005.02.07.]

그 한 해 뒤 저는 똑같은 제목으로 일기 한 편을 또 썼네요. 여전히 아직은 피가 따끈 따끈했던 ‘중년의 치기’가 느껴집니다만, 이왕 오그라든 거 더 오그라들자고 여기 또 옮겨봅니다.

[T-7-2]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둘)

“체 게바라의 짧은 일생이 신화가 된 이유를 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체 사이에 여러 닮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물론 둘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 연대 의식 또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죽음(당연히 타살이죠)이 추가되면 신화가 만들어질 충분한 재료가 확보됩니다. 인류 문명은 언제나 짧은 죽음에 열광하니까요.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면서, 체와 알베르토, 그 두 젊은 열혈 청년의 긴 여정을 보면서, 저는 예수와 체 사이의 또 하나 공통점을 생각했지요. 두 혁명가는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체는 오토바이를 타고 남아메리카 대지를 떠돌았고 예수는 아마 당나귀를 타거나 두 발로 걸어서 중동 땅을 떠돌았겠지요.

문득 왜 성서에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떤 추리가 말하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신과 영혼의 순례 여행을 다녔던 것일까요?

뜬금없이 예수와 체 게바라 이야기를 꺼낸 이유요? 별 거 아닙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라다크(Ladakh)의 황막한 대지를 잠시, 그러니까 겨우 1박 2일을 떠돌아

다녔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물론 운전면허도 없는 제가 오토바이를 몰 수는 없었
구요, 게스트 하우스 옆방에 묵고 있는 스페인 친구들 덕분에 편안히 오토바이 뒷
자리에 앉아 라다크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중의 하나인 누
브라 밸리(Nubra Valley)의 작은 마을들에 다녀왔습니다.

이곳 말로 누브라는 녹색이랍니다. 누브라 밸리는 ‘꽃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기도 하구요. 북으로는 중국과, 서로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민감한
지역이라 여행 허가서가 필요하고 길 내내 검문소와 군부대를 지나쳐야 했습니
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다든 해발 5,602미터의 카르동 라
(Khardung La)를 넘어야 했습니다.

키코(프란치스코), 로키(알베르토), 차비(차비엘), 안달루시아와 바르셀로나에
서 온 서른 살 초반의 세 스페인 친구와 무슬림 아버지와 부디스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두 아들의 아버지인 스물세 살의 라다키 청년 굴사, 그리고 젊다기엔 조
금 쭉스러운 코리언 준, 그렇게 다섯 사내가 오토바이 세 대에 나뉘 타고 라닥의 눈
덮인 고갯길과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별판을 달렸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앞서 가던 스페인 친구들이 넘어지기도 했고, 오토바이 한 대의 기
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고갯길을 앞에 두고 한 오토
바이의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두 대에서 조금씩 기름을 덜어 옮기고, 심
지어는 지나가던 인도 군용차에서 기름을 구걸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 풍경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 녹은 강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펼
쳐진 모래 언덕들, 거센 바람에 공중 높이 날아간 모래와 늦은 오후의 햇빛과 계곡
양편의 가혹하게 험벗은 산과 계곡 안의 애처로운 녹색 오아시스 같은 마을들이 어
울려 빚어낸 그 꿈같은 실루엣을 표현할 단어는 적어도 ‘아직’ 제겐 없습니다. 먼지
바람에 휩싸인 그 작은 마을, 디스킷(Diskit)을 표현하기 위해 제가 간신히 찾아낸
단어는 ‘세상의 끝’입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쓰기엔 턱없이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허가서가 규정
한 인도의 끝이었을 뿐,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몹시 전방진 오만임을
잘 압니다. 그래도 중얼중얼 우기립니다. 나는 세상의 끝에 다녀왔노라고요.

예수와 체 게바라의 뒤를 이어 얼마나 많은 혁명가의 신화가 만들어져야 이 세상의
모든 끝자리에 사는 이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까요. 여행자들이 여행 허가서
를 지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끝에 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젊은 죽음이 필요
할까요.

세상의 끝을 보았으니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겠죠. 어느새 라다크에 들
어온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곳을 떠나면 40도를 웃도는
더위와 북상하는 몬순에 신음하는 인도의 한여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겁니다.
네, 그래도 가야죠. 이제 제겐 모터사이클이 없으니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터벅
터벅 걸어서 어디론가로 가야죠. 어딘가엔 또 다른 세상의 끝이 있어 제가 도착하

기를 기다릴 테니까요. 그 또 다른 세상의 끝에서 어쩌면 제게 아직 없는 그 단어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06.06.14]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는 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나이 꽤나 먹은 사내가 이렇게 오래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다시 꺼낸 이유가 혹시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 책을 펼쳐든 분이시니 어쩌면 초입에 깔아놓은 작은 복선 하나를 눈치채신 분도 계시리란 희망 섞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느 오래된 신화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T-7-3]

연민과 공감, 그리고 분노

전생애 무슨 업보를 지었는지 전태일을 이야기하는 책들에 두 쪽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씁니다. 업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넣은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두 편의 글을 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몸으로 겪지 않은 역사를 쓰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제 개인의 역사를 빙빙 둘러 가며 전태일이 제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빙빙 둘러가는 길은 이제 영화에서 본 남아메리카의 길들과 오토바이 쾅무니에 매달려 갔던 인도 라다크의 길까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영화에 감동받게 만들고, 그 황량한 인도의 오지까지 ‘세상의 끝’을 외치며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풍노도의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분노였던 모양입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 꼬라지인 채로 끝없이 정의롭지 못하고 끝없이 지옥이어야 하는가, 그런 분노에 피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은 시간을 살았던 것이지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 뜨겁던 피 덕분에 세상의 끝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체 게바라와 전태일을 묶어주는 힘 또한 분노였으리라 믿습니다. 체의 시대든, 전태일의 시대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남아메리카든 어디든 세상의 모든 민중 또는 인민,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이라고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주당 52시간 노동이 과분한 사치라고 주장하며 69시간 노동이 자유라고 떠드는 권력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나요? 주당 120시간 일하고 월급 150만 원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외치는 선거 유세가 벌어진 건 19세기 말 산업 혁명 초기의 영국이 아니었던 걸요.

시공간을 초월해 불평등과 불공정한 세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끔찍한 과노동과 과경쟁 사회에 질식한 청년들이 노동자 재생산을 거부하자 기득권은 아주 쉬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제3세계 이민 노동자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누이동생 같은 여공들의 배고픔을 달래려 풀빵을 사먹으려면 몇 시간을 걸어 집으로 가야 했던 전태일의 삶이 정말 53년 전의 과거로 사라진 것일까요?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농업 노동자가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데요? 20

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 주면 어떻겠나네요.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
까진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니요. 으하하하하. 무덤에 있던 체와 태일이 형이 웃다
가 뺏가루가 다 날아갈 판입니다.

피 대신 돈을 빨아먹고 사는 자본 뱀파이어들의 세상은 점점 더 공고해집니다. 공
구리도 이런 공구리가 없습니다. 이제 철근이 더해지고, 온갖 새로운 기술이 더해
져 가진 자들, 또는 있는 것들의 단단한 구조는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이 천 년도
버티고 만 년도 버티겠다고 평평거립니다.

체가 게릴라로 나서지 않았다면, 전태일이 청계천에서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았다
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끔찍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준 그 앞서서 나간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풀빵을 배고픈 동생들에게 사 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뱀파이어들에겐 연민과 공감이라는 인간의 본능이 거세되어 있
으니까요. 연민과 공감에 뿌리내린 분노, 선한 이유를 담은 분노, 그래서 정당한 분
노, 그것이 체와 전태일을 일어서게 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7-4]

다시 신화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

역시 오래 전에 끄적였던, 편지 한 장을 또 읊습니다. 감히 체 게바라에게 쓴 편지입
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바꾸려면 분노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책의

한 쪽지로 썼습니다. ‘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소제목을 달긴 했지만, 물론 한국의
독자들에게 쓴 편지였지요. 그 편지의 몇 구절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또 한
번 부칩니다.

“[...] 당신에게 야속한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어떠셨나요? 쿠바에서 혁명을 완
성하고 이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계속 혁명을 이어가고자 했던 당신이
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후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
의와 불행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서 이 사진들을 보았다면, 당신
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탄식부터 내뿔었을까요? 아니면, 불끈 주먹을 쥐고 다시
그 베레모를 눌러썼을까요?

당신은 이미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의 80번째 탄생 기념일을 즈음해 당신의 이름과 이미지가 “티셔츠부터 보드카까
지” 상업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을까요. 어찌겠습니까. 그건 신화가
된 영웅들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일요. 장사에 이용되는 혁명이 어디 당신의 혁명
뿐이었습니까. 예수의 혁명, 부처의 혁명이 모두 종국에는 장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일요. 중요한 건 장사에 이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혁명이 신화가 되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는
실화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이었던 사건이 사람들 사이
에 퍼져 신화의 영역으로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보편성과 정신성을 획득하게 됩니
다. 그리하여 신화 속의 영웅들은 삶의 전범(典範), 곧 따라야 할 모델이 됩니다.

가난, 전쟁, 질병, 소외, 폭력, 억압, 차별, 탐욕...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불의와 불행들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 합니다. 혁명을 꿈꾸기에 세상은 너무 단단해졌다고 한숨만 쉬며,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눈 감고 살겠노라고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찢어진 당신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신화가 된 영웅의 초상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더 많은 비와 바람이 저 사진을 찢어내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시 당신의 초상이 붙게 될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꿈은 인간이 지구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꿈일 테니까요. 불의와 불행에 저항하는 몸부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행위는 곧 혁명이 될 테니까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혁명의 신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몹시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 지레 포기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신화가 있어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혁명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 선한 이유가 담긴 분노의 외침이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는 세상, 모든 불의와 불행으로부터 누구나 다 자유로운 세상이 꿈처럼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 또한 그 누군가에겐 꿈 같은 자유였을 테니까요.” [『정당한 분노』 (가야북스, 2008) 중에서.]

체 게바라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정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

화가 될 만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안중근, 유관순, 윤동주, 4.19혁명의 청년들, 광주 5월의 청년들, 그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 몇 장의 지면을 채울 만큼 뜨거운 피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름들 사이에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참 서글퍼집니다, 아니 서러워집니다. 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청년들은 신화속 영웅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걸까요.

의문형으로 쓰긴 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목숨 걸고 싸운 이들이 신화가 되지 못한 이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우다 스러진 청년들이 신화가 되지 못한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3.1절 아침에 일장기를 걸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큰소리치는 노예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득시글하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했든 말든, 어떤 부정을 저질렀든 내 아파트 값만 지켜주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바글바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 싸운 이들의 역사가 신화가 되지 못하게 끝없이 삭제 버튼을 눌러대는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분노할 힘조차 빼앗겨 버린 청년들이 이리도 많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알랑하게 남아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보다 더 약하다고 판단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퍼붓는 세태가 어디까지 치달을지 정말 무섭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요. 좌절한 약자들이 더 약한 이들에게 분노의 창을 겨눌 때 얼마나 참혹한 파시스트 세상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나이가 된 사내는 그래도 중얼거립니다. 무섭

다고 눈 감을 순 없지 않냐고요. 무서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것뿐이라면 그거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요.

[T-7-5]

청계천, 어떤 세상의 끝

아직 겨울이 남아 있던 지난 2월, 독일에서 독일계 회사의 영업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한국인 후배가 서울에 출장을 왔습니다. 후배에게 광장 시장에서 육회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였습니다. 배도 꺼트릴 겸 서울 구경도 시켜줄 겸, 조금 걸기로 했습니다. 광장 시장을 나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제겐 낯익은, 후배에겐 낯선 건물이 나왔습니다.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50주기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 책 두 권에 필자로 참여한 덕분에 전태일기념관이라는 공간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책이 아니었다면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일에 어쩌다 한번 제 일기장에 등장했다가 또 잊고 살아갈 그런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다 청계천 버들다리 또는 전태일 다리를 지날 때 그의 흉상 앞에 놓여진 꽃다발, 또는 목에 둘러진 스카프를 보며 다시 기억할 이름이었습니다.

후배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저와 전태일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야기했

습니다. 후배가 또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후배의 어머니께서 전태일처럼 피복 노동자로 일하며 자기를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아들이었지만, 전태일을 잊고 살았노라고, 전태일기념관이라는 공간이 서울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살았노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으니 전혀 책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태일 생전의 청계천을 복원한 상설 전시장 사이에 새로운 전시가 펼쳐져 있더군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출력의 사진 한 장. 수류산방과 이지웅 작가의 사진이었습니다. 〈떠오르도록〉. 전태일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의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찍은 사진들을 중첩시킨 것이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후배에게 전태일을 기억하는 책 두 권, 제 글이 실린 책들을 건네 주었습니다. 전태일의 삶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고,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쓴 글도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압니다. 후배의 삶이 결코 여유롭지 않을 것이고, 먹고 사는 일은 어디에서든 쉽지 않은 법인데, 낯선 나라에서 삶을 꾸려가는 일은 제아무리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편이라는 독일에서도 고단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삶도 고달픈데 무겁고 아픈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또 하나의 큰 무게를 어깨에 얹는 일이겠지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우는 그 두꺼운 책들을 두 팔 벌려 받아 주었습니다. 꼭 읽어 보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그날 청계천에 불던 2월 늦겨울의 찬 바람이 기억납니다. 전태일 기념관에 들어가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우리를 감싸주었던 그 온기를 기억합니다. 전태일 기념관이 생기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온기였습니다. 전태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전태일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준 고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록자들, 전태일의 싸움을 이어간 전태일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찬 바람 부는 청계천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입으로 전해지든, 문자로 전해지든 어떤 삶의 이야기들은 끝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설령 그 끝이 서러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뿌리내리고 부활하는 삶이 담겨 있다면, 그 이야기는 끝없이 말로, 글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모여 장엄한 신화의 모자이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웅의 신화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 정당한 분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라고 바뀌지 않는 이 잔인한 뱀파이어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뜨거운 피를 다 빠르고 좀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태일, 그리고 전태일의 길을 따라 걸어간 이들을 끝없이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 노래라도 함께 부르지 않으면 이 끔찍한 지옥의 어두운 밤을 맨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 조금 밝아졌다 싶으면 또 다시 시커먼 그믐날 밤의 새벽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만큼 왔으니 이제 맘 놓고 쉬어도 되겠다 싶으면 또 왕모래 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이 돌

아와 있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햇불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어둠을 몰아낼 만큼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지진 못했어도, 그래도 청계천에 홍상으로, 또 기념관으로 남겨진 신화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지켜낸 사람들에게 다시 감사합니다. 그 귀중한 작업에 아주 작은 검불 하나를 보탬 수 있어 또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위해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끝에서 그들의 걸음은 멈췄지만, 지구가 둥글기에 모든 끝은 또다른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세상의 끝에서 또 걷기 시작했고, 걷고 있고, 또한 앞으로 걸을 겁니다. 인간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굴러왔으니까요.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의 발걸음 탓에 지구라는 바퀴, 기도와 염원의 바퀴, 생명의 바퀴가 계속 돌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또한 그렇게 두 발로 이 바퀴를 굴려주시겠지요? 지구라는 행성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이지요.

[T-7-6]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셋)

낡은 이륜차를 타고 세상 끝으로 떠났던 사내는
늙은 당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물론 사람들은 잠시 환호했고
 사내의 긴 여행담이 끝났을 때
 그 바뀌지 않은 교훈적 결말에 분노했다
 못박혀 죽은 사내는 두번의 천 년이 지나기 조금 전에 부활했고
 총알 별집이 되어 다시 죽었다

모든 회전하는 것들이 그러하듯
 이륜차의 바퀴 또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
 세상의 끝은 또 세상의 시작
 한 천 년의 끝 또한 다시 한 천 년의 시작
 지긋지긋한 회전에 질린 사람들이
 세상 끝에 다녀왔노라고 허풍치는 사내들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을
 사내들은 과연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일기가 신화가 되고 신화는 다시 일기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몰랐더라면
 사내들은 세상 끝으로 가려 했을까
 [『따뜻한 슬픔』(산티, 2007) 중에서.]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 노조 사무실 풍경.

● 2022 특별 기획전 [30+1 : 떠오르도록] ●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 주최 | 서울특별시+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기획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전시 총괄 | 오동진 | 자문 및 자료 제공(가나다순) | 경향신문 권순갑 권영국 김진규 김하경 김학찬 나성자 단병호 매일노동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순희 박용수 박홍배 신광용 신순애 신정임 양승화 우다야 라이 유지현 유현아 이동우 이수호 이숙희 이순자 이승철 이종각 임종린 임현재 원풍동지회 전순옥 전태일재단 정명자 정인숙 조도영 최순영 최연봉 최종인 최현미 하명희 한국일보 | 공간 디자인 및 서동 | 램레이드[한주예슬] | 그래픽디자인 | 램레이드[이채린] | 영상 촬영 및 편집 | 만경[허철녕] 수상사[이무연, 임승택] | 사진 촬영 | 수류산방[이지웅]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Chun Taeil Memorial] | [0319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전화] 02.318.0903~4 [www.taeil.org]

● 참조

- 『어둠의 시대 불꽃이 되어』,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엮음, 학민사, 2021
-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도록 :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0
- 『풀은 밟혀도 다시 일어선다』, 원풍동지회 엮음, 학민사, 2021
-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이원보 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 『여공 1970 : 그녀들의 반역사』, 김원 지음, 이매진, 2006
- 『전태일 정신의 확장과 연대-2022 전태일노동구술기록 4』,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2
- 『나, 여성 노동자 1 : 1970~80년대 민주노조와 함께한 삶을 말한다』, 유경순 엮음, 그린비, 201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도록 [30+1 : 떠오르도록]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이브 ❸ | The Exhibition to [30+1 : To Rise Up] Cheonggye Pibok Labor Union Archive ❸ | 초판[01쇄] 2022년 12월 30일 | ISBN 979-11-980-3302-4 93910 | Printed in Korea, 2022 | Produced, Edited, Photographed, & Designed by SuRyuSanBang | ● 수류산방 樹流山房 SuRyuSanBang | 등록 2004년 11월 5일(제300-2004-173호) | [03054] 서울 종로구 팔판길 1-8 [팔판동 128] | T. 82.(0)2.735.1085 | F. 2.(0)2.735.1089 | 인쇄 코리아프린테크 (T. 82.(0)31 932 3551 ~2 담당 : 임종휘)